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 학위논문

# 지각 경험의 내용은 개념적인가 아니면 비개념적인가?

- 양립 모델로서의 이중 과정 이론에 대한 옹호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전 대 한

# 지각 경험의 내용은 개념적인가 아니면 비개념적인가?

- 양립 모델로서의 이중 과정 이론에 대한 옹호 -

지도교수 이 해 완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
전 대 한

전대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6월

위 원 장 _____ 이 정 환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이 종 희 _____ (인)

위 원 _____ 이 해 완 _____ (인)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지각 경험의 내용이 어떠한 성격의 대상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이하 “개념주의”)와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이하 “비개념주의”) 사이의 철학적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각에 관한 철학적 탐구에서의 새로운 대안으로써 서로 대립하는 두 입장의 양립 모델인 이중 과정 이론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에 대해 대립적인 입장을 제기하고 있는 두 철학적 입장인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의 입장에 관한 비판적 검토로부터 두 입장이 공통적으로 지각을 단일한 메커니즘으로 운용되는 심적 상태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가짐을 밝힐 것이다. 그 대신 본 논문은 인지과학과 신경철학의 논의를 토대로 지각을 서로 다른 두 메커니즘이 결합된 이중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심적 상태라고 주장하며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의 양립 모델인 이중 과정 이론을 옹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기존의 미학적 논의만으로는 합리적으로 해명하기 어려웠던 미분음 지각의 사례를 이중 과정 이론을 통해 더 잘 설명해낼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이중 과정 이론의 설명력을 검증해 보이고자 한다.

Ⅰ장에서는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의 핵심 쟁점이 되는 물음인 ‘지각 경험의 내용은 개념적인가? 혹은 비개념적인가?’에서 사용된 세 용어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예비적 고찰을 시도한다. 첫째로 지각적 믿음과 구별되는 논의 대상인 ‘지각 경험’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둘째로 지각 경험의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를 구체화하고, 셋째로 그 내용이 “개념적” 혹은 “비개념적”이라고 말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 대상인지를 설명한다.

Ⅱ장에서는 개념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개념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이 어떠한 동기를 갖고 있는지를 언급한 후, 맥도웰(John McDowell)과 브루어(Bill Brewer)로 대표되는 개념주의자가 제시하는 논변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그 논변이 마주하는 비판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Ⅲ장에서는 비개념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우선 비개념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어떠한 동기로부터 출발하는지를 살펴보고, 비개념주의의 논변을 두 유형으로 세분화한다. 개념주의에 관한 반론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춘 크레인(Tim Crane)의 논의를 소극적 비개념주의로,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의 구체적 후보를 제시하고자 하는 피콕(Christopher Peacocke)의 논의를 적극적 비개념주의로 구분하여 그 논변과 그에 제기되는 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Ⅳ장에서는 이중 과정 이론을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의 양립 모델로서 제시하고, 이중 과정 이론이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철학적 논쟁에서 새로운 대안임을 주장한다.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가 공통적으로 지각을 단일한 메커니즘으로만 운용되는 심적 상태로 전제한다는 사실로부터 두 진영의 문제가 발생함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지각을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메커니즘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의 내용을 산출하는 복수의 과정의 연합체인 심적 상태로 이해하는 이중 과정 이론을 옹호한다.

Ⅴ장에서는 미분음 지각 사례를 근거로 이중 과정 이론의 타당성과 설명적 유용성을 입증한다. 입증에 앞서 미분음 지각 사례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미분음 지각 사례에 대한 개념주의적 이해

인 음계도 가설과 비개념주의적 이해인 래프먼의 N-음고 지각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반면, 이중 과정 이론에 따른 미분음 지각 사례의 이해는 기존의 개념주의적 이해와 비개념주의적 이해에 비해 여러 이점을 가짐을 증명함으로써, 본 논문은 이중 과정 이론의 철학적 설명력과 미학적 의의를 밝힐 것이다.

**주요어** : 지각, 비개념주의, 개념주의, 신경철학, 이중 과정 이론, 미분음, 심리철학
**학 번** : 2019-20899

# 목 차

서론 ····· 1

Ⅰ. 예비적 고찰 ····· 6

1. 지각 경험과 지각적 믿음 ····· 7
2. 내용 ····· 11
3. 개념 ····· 15

Ⅱ.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 ····· 25

1. 개념주의의 두 동기 ····· 26
   1.1. 일상적 사례로부터의 직관 ····· 26
   1.2. 정당화자로서의 지각 경험 ····· 28
2.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표준적 개념주의 ····· 31
3. 표준적 개념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41
   3.1. 세밀성과 풍부함 ····· 41
   3.2. 재식별가능성 ····· 48

Ⅲ.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 ····· 54

1. 비개념주의의 두 동기 ····· 56
   1.1. 평범한 주체의 개념 소유의 한계 ····· 56
   1.2. 영유아나 동물의 지각 경험 ····· 57
2.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소극적 비개념주의 ····· 61
   2.1. 소극적 비개념주의의 논변: 크레인의 논증을 중심으로 61
   2.2. 소극적 비개념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66
3.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적극적 비개념주의 ····· 69
   3.1. 적극적 비개념주의의 논변: 피콕의 논증을 중심으로 69

3.2. 적극적 비개념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77

Ⅳ.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 ····· 82

1. 이중 과정 이론의 인지과학적 배경: 마의 연구를 중심으로 ····· 85

2.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 ····· 94

3. 이중 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05

4. 이중 과정 이론의 장점 ····· 114

Ⅴ. 이중 과정 이론의 의의 ····· 120

1. 미분음의 문제 ····· 121

2. 미분음 지각에 관한 기존 논의들 ····· 128

2.1. 음고 지각에 관한 개념주의적 입장: 음계도 가설을 중심으로 ····· 128

2.2. 음고 지각에 관한 비개념주의적 입장: 래프먼의 'N-음고' 지각 이론을 중심으로 ····· 133

3. 이중 과정 이론의 적용과 그 장점 ····· 143

결론 ····· 148

참고문헌 ····· 152

Abstract ····· 166

# 그 림 목 차

[그림 1] ····· 72
[그림 2] ····· 75
[그림 3] ····· 107

# 표 목 차

[표 1] ····· 146

# 서론

인간은 지각을 통해 세계를 처음 마주한다. 즉, 인간의 수많은 활동과 세계에 관한 경험은 무언가를 보거나 듣고 만지며, 맛보거나 냄새를 맡아보는 것을 그 출발점으로 삼는다.[1]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각은 믿음이나 판단과 같이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심적 상태를 주체가 담지하는 이유와 쉽게 동일시된다. 그렇기에 지각은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고찰하고 또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심적 작용이나 마음에 의해 형성되는 심적 상태에 관하여 사유하는 심리철학의 핵심적인 탐구 대상이다.[2]

지각의 이러한 중요성은 미학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인간의 미적 경험과 예술 작품에 대한 경험은 모두 지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처럼 보인

---

1) 이러한 점으로부터, 지각은 철학의 전통적인 탐구 대상 중 하나였다. 역사적으로 많은 철학자들이 지각에 관한 철학적 탐구를 시도했다. 우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인식론은 상당수 지각에 관한 논의를 그 핵심으로 삼았다. 프로타고라스로 대표되는 상대주의자들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하며 인간이 지각하는 바를 곧 세계에 관한 지식 그 자체와 동일시했고, 이와 정반대로 플라톤은 지식은 곧 지각이라는 상대주의자의 논의를 옹호하는 테아이테토스(Theaitetos)의 주장을 비판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한 플라톤과 유사하게 세계에 관한 지식의 형성에 있어서의 지각의 역할에 대해 비판적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각이 결코 어떤 행위의 원리(arche)일 수가 없다고 말하며, 지각이 참/거짓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하긴 하지만 지식의 원인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한다.

게다가, 지각에 관한 이러한 탐구는 합리론과 경험론으로 양분되는 근대 철학에서도 계승되어 핵심적인 주제로 작용한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라이프니츠로 대표되는 합리론자들은 세계에 관한 지식의 원천은 인간의 지각이 아니라 생득적인 이성이라고 주장하며 지각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로크와 버클리, 흄과 같은 경험론자들은 세계에 관한 지식이 오직 지각을 통해서만 가능한 인간의 경험을 그 원천으로 삼는다고 주장하며, 지각을 매우 중요한 철학적 주제로 삼았다.

2) 사실 별다른 증명 없이 지각을 믿음이나 판단의 이유와 쉽게 동일시하는 것은 매우 통속 심리학적인(folk psychological) 생각이다. 일견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직관적이고 상식적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많은 경우 눈으로 어떤 사물을 보았기에 그 사물이 자신의 앞에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단지 지각 경험이 믿음이나 판단과 같은 심적 상태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지각 경험이 믿음이나 판단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참이 되진 않는다. 이는 매우 사소해 보일 수 있으나 분명 검증이 필요한 문제다. 바로 그러한 간극이 지각을 현대 심리철학의 주된 논의 대상이 되게끔 만든다.

다. 우리는 거대한 폭포를 본 후 그 폭포가 숭고하다는 판단을 내리거나, 울려 퍼지는 새소리를 들은 후 그 새소리가 우아하다는 믿음을 가진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림을 보아야만 그 그림을 감상할 수 있고, 음악을 들어야만 그 음악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각에 관한 탐구는 '미적 경험(aesthetic experience)' 처럼 미학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주제에 관한 탐구의 단초이자,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마음에 관한 연구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다.[3)]

그런데 지각에 관한 철학적 탐구를 위해서는 지각에 관하여 보다 명료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지각에 관한 철학적 탐구가 마주하는 근본적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다. 지각은 분명 많은 인간에게 생득적으로 주어진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지각 경험의 과정은 사적으로 이루어지기에 그 내용을 완벽히 객관적으로 형언하기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 심리철학자들은 지각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 앞서 그 기반이 되는 지각 경험의 내용이 어떠한 성격의 대상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현대 심리철학에서 제기되는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에 관한 논쟁의 구도를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이하 "개념주의")와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이하 "비개념주의")로 양분하여 고찰하고, 서로 대립하는 두 입장을 양립시켜 논쟁의 양 진영 사이의 거리를 봉합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적 모델은 없는지 탐색해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따라서, 본고는 먼저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철학적 입장인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의 입장을 각각 살펴

3) 지각을 미학의 주된 주제로 삼고자 하는 학문적 시도는 분석철학의 전통을 따르는 몇몇 미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미적 경험이나 무관심성과 같은 미학의 전통적인 주제를 지각에 관한 철학적 논의와 인지과학적 연구 등의 문제로 치환하여 탐구해보고자 하는 네네이(Bence Nanay)나, 아름다움이라는 미적 범주를 지각과 감정의 문제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프린츠(Jesse Prinz), 음악에 관한 지식이 모두 지각에 의한 지식임을 밝히고자 하는 래프먼(Diana Raffman)이 대표적이다. 이들의 연구는 각각 Nanay, Bence. *Aesthetics as Philosophy of Percep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Prinz, Jesse. "Parenting beauty: Knowledge, culure and context in aesthetic perception". in *Perception, Cognition and Aesthetics*. Routledge (2019); Raffman, Diana. *Language, Music, and Mind*. MIT Press (1993)을 참고하라.

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또한 두 입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토대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가 공통적으로 지각을 단일한 메커니즘으로 운용되는 심적 상태로만 이해해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을 밝힐 것이다. 그 대신 본고는 인지과학적 배경에서 지각을 서로 다른 두 메커니즘이 결합된 심적 상태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며,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를 양립시킨 신경철학적 모델인 "이중 과정 이론(dual process theory)"을 옹호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모델의 설명력을 증명하기 위해, 기존의 미학적 논의들을 통해서는 해명하기 어려웠던 미분음 지각의 사례를 이중 과정 이론이 잘 설명해낼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전개될 것이다. Ⅰ장에서는 본고가 다루고자 하는 철학적 입장들 사이의 쟁점인 '지각 경험의 내용은 개념적인가? 혹은 비개념적인가?'라는 물음에 사용된 세 용어들의 의미를 명료화하는 예비적 고찰을 시도할 것이다. 첫째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가 지각적 믿음과 구분 지으며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는 '지각 경험'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둘째로 그러한 지각 경험의 '내용'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분명히 할 것이며, 셋째로 그 내용이 "개념적" 혹은 "비개념적"이라고 말할 때의 '개념'은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설명할 것이다.

예비적 고찰에서의 명료화를 토대로 Ⅱ장에서는 개념주의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단, 개념주의의 논변을 검토하기에 앞서, 지각 경험의 내용이 개념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어떠한 동기로 이와 같은 입장에 찬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동기를 바탕으로 맥도웰(John McDowell)과 브루어(Bill Brewer)를 비롯한 표준적 개념주의자들이 어떠한 논변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논변이 마주하는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살펴볼 것이다.

Ⅲ장에서는 비개념주의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다. 지각 경험의 내용이 비개념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어떠한 동기로 이러한 입장에 찬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비개념주의자들의 논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를 검토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개념주의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개념주의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데 집중하는 크레인(Tim Crane)의 논의를 "소극적 비개념주의"로 명명하고,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후보들을 제시하는 피콕(Christopher Peacocke)의 논의를 "적극적 비개념주의"로 명명하여 둘의 입장을 각각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두 유형의 비개념주의에게 제기되는 비판도 검토해보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가 모두 지각을 단일한 메커니즘으로 운용되는 심적 상태로 이해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그 대신 지각을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메커니즘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의 내용을 산출하는 복수의 과정들의 연합체인 심적 상태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의 각각의 장점을 모두 취하기 위해 두 입장을 양립시킬 때 더 설명력이 뛰어난 철학적 이론을 획득할 수 있음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개념주의-비개념주의의 양립 모델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인지과학에서의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그 논의를 활용하여 "이중 과정 이론"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는 라프토폴루스(Athanassios Raftopoulos)의 신경철학적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중 과정 이론에 제기될 수 있는 두 가지 비판을 검토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중 과정 이론이 세 가지 장점들을 가진다는 사실을 언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Ⅴ장에서는 이중 과정 이론이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기존의 두 철학적 입장과 달리, 시지각 경험의 사례만이 아니라 청각 지각 경험의 사례까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실용적인 철학적인 이론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음고 지각'이라는 청각적 사례, 그 중에서도 미분음 지각의 사례라는 난제를 이중 과정 이론이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음고 지각에 관한 기존의 미학적 논의나 음악학적 논의를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 노선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입장을 살펴볼 것이

다. 즉, 음고 지각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에 해당하는 논의로서 음악학과 인지심리학 등에서 제시되고 있는 음계도 가설을 검토하고, 음고 지각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에 해당하는 논의로서 래프먼(Diana Raffman)의 ‘N-음고’ 지각 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두 이론이 모두 미분음 지각에 관한 성공적인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이중 과정 이론을 토대로 한 미분음 지각의 이해는 여러 이점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이중 과정 이론의 철학적 이점과 미학적 의의를 밝힐 것이다.

# Ⅰ. 예비적 고찰

지각은 인간의 여러 활동들의 출발점이 되거나 근거처럼 여겨지기에, 지각에 관한 탐구는 매우 오래 전부터 시도되어 왔다. 지각은 인간이 외부 세계를 포착하는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이기에, 지각의 본성에 관해 이해하는 일은 결국 인간의 수많은 활동들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양한 분과 학문에서 각자의 방법론에 기반을 두어 지각의 본성을 파악해보려고 시도했음에도, 아직까지 지각의 본성에 관한 단일한 이론을 산출하지 못했다. 지각에 관한 탐구의 어려움에는 여러 이유들이 작용하겠지만, 생각해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지각'이라는 심적 상태 그 자체가 매우 모호하기에 그에 관한 탐구가 이루어질 때 동원되는 용어나 개념의 의미까지도 불분명해진다는 점이다.

이러한 난점은 지각에 관한 철학적 논의들에서도 나타난다. 철학자 개인이 지지하는 관점이나 태도 등에 의해 지각과 관련된 용어와 개념이 합의되지 못한 채 난삽하게 사용되고 있기에, 동일하게 지각에 관해 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철학자들은 사실상 완전히 다른 논의를 전개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본 장에서는 오늘날 심리철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각의 본성에 관한 탐구의 주요한 논제 중 하나인 '지각 경험의 내용은 개념적인가, 비개념적인가?' 하는 물음에 관한 여러 철학적 입장들을 조망하기에 앞서, 해당 논제를 구성하는 용어의 범위와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는 예비적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지각'이라고 뭉뚱그려 말하는 '지각 경험'과 '지각적 믿음'을 구분한 뒤, 전자에 해당하는 지각 경험의 '내용'이란 무엇인지를 짚어볼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지각 경험의 내용이 개념적 혹은 비개념적이라고 주장할 때의 '개념'이 지칭하는 대상의 후보들을 살펴봄으로써, '개념'의 의미를 명확히 해볼 것이다.

## 1. 지각 경험과 지각적 믿음

우리는 눈을 통해 어떤 사물을 본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그 사물을 보고 있다고 믿고, 더 나아가 그 사물이 자신의 앞에 있다고 믿는다. 이는 매우 일상적인 우리의 시지각 사례이다. 그러나 이 사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해볼 수 있다.

(1) 대한은 눈을 통해 빨간 사과를 본다.
(2) 대한은 "나는 빨간 사과를 본다." 라고 믿는다.

'지각' 이라는 심적 상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일상적이기에, 우리는 (1)과 (2)에 해당하는 지각의 두 세부 과정을 엄밀하게 구분하지 않고 '지각' 이라고 뭉뚱그려 말하곤 한다. 그러나 많은 철학자들은 이 둘을 각각 지각 경험과 지각적 믿음으로 구분해야함을 지적한다.[4] 물론 지각 경험과 지각적 믿음은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고 또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간주되곤 하지만, 심리철학에서는 지각에 관한 탐구의 시작점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 일을 놓곤 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지각 경험과 지각적 믿음의 차이를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렇다면 지각 경험과 지각적 믿음은 각각 무엇일까? 지각 경험이란,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그리고 사물과 사건과 그것들의 특징들에 익숙해지기 위해 우리의 감각들을 사용하는"[5] 경험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빨간 사과를 보고 있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

4) 대표적으로, 암스트롱(David Armstrong)이나 피처(George Pitcher)가 이러한 구분을 제안한다. 이들은 지각 경험이 주체가 지각적 믿음을 형성하도록 하는 경향성이라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암스트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각은 우리의 감각들을 통해 물리적 세계에 관한 특정 사실들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는 것 혹은 때때로 그러한 사실들을 믿고자 하는 경향성(inclination)을 획득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Armstrong, David. *Perception and the Physical World.* Routledge & K. Paul (1961). p. 105.을 참고하라.

5) Martin, Michael. "Perception". *The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Taylor and Francis (1998)

이때, 우리는 눈을 통해 빨간 사과에 해당하는 한 사물을 본다. 여기까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은 오직 지각 경험 그 자체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 사물을 보는 지각 경험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항상 관련된 어떤 판단이나 믿음을 덧붙인다. 이를테면, 우리는 방금 눈을 통해 본 '저 사물은 빨갛다.' 라는 판단을 하고, 또 '저 사물은 사과다.' 와 같은 동일성 판단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에 근거하여 '나는 (내가) 빨간 사과를 본다고 믿는다.' 나 '나는 내 앞에 사과가 놓여 있다고 믿는다.' 처럼 자신이 한 지각 경험에 대한 믿음을 형성한다. 이처럼, 우리는 지각 경험으로부터 여러 정보들을 얻고 그 정보들을 인지(cognition)를 통해 판단과 같은 형식으로 처리한 뒤, 무언가에 대한 믿음을 형성한다. 이렇듯, 주체가 자신이 한 지각 경험에 관하여 형성하는 믿음이 바로 지각적 믿음이다.

이때, 우리는 '지각적 믿음' 이 믿음의 일종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지각적 믿음은 분명 믿음의 일종이기에, 현대 인식론에서 제시되고 있는 많은 철학적 논의들이 적용된다. 현대 인식론은 일반적으로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으로 간주하는데, 지식의 조건 중 하나인 '믿음' 은 그 내용을 명제의 형식으로 가진다. 욕구(desire)나 소망(wish) 등을 포함하는 인간의 심적 행위를 "명제 태도(propositional attitude)" 라고 부르는데, 명제 태도에 해당하는 심적 행위는 그 표현에서 드러나듯 명제의 형식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견지되는 태도이다. 믿음도 명제 태도의 일종이기에, 믿음은 그 내용을 명제 형식으로 갖는다. 그러므로 믿음의 일종인 지각적 믿음 또한 그 내용을 명제의 형식으로 갖는다.

그런데 지각적 믿음에 있어서 지각 경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앞서 보았듯, 지각적 믿음은 지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 보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지각 경험은 지각 경험은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하는 이유나 근거가 된다. 즉, 우리가 '나는 (내가) 빨간 사과를 보고 있다고 믿는다.' 라는 지각적 믿음을 형성했을 때, 이 지각적 믿음이 정당화되려면 지각적 믿음의 내용은 그 믿음의 형성을 야기한 지각 경험( '내가 빨간 사과를 봄' )의 내용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다.[6] 그런데 명제는 개념으로

구성된다. 특히, 명제를 구성하는 주어와 술어는 특정한 개념들을 포함한다. 이를테면, 방금 사례로 든 '나는 빨간 사과를 보고 있다.'라는 지각적 믿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명제를 보자. 이 명제는 적어도 〈빨강(혹은 빨간색)〉, 〈사과〉, 〈봄〉이라는 개념을 포함한다.[7] 그리고 이 개념들은 지각 경험의 내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즉, 지각적 믿음의 내용과 지각 경험의 내용 사이의 상응 관계에 대한 판단은 대체로 지각적 믿음의 내용을 이루는 명제가 지각 경험의 내용과 유관한 개념들을 포함하여 구성된 명제인지 아닌지를 토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각적 믿음은 주체가 지각 경험과 관련하여 소유하는 개념들을 토대로 명제의 형식으로 재구성된 내용만을 그 내용으로 갖는다. 그러나 지각 경험은 분명 지각적 믿음과 다르므로, 믿음의 일종이 아니다. 그렇기에 지각 경험의 내용은 우리가 소유한 개념들을 거쳐서 명제의 형식으로 재구성된 내용을 가질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일상적인 지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지각 경험의 내용은 개념화를 거쳐서 명제 형식으로 재구성된 지각적 믿음의 내용보다 훨씬 풍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다시금, 빨간 사과에 대한 지각 경험과 그 지각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지각적 믿음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우리는 눈이라는 감각 기관을 통해 빨간 사과라는 한 사물을 본다(지각한다). 이때 우리의 시지각의 대상인 사물의 색은 정확하게 '빨간색'이 아닐 수도 있다. 보다 단순한 설명을 위해, 우선 색상 팔레트에서의 코드만을 기준으로 색에 대해 논하

---

6) 물론 나의 지각 경험의 내용과 지각적 믿음의 내용이 상응하지 않아도, 정당화된다고 판단될 수 있는 지각적 믿음의 내용도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어떤 대상에 대한 지각 과정은 올바르게 이루어졌으나 그 대상이 환영(illusion)이나 신기루였다면, 주체가 자신은 '나는 (내가) 노란 레몬을 보고 있다고 믿는다.'라는 지각적 믿음의 내용은 정당화되지만 지각 경험의 내용과 상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7) 본고는 주체가 소유한 혹은 주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개념을 언급할 때는 홑화살괄호(〈〉)를 사용할 것이다. 해당 개념에 상응하는 언어 표현을 언급할 때는 큰 따옴표( “ ” )를 사용할 것이다. 개념과 언어 표현과 연관된 실제 대상을 언급할 때는 작은 따옴표( ‘ ’ )를 사용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홍'은 우리가 실제로 눈을 통해 보는 색조 그 자체를 나타내며, “다홍“은 그 색조에 관한 발화나 문장을 제시할 때 사용되는 언어 표현을 나타내며, 〈다홍〉은 그러한 언어 표현과 상응하여 화자가 마음 속에 품고 있는 개념을 나타낸다. 이러한 표기법은 김영진. 「비개념적 내용에 대한 크레인과 헥크의 입장 - 비판적 고찰」. 『철학사상문화』 제9호 (2010)을 참고했다.

기로 하자. 표준적인 빨강의 색상코드는 ‘#FF0000’이다.[8] 그런데 앞서 우리가 보았다고 말한 빨간 사과의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들보다 조금 더 많이 익어서 보다 진한 빨강에 해당하는 ‘#FF2400’[9]일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부분은 다른 부분들보다 조금 덜 익어서 보다 연한 빨강에 해당하는 ‘#FF4500’[10]일 수도 있다.

게다가, 위 사례에서는 색상 팔레트에서의 코드만을 기준으로 삼았기에 그나마 부분들 간의 색상 차이를 비교적 쉽게 코드로 표현할 수 있지만, 색상 팔레트에서의 코드로도 포착하기 어려울 정도로 훨씬 미세한 차이만을 갖는 색상들이 단일한 대상 내에 여럿 존재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11] 예를 들어, RGB값에서 다른 값은 다 동일한데 R값에서 0.00000...1만 차이나는 두 색상이 있다면, 우리는 두 색을 모두 “빨강”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색 이름이나 색상 팔레트에서의 코드처럼 미리 정해진 상응하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두 색은 분명 미세하지만 R값에서 0.00000...1만큼 차이가 나기에 서로 다른 색이다. 이처럼, 우리는 자신이 실제로 지각한 바대로 미세한 차이를 갖는 두 색을 각각 대응되는 서로 다른 두 개념으로 개념화하지 못하고, 그저 지각 대상인 색조와 유사한 <빨강>이라는 ‘견본 색상’으로 뭉뚱그려 개념화한 뒤 다소 부정확하게 언표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미세하지만 풍부한 차이를 전부 포착할 수 있는 지각 경험의 내용의 특징을 심리철학에서는 ‘세밀성(fine-grainedness)’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지각 경험의 내용은 지각적 믿음의 내용과는 달리 세밀성을 담지할 수 있기에 아주 미세하지만 동시에 풍부한 차이들을 표상할 수 있다. 따라서 명제 형식의 필요성 외에도 세밀성이라는 특징을 기준으로도, 지각 경험의 내용은 지각적 믿음의 내용과는 분명히 다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심리철학에서 지각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다

---

8) RGB값으로는 ‘R: 255, G: 0, B: 0’인 색상이다.
9) RGB값으로는 ‘R: 255, G: 36, B: 0’인 색상이다.
10) RGB값으로는 ‘R: 255, G: 69, B: 0’인 색상이다.
11) 사실 이러한 미세한 차이가 지각 경험의 내용과 지각적 믿음의 내용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사례일 것이다.

루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각 경험의 내용은 정말로 명제의 형식을 띠고 더 나아가 전적으로 개념으로만 구성되는 개념적인 것이고, 그렇기에 지각 경험의 내용은 세밀하지 않고 거칠고 조잡한(coarse-grained) 것일까? 아니면 지각 경험의 내용은 개념이 아닌 무언가로도 구성될 수 있는 비개념적인 것이고, 그렇기에 지각 경험의 내용은 정말로 우리의 일상적인 지각이 제시하듯 풍부하고 세밀한 것일까? 따라서, 이와 같이 지각적 믿음의 내용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이는 지각 경험의 내용만의 특징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가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 2. 내용

다만,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여러 철학적 입장들을 검토하기에 앞서, 이때 논의되는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지각 경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료화해보고자 한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심적 상태에 놓인다. 믿음이나 욕구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멋진 옷을 입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거나, 손을 뻗어서 책상 위에 놓인 펜을 잡을 수 있다고 믿는다. 일차적으로 이러한 인간의 심적 상태는 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를테면, 우리는 주체가 멋진 옷을 입고 싶다는 욕구를 갖는 것을, 옷이라는 외부 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이 눈이라는 감각 기관을 통해 자극으로 입력되어 시신경을 흥분시키고 그 흥분이 뉴런을 거쳐 뇌로 전달되었으며 이로 인해 뇌의 특정 부분이 흥분하여 바로 그러한 욕구를 느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처럼, 심적 상태를 내/외부적인 계기에 의해 우리의 신체와 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기능의 총체로 간주하는 물리주의적 입장은 심적 상태에 관한 대표적인 한 이론 중 하나이다.

그러나 심적 상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물리적 작용이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떠한 심적 상태에 놓이면, 그러한 물리적

작용 외에도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무언가가 지향되거나 나타내어지곤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음속에서 떠올려진 지향적인 심적 상태의 대상이 갖는 세세한 특질들은 심적 상태의 주체마다 제각기 다를 수 있다. 다시 말해, 분명 특정한 뉴런의 흥분이 발생했다는 물리적 사실은 동일한데, '지각'이라는 심적 상태로 인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주체마다 모두 다를 수 있다. 그렇기에 주체가 특정한 심적 상태에 놓일 때 마음 속에 품게 되거나 지향하게 되는 사건이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를 칭하는 '내용'은 심적 상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오히려 물리적 작용만으로는 지각 경험을 온전히 설명할 수는 없다. 이를테면, 빨간 사과를 보는 시지각 경험을 논하는 데 있어, 그 시지각 경험이 발생하기 위한 일련의 물리적 작용들을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주체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빨간색의 채도나 명도 등의 구체적인 현상적 요소들을 설명하진 못한다. 앞서 보았듯, 동일한 물리적 작용이 일어났음에도 현상적으로는 서로 다른 경험을 하는 일상적 지각 사례가 얼마든지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일한 외부 사물로부터 동일한 조건으로 반사된 빛이 동일한 위치에 서있는 두 사람에게 동일한 시신경을 자극하는 경우에서도, 그 사물의 색은 각각 진홍과 다홍일 수 있다. 이 경우, 지각 경험을 야기하는 물리적 사건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주체 자신의 지각 경험에 의해 그 주체에게 전달되는 것"[12]인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해서까지 논하는 것은 아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각 경험의 '내용'은 지각 경험을 야기하는 물리적 대상들과 그 대상에 의해 발생된 사태와는 별개로 우리의 지각 경험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한 요소이다.

이와 같이 지각 경험의 '내용'이 지각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까닭은 앞서 논했듯 지각 경험이 지식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기능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13] 즉, 우리가

12) Siegel, Susanna. "The Contents of Perceptio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5)

어떠한 지각 경험이 특정한 믿음과 정말로 정당화 관계에 놓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각 경험이 바로 그 믿음과 모종의 관계를 맺는다고 판단하는 일이 적합한지를 따져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각 경험과 지각적 믿음 사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데 주요하게 활용되는 요소가 바로 지각 경험의 '내용'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많은 철학자들은 지각 경험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그 경험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런데 주체가 자신의 감각을 통해 외부 세계의 대상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험 그 자체(지각 경험 그 자체)와 그러한 경험에 관하여 주체가 자신의 마음속에 품게 되는 바(지각 경험의 내용)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주체가 지각 경험을 통해 실제로 마주한 사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주체가 그 경험에 관하여 묘사하고 기술하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면, 우리는 주체의 지각 경험이 비표준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주체가 자신의 지각 경험 '내용'을 적절하게 형성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즉, 지각 경험과 지각적 믿음을 정말로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기도 전에 주체가 품고 있는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면, 우리는 올바르게 해당 지각 경험과 지각적 믿음 사이의 정당화 관계를 검토할 수 없다.

그래서 지각적 믿음에 있어서 지각 경험이 수행하는 인식론적 역할을 강조하는 철학자들은 먼저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적절성 조건(correctness condition)을 충족해야만 한다고 전제한다. 우리는 특정한 지각 경험을 겪고 난 후, 그 경험의 내용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 앞의 책상에는 빨간 사과가 놓여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철수가 그 빨간 사과를 보는 시지각 경험을 하고서, "책상 위에 초록 사

13) 물론 지각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일종의 오류 이론(error theory)을 전제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마주한다. 왜냐하면 지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일상적 지식을 모두 정당화되지 않은 것으로 격하시키기 때문이다. 즉, 지각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의 수많은 일상적 지식들을 정당화되지 않은 믿음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기에, 그 논증에 있어서 큰 부담을 진다. 이로 인해, 지각에 관하여 논하는 많은 철학자들은 지각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을 참으로 상정하고, 이에 맞추어 후술되는 적절성 조건을 받아들이곤 한다.

과가 있네.” 라며 자신의 지각 경험의 내용을 보고하거나 다른 빨간 사물들에 대한 과거의 지각 경험에서 포착했던 현상적 특징들이 아니라 초록색 사물들에 대한 과거의 지각 경험에서 포착했던 현상적 특징들을 재포착한다면, 우리는 철수의 지각 경험의 내용이 그의 실제 지각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이다.[14)]

이렇듯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적절성 조건을 갖는다는 점은 지각이 수행하는 인식론적 역할을 고려했을 때 더욱더 중요하게 간주된다. 앞서 보았듯, 우리의 지각 경험은 우리가 형성하는 믿음과 믿음에 의해 정당화되는 지식의 근거가 된다. 그러려면 지각 경험의 내용이 어떤 믿음이나 지식의 근거가 되기에 적합한지 판단이 가능해야만 하고, 그렇기에 지각 경험의 내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적절성을 따져보는 일이 가능한 대상이어야 한다. 실제로 우리는 많은 믿음이나 지식의 타당성을 그 근거로 제시된 지각 경험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다. 즉, 지각 경험의 내용은 실제 지각 경험과의 적절성을 따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

---

14) 물론 철수라는 지각 주체가 색약이나 색맹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색약이나 색맹 주체의 경우, 비-색약 혹은 비-색맹인 주체가 겪는 지각 경험과 아예 다른 조건에서 시지각 경험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색약과 색맹 사례는 비-색약 혹은 비-색맹 주체에게 적용되는 적절성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수 없는 예외 사례이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색맹이나 색약은 주체의 눈에 있는 세 유형의 원추세포 중 일부 혹은 전체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그러므로 색약 혹은 색맹인 지각 주체는 비-색약 혹은 비-색맹 주체와는 아예 다른 물리적 조건에서 시지각 경험을 겪는 것이다. 광색소를 흡수하는 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세 유형의 원추세포를 보유한 주체의 지각 경험은 분명 그 기능을 일부 혹은 전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원추세포를 보유한 주체의 지각 경험과 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특정한 색에 관한 내용을 자신의 지각 경험의 내용에 포함시키지 못했더라도, 색약이나 색맹인 지각 주체가 자신에게 경험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잘 보고했다면 그 내용은 적절성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적록 색맹인 철수가 빨간 사과를 보고서 “저 사과는 회색이다.” 라며 자신의 지각 경험 내용을 보고했다면, 이는 적절한 지각 경험 내용이다. 왜냐하면, 철수는 정말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반면, 적록 색맹인 철수가 빨간 사과를 보고서 “저 사과는 파란색이다.” 라며 자신의 지각 경험 내용을 진술했다면, 이는 적절하지 않은 지각 경험 내용이다. 왜냐하면, 적록 색맹인 지각 주체의 원추세포는 적색소와 녹색소를 흡수하지 못하여 빨간색이나 초록색 사물을 회색조로 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을 자신의 지각 경험의 내용으로 보고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색약이나 색맹의 사례는 비-색약 혹은 비-색맹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전적으로 적절성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패 사례가 아닌, 고유한 적절성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 예외 사례이다.

성 조건을 그 특징으로 갖는다.[15]

그렇다면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적절성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어야 하는가? 이와 같은 물음이 제기됨에 따라, 철학자들은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관한 첨예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 이때, 논쟁의 기준점 중 하나는 바로 지각 경험의 내용이 '개념적'이라고 보아야 하는지 혹은 '비개념적'이라고 보아야 하는지가 되는데, 다음 절에서는 논쟁의 양측 입장을 검토하기에 앞서 공통적으로 전제되고 있는 '개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 개념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이 어떠한지에 대해 몇몇 철학자들은 지각 경험의 내용이 개념적이라고 주장하고, 또 다른 철학자들은 지각 경험의 내용이 비개념적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각각의 입장을 검토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이 두 입장이 공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많은 철학자들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개념'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제시해왔는데, 이 논의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세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개념을 심적 표상(mental representation)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있다.[16] 개념과 심적 표상을 동일시하는 이들은 개념을 곧 외부의 실재

---

15) Ⅱ장에서도 서술하겠으나, 적절성 조건을 갖는 지각 경험의 내용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철학자들은 개념주의를 옹호한다.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적절성 조건을 갖는다는 것은 곧 지각 경험의 내용이 실제 지각 경험과 비교했을 때 적절한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기에, 지각 경험의 내용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 그런데 어떤 것이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곧 그것이 명제로 환원될 수 있고 또 개념을 통해 전적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개념주의자는 지각 경험의 내용의 적절성 조건을 참으로 전제하고 논증을 전개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 사이의 철학적 논쟁을 검토하는 데 앞서 지각 경험 내용의 적절성 조건을 예비적으로 고찰하고자 했다.

16) 이러한 입장은 '마음에 관한 표상 이론(the representational theory of mind, 이하 RTM)'이라고 불린다. RTM은 마음에 관한 여러 철학적 입장들 중 매우 전통적으로

를 다시 나타내는(re-present) 내적인 인지적 기호라고 이해한다.[17] 요컨대,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는 이들은 표상이란 '마음속에 떠오르는 기호나 상징과 같은 무언가' 이며, 더 나아가 이러한 심적 표상이 곧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듯,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내적인 기호나 상징 등이 바로 심적 표상이기에,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상태인 심적 상태는 당연하게도 그 내용을 심적 표상으로서 가진다. 그래서 개념과 심적 표상을 동일시하는 입장의 지지자들은 믿음이나 욕구와 같은 전형적인 명제 태도에 해당하는 심적 상태들은 물론이고, 지각을 포함하여 마음에서 일어나는 다른 수많은 유형의 심적 상태들의 내용이 바로 심적 표상이라고 간주한다.

다만, 개념이 곧 심적 표상이라고 간주하는 이들 사이에서도 세부적인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 심적 표상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언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언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적 표상으로서의 개념의 지지자 중 첫 번째 노선은 심적 표상이 곧 "그림 같은 무언가(picture-like entity)"[18]라고 주장한다. 전통적으로 마음에 관한 표상 이론을 지지하는 이들은 개념과 동일시되는 심적 표상을 심상(mental image)의 일종으로 보았다. 이러한 입장은 버클리나 로크, 흄과 같은 근대 경험론자들이 주창했던 심상론(imagism)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날까

---

주장되어왔던 논의로 간주할 수 있는데, 어떤 이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스마(Phantasma)"로부터 RTM의 기원을 찾기도 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우리는 외부 대상들로부터 감각을 통해 감각 자료(Aisthemata)를 얻고, 그 감각 자료로부터 판타스마를 얻으며, 그 판타스마로부터 사유의 내용을 얻는다. 즉, 판타스마는 지각을 통해 수용된 외부 대상에 관한 사유의 내용을 형성하는 토대나 기초이다. 판타스마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지각 경험으로부터 외부 대상에 대해 주체의 마음 속에 형성되는 표상에 관한 논의와 매우 유사해 보인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스마"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전헌상.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론: — 『영혼론』 3권 3장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55호 (2005)를 참고하라.

17) 이는 모건(Alex Morgan)이 램지(William Ramsey)를 중심으로 심적 표상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전개하는 일군의 철학자들의 논의를 정리한 바를 필자가 거칠게 요약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Morgan, Alex. "Representations Gone Mental". *Synthese* 191 (2014).을 참고하라.

18) Prinz, Jesse. *Furnishing the Mind: Concepts and Their Perceptual Basis*. The MIT Press (2002). p. 139.

지 이어지고 있다. 근대 경험론자들은 인간의 심적 상태의 기본 단위로서 '관념(Idea)'을 제시했는데, '관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주로 심상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즉, 이들은 심적 표상과 동일시되는 심상을, 지각되는 외부 대상을 닮은 그림 같은 무언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러한 입장은 프린츠(Jesse Prinz)나 마골리스(Joseph Margolis), 로렌스(Stephen Laurence) 등과 같은 철학자들에 의해 계승된다. 프린츠는 심상론의 주장을 계승하여 시각적 요소에 기반한 표상이 우리의 개념 형성에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19] 프린츠는 시각에 관한 인지과학적 연구들을 인용하며 우리의 시지각 과정에서 입력된 정보들이 기하소자(Geon)[20]처럼 그림 같은 개체로 재편되어 처리된다는 점을 예시로 든다. 시지각과 시지각 경험의 내용에 기반을 두는 시각적 재인(recognition) 과정 모두, 기하소자와 같은 그림 같은 개체를 그 내용의 기본 단위로 활용하기에 심적 표상으로서의 개념을 곧 그림 같은 개체로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철학자들은 위와 달리 심적 표상으로서의 개념이 곧 '언어 같은 무언가(language-like entity 혹은 word-like entity)'라고 주장한다. 대표적으로 포더(Jerry Fodor)가 이러한 입장에 속한다. 포더는 인간의 마음이 언어의 체계와 동일한 구조를 가졌다는 사고언어가설(language of thought hypothesis) 가설을 제시한다.[21] 인간의 자연 언어

---

19) Ibid.

20) "기하소자(Geon)"는 "기하학적 이온(Geometric Ion)"을 줄여서 부르기 위한 용어이다. 비더만(Irving Biederman)에 의해 제안된 용어로, 3차원 모양(volumetric)의 기본 단위를 뜻한다. 일상 생활에서 마주하는 많은 사물들은 구, 원뿔, 직육면체 등의 조합으로 환원될 수 있는데, 이때 그 환원의 기본 단위가 되는 구나 원뿔 등이 대표적인 기하소자이다. 기하소자를 토대로 한 인간의 재인과 이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Biederman, Irving. "Recognition-by-Components: A Theory of Human Image Understanding". *Psychological Review* 94 (1987)을 참고하라.

21) 사고언어가설(Languge of thought hypothesis)는 포더의 1975년 저작 『사고의 언어(*The Language of Thought)*』에서 제시된 가설로서, 심적 표상이 언어의 구조와 동일한 혹은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고 상정한다. 달리 말하자면, 사고언어가설의 지지자는 인간의 사고가 심적 언어라는 언어의 일종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사고언어가설은 포더를 필두로 필리쉰(Zenon Pylyshyn), 밀리칸(Ruth Milikan) 등의 여러 심리철학자들에 의해 옹호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Fodor, Jerry. *The Language of Thought*.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를 참고하라.

는 일반적으로 통사론과 의미론이라는 두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포더는 인간의 마음도 이러한 두 영역을 가졌을 것이라고, 혹은 적어도 두 영역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분되는 구조를 가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있다."라는 문장을 떠올려보자. 이 문장을 의미론적으로 살펴본다면, 문장에 포함된 "사과"가 지칭하는 게 무엇인지, 혹은 "있다"라는 술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반면, 이 문장을 통사론적으로 살펴본다면, 이 문장의 주어와 술어, 목적어 등의 위치와 순서에 따른 관계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상 위에 놓인 빨간 사과를 보고 나서 갖게 되는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있다.'라는 내용의 믿음을 떠올려보자. 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책상 위에 빨간 사과가 있다."라고 발화하거나 문장으로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마음속에서 이 믿음을 품을 때 활자화된 문장과 유사하게 믿음의 내용을 상기하곤 한다. 다시 말해, 그 믿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오른 표상이 반드시 '사과'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장미목 장미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산출되고, 과육이 완전히 익기 전까지는 초록색이었다가 익고 나면 빨간색으로 변하며, 과육의 맛이 새콤하면서도 단 구형의 과일'을 지칭하는 어떤 기호나 상징이 그 믿음의 내용을 마음속에서 떠오르게 하는 데 활용될 것이다.[22] 바로 이 지점에서 심적 표상은 의미론적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렇게 떠오른 기호나 상징이 일정한 순서 등에 따라 배열될 때에만 비로소 옳은 심적 상태의 내용을 산출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심적 표상은 통사론적 구조도 갖는다. 그렇기에 포더를 비롯한 사고언어가설의 지지자들은 심적 표상으로서의 개념을 단어 같은 개체와 동일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개념을 추상적 대상(abstract object)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있다.

---

22) 이렇게 마음속에서 심적 상태의 내용을 담지하기 위해 활용되는 표상이 '단어 같은 무언가'라는 점에서, 심적 표상을 "심적 언어" 혹은 "정신어(Mentalese)"라고 부르는 이들도 존재한다. 스티븐 핑커의 『언어본능(The Language Instinct: How the Mind Creates Language)』의 국역본에서는 "정신어"로 번역되고 있다. 국역본은 스티븐 핑커. 김한영 외 2인 역. 『언어본능 - 마음은 어떻게 언어를 만드는가?』. 동녘사이언스 (2008)을 참고하라.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개념을 우리의 마음에 종속된 무언가로 간주하려는 입장이나 개념을 일종의 능력으로 간주하려는 입장[23]과는 달리, 인간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개체로 간주한다.[24] 다만, 이들은 개념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옹호하는 철학자로는 피콕(Christopher Peacocke)과 잘타(Edward Zalta)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개념이 구체적으로는 프레게적 뜻(Fregean sense)[25]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념을 추상적 대상과 동일시하는 이들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레게의 논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프레게(Gottlob Frege)는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Über Sinn und Bedeutung*)」(1892)에서 언어 표현의 의미(meaning)을 뜻(sense)과 지시체(reference)로 엄밀하게

---

23) 이 입장에 관해서는 곧 후술할 것이다.

24) 보다 자세한 내용은 Peacocke, Christopher. *A Study of Concepts*. MIT Press (1992)나 Zalta, Edward. "Fregean Senses, Modes of Presentation, and Concepts". *Noûs* 35 (2001)을 참고하라.

25) 프레게가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에서 언어 표현의 '뜻'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고유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프레게적 뜻"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겹말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본고는 프레게와 프레게의 언어철학적 논의를 따르는 프레게주의자의 '뜻' 개념만을 엄밀하게 지칭하기 위해 "프레게적 뜻"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프레게적 뜻"을 사용했다. '뜻' 개념은 명시적으로 프레게에 의해 고안된 것이지만, 이후 프레게가 의도한 바와는 다른 방식으로 언어 표현의 '뜻'을 규정하고자 하는 언어철학자들이 등장했기에, 이들이 사용하는 '뜻' 개념과 구분짓기 위해 "프레게적 뜻"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더밋(Michael Dummett), 에반스(Gareth Evans), 맥도웰이 있는데, 이들은 프레게의 언어철학적 논의를 계승하여 '뜻' 개념을 상정한다는 점에서 신-프레게주의자(neo-Fregean)라고 불린다. 예컨대, 언어 표현의 '뜻'은 화자가 그 언어 표현의 지시체를 제시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한 프레게와 달리, 에반스는 언어 표현의 '뜻'이란 화자가 그 언어 표현의 지시체를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한다(Evans 282). 얼핏 보기에, 프레게와 에반스의 '뜻' 규정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에반스의 '뜻' 규정은 "나(I)"와 같은 1인칭적 표현을 다룰 때 큰 차별점을 갖는다. 피콕과 잘타가 개념과 동일시하는 '뜻'은 이러한 신-프레게주의자의 '뜻' 개념이 아닌 프레게가 제안한 '뜻'이기에, "프레게적 뜻"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에반스의 논의는 Evans, Gareth. *The Varities of Refere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82)를, 신-프레게주의의 입장 전반에 관해서는 Rodrigo, Jungmann. "The notion of sense: presenting a non-fregean alternative". *Princípios : Revista de Filosofia*. 16 (2009)를 참고하라.

구분한다. 그는 언어 표현이 지시하는 실제 대상을 “지시체”라고 부르고, 이러한 지시체를 제시하는 서로 다른 방식(mode of presentation)을 “뜻”이라고 부른다. 이를테면, 태양계 내의 행성들 중 태양으로부터 두 번째로 가까이 위치한 ‘금성’이라는 실제 대상을 가리키기 위한 “샛별”과 “개밥바라기”라는 두 단어를 떠올려보자. 프레게에 의하면, “샛별”과 “개밥바라기”의 지시체는 태양계 내에 존재하는 행성인 ‘금성’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두 단어의 뜻은 다르다. 왜냐하면, “샛별”은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금성을 나타내지만 “개밥바라기”는 “저녁에 서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금성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이다.[26] 즉, “샛별”과 “개밥바라기”는 지시체 ‘금성’을 서로 다른 두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기에, 프레게의 구분에서의 뜻에 해당한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프레게적 뜻의 존재론적 지위이다. 우선 프레게적 뜻은 언어 표현의 지시체처럼 물리적으로 실재하는 외부 대상이 아니다. 앞서 보았듯, “샛별”과 “개밥바라기”라는 뜻은 태양계 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금성이라는 바로 그 행성과 결코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프레게적 뜻은 물리적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뜻이 개인의 마음에 의존하는 심적 대상이나 심적 상태인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샛별”이나 “개밥바라기”라는 뜻이 느낌이나 인상처럼 각 개인의 주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샛별”은 철수에게든, 영희에게든, 혹은 그 누구에게든 “새벽에 동쪽 하늘에서 반짝이는” 금성을 뜻할 뿐이다. 그렇기에 프레게적 뜻은 사적인 심적 대상도 아니다. 그래서 프레게는 뜻을 물리적 대상도 심적 대상도 아닌 제 3의 추상적 존재자로 여겼다.

추상적 대상으로서의 개념을 주장하는 이들은, 프레게적 뜻의 이러한

---

26) 두 단어의 뜻풀이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샛별”과 “개밥바라기” 항목을 참고했다. 단,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샛별”의 뜻을 “‘금성’을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으나, 그 근원을 “새벽별”로 명시하고 있기에 위와 같이 풀이해도 무방할 것이다. 또한, 영어 표현에서는 각각 “the morning star”와 “the evening star”이기에 이러한 풀이는 프레게의 본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존재론적 지위에 주목하여 개념과 프레게적 뜻을 동일시하고자 한다. 프레게적 뜻이 외부 세계의 사물처럼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 아니면서 동시에 사적으로 형성된 심적 대상도 아니라는 사실은, 개념이 물리적 대상이 아니면서도 동시에 다수의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통해 공유될 수 있다는 점과 연관되어, 프레게적 뜻과 개념 사이의 동일성을 근거 짓는다. 특히, 이러한 동일시는 피콕에 의해 보다 상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피콕은 개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개념 C와 개념 D가 구별된다. iff [두 명제적 내용 중] 한 명제적 내용은 하나 이상의 위치에서 개념 D로 대체되는 개념 C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두 명제적 내용 중] 한 명제적 내용은 잠재적으로 정보적인 반면 다른 한 명제적 내용은 잠재적으로 정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른 두 명제적 내용이 존재한다.[27]

다시 말해, 피콕에 의하면 두 개념이 동일한 대상에 관하여 서로 다른 두 명제적 내용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프레게적 뜻이 동일한 지시체에 대해 서로 대체될 수 없는 두 다른 제시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는 것과 매우 유사하기에, 개념을 프레게적 뜻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콕을 비롯한 철학자들은 개념을 프레게적 뜻에 해당하는 추상적 개체라고 주장한다.

셋째, 개념을 행위자의 능력으로 간주하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을 지지하는 철학자들은 개념을 심적 표상으로 간주하거나 프레게적 뜻으로 간주하는 이들과는 달리, 개념이 "인지를 할 수 있는 행위자들에게 고유한 능력(ability)"[28]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로는 더밋(Michael Dummet)이 있는데, 더밋은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탐구(*Philosophical Investigation*)』에서 주창했던 '의미는 사용

27) Peacocke. *op. cit.* (1992). p. 2. 대괄호 속 내용은 필자가 보충한 내용이다.
28) Margolis, Eric., and Laurence, Stephen. "Concept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5)

이다.' 라는 표어를 언급하며, 개념에 관해서 유사한 논의를 펼친다.[29] 즉, 어떤 단어의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지 그 단어를 알고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단어를 타인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어색함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비트겐슈타인이 주장했듯,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 개념을 어색함 없이 사용할 수 있어서 그 개념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식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함을 뜻한다는 것이다.[30]

예를 들어, 더밋에 의하면 <빨강>이라는 개념은 그 개념의 소유자가 빨간 사물들과 빨갛지 않은 사물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지를 통해서 설명된다. 빨간 의자와 파란 의자가 눈앞에 놓여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두 의자의 색이 모두 동일하다고 말하거나 두 의자 모두 초록 의자라고 진술한다고 해보자. 상식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이 <빨강>이라는 개념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빨강>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즉, 설령 그가 '빨강'의 심적 표상을 마음 속에 품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사람이 빨간 사물을 구별해내는 등의 행위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면, 내성적인 성찰을 제외하는 한 <빨강>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31]

이렇듯 개념에 관한 다양한 철학적 입장들은 개념을 제각기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모두 개념이 "사고(thought)의 구성 단위"[32]라는 점을 함축한다. 왜냐하면 심적 표상, 프레게적 뜻, 그

---

29) Dummett, Michael. *The Seas of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pp. 1-105.

30) 더밋의 이런 주장으로부터 더밋의 철학적 입장을 행동주의(behaviourism)로 분류하는 이들도 있다. 번(Alex Byrne)은 행동주의를 개괄하는 글에서, 데이빗슨(Donald Davidson)이나 데넷(Daniel Dennett)과 함께 더밋을 콰인(Willard Quine) 식의 극단적 행동주의에 가까운 심리철학적 입장을 견지하는 철학자로 평가한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Byrne, Alex. "Behaviourism". in *A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Mind*. Blackwell (1994)을 참고하라.

31) 다만, 개념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철학적 입장들이 각축을 벌이고 있지만,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 사이의 철학적 논쟁에서는 주로 이 논쟁을 촉발시킨 에반스가 채택하고 있는 세 번째 입장인 '능력으로서의 개념'을 따른다. 에반스가 "대상에 관한 개념은 무한히 많은 일련의 사고들로 대상에 관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능력"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로부터 촉발된 논쟁에 참여하는 개념주의자와 비개념주의자는 대체로 능력으로서의 개념 규정을 따르고 있다.

리고 행위자의 능력으로서의 개념 규정은 공통적으로 개념을 인간이 마음을 통해 하는 모든 활동을 통칭하는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 심적 표상으로서의 개념을 지지하는 이들은 인간의 믿음이나 욕구와 같은 다양한 심적 상태가 심적 표상을 기호로 활용하여 형성된다고 간주한다. 또한, 프레게적 뜻으로서의 개념을 옹호하는 이들은 동일한 대상에 관한 두 개념이 해당 대상에 관한 서로 다른 두 명제적 내용을 제시하기에, 개념을 명제 태도를 비롯한 다양한 심적 상태의 기본 요소로 받아들인다. 마찬가지로, 행위자의 능력으로서의 개념에 찬동하는 이들은 개념이 동일성에 대한 판단과 같은 인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준을 마련해준다고 여긴다.

즉, 개념에 관한 여러 철학적 논의는 '사고의 구성 단위로서의 개념'이라는 최소주의적 규정만큼은 모두 참으로 전제하고 있다. 세부적인 정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앞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개념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서 개념은 '범주화나 추론, 기억, 학습, 의사 결정 등과 같은 인간의 심적 과정들을 구성하는 특정한 단위'이다.[33] 기억이나 추론처럼 심적 과정은 감각 기관 등을 통해 입력된 무수히 많은 정보를 뇌에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들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인간의 뇌는 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기에 정보 처리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개별 정보를 있는 그대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기준에 의해 정리되거나 분류되거나 구획된 요소를 그 기본 단위로 삼아 진행되어야만 한다. 이때, 효율적인 정보 처리 과정을 위해 활용되는 사고의 구성 단위가 바로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념에 관한 최소주의적 규정인 '사고의 구성 단위로서의 개념'을 채택하여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 사이의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34]

---

32) Margolis and Laurence. *op. cit.*

33) 이는 심리학에서의 '개념' 규정과도 유사하다. 이를테면, 인지심리학에서는 '개념'을 "구체적이든 추상적이든, 아니면 실재하는 것이든 상상하는 것이든 사물이나 사건 또는 현상에 대한 심적 표상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개념"에 관한 인지심리학의 규정은 이정모 외 16인. 『인지심리학』. 학지사 (2009). p. 258을 참고하라.

요컨대, 본고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 사이의 철학적 논쟁에서 쟁점이 되는 핵심적인 물음을 자세히 뜯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지각 경험의 내용은 개념적인가, 비개념적인가?' 라는 물음은,

1) 우리가 감각을 사용하여 외부 세계의 대상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경험 그 자체(지각 경험)에 의해
2) 주체에게 전달되는 모든 것(내용)이
3) 전적으로 "사고의 구성 단위(개념)"로 구성되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

를 묻는 것이다. 이어지는 장들에서는 오늘날의 철학자들이 이러한 물음에 대해 어떤 식으로 답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평가해볼 것이다.

34) 개념이 무엇인지를 규정하는 작업은 언어철학, 인식론, 심리철학 등 철학의 다양한 세부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을 만큼 그 자체로 매우 큰 철학적 문제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개념을 규정하는 여러 입장들 중 어느 입장이 더 타당한지 규명하는 작업까지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며, 언급된 세 입장들 중 하나를 선택해서 논의를 진행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위에서 밝히고 있듯, 세 입장 모두가 찬동하고 있는 최소주의적 의미에서의 개념 규정을 따라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 Ⅱ.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

앞선 장에서의 예비적 고찰을 통해 정리하였듯, 지각에 대해 탐구하는 심리철학적 논의들은 지각 경험의 내용이 어떠한 성격을 띠는지에 관하여 논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세부적으로는 다양한 입장 차이가 있겠으나,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철학적 논의들의 주된 분기점은 바로 지각 경험 내용의 개념성/비개념성이다. 즉,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라고 주장하는 개념주의(conceptualism)와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진 않고 개념 외의 무언가인 비개념도 포함한다고 주장하는 비개념주의(nonconceptualism)로 나뉜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그 중 한 축인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를 다룬다. 맥도웰에 의해 주창된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에 관한 철학적 논쟁을 본격적으로 촉발시킨 논의로서, 이후 진행된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철학적 논의들이 계승하거나 논박하고자 하는 입장의 전형으로 기능하며 지각에 대한 철학적 탐구의 기준점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후, 개념주의 진영에서는 브루어가 대표적으로 맥도웰의 논변을 전면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켜왔다.

본고는 맥도웰과 브루어의 개념주의를 함께 묶어 “표준적 개념주의”라고 명명하고 이러한 철학적 입장의 핵심 논변을 살펴볼 것이다. 이에 앞서, 먼저 본 장에서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의 동기를 짚어 본 후, 그 동기로부터 표준적 개념주의가 어떠한 논증을 펼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표준적 개념주의가 갖는 시사점을 살펴보는 동시에 그 한계가 무엇인지도 밝혀보고자 한다.

# 1. 개념주의의 두 동기

## 1.1. 일상적 사례로부터의 직관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개념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지각의 일상적 사례에서 비롯되는 직관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는 빨간 사과를 보고서 "나는 빨간 사과를 본다." 라고 말한다. 혹은 굳이 발화하지 않더라도 '나는 빨간 사과를 보고 있다.' 라고 믿는다. 이는 매우 전형적인 지각 경험과 그에 수반되는 지각적 믿음의 사례이다. 그런데 만약 지각 경험의 주체가 사전에 <빨강>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지 않았거나 소유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필연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위 사례에서 "나" 가 <빨강>이라는 원초적인 색 개념을 그 경험에 앞서 소유하거나 알고 있지 않았더라도, "나" 는 여전히 그 사과를 보고서 "나는 빨간 사과를 본다." 라고 발화할 수 있었을까? 물론 지각 주체가 <빨강>이라는 개념을 사전에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고 전제했기에, '나' 는 "빨강" 이라는 언어 표현도 알지 못했을 것이므로 혹자는 이에 대해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발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다소 당연해 보인다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각 주체가 적어도 '나는 빨간 사과를 보고 있다.' 라는 내용의 믿음을 형성할 수는 있었을까? 더 나아가, <빨강>이라는 개념을 소유하지 못한 주체는 적어도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대상이 RGB값으로 #FF0000에 해당하는 특정한 파장을 반사하고 있다거나 자신이 며칠 전 후식으로 먹기 위해 집어 들었던 토마토를 볼 때 마주했던 현상적 특질과 유사한 특정한 빛깔이 사과를 볼 때도 나타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우리는 지각 주체가 <빨강>이라는 개념을 사전에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자신이 지각하고 있는 사물의 색이 '빨강' 이라고 포착하기는커녕 빨간 대상을 마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의 특질인 '특정한 색조(혹은 빛깔, 파장)' 등을 포착할 수 있다고 쉽게 단언할 수 없다. 특히, 이는 소리의 높낮이를 뜻하는 음고(pitch) 지각의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다음과 같은 두 청자 철수와 영희의 사례를 살펴보자.[35] 먼저, 철수

는 서구 조성 음악 전통에 익숙한 청자이다. 그래서 철수는 일반적으로 한 옥타브 내에 서로 다른 높낮이를 갖는 12개의 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영희는 인도의 전통 음악 관습에 익숙한 청자이다.[36] 영희는 철수가 서구 조성 음악에 관해 갖고 있는 음악적 지식의 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라가(Rāga)[37]에 대한 음악적 지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영희는 한 옥타브 내에 서로 다른 높낮이를 갖는 70여개의 음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음고의 음을 들려주었을 때, 영희는 X라고 분명하게 포착하여 "나는 지금 X를 듣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반면, 철수는 그 음의 음고를 정확히 포착해내지 못하거나 혹은 가장 가까운 온음계의 음으로만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지각 주체가 지각 경험보다 앞서 특정한 개념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주체가 서로 다른 양태로 지각 경험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음고 지각 사례처럼, 동일한 대상에 대한 지각일지라도 지각 주체는 사전에 그 대상의 속성이나 외양에 상응하는 개념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옳은 내용의 지각 경험을 산출하지 못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적 사례에서 비롯되는 이러한 직관적 의문이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를 옹호하는 주된 하나의 동기이다.

---

35) 이 사례는 청자의 문화권에 따라 음고 지각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함축을 제시하는 자연과학적 연구를 근거 삼아 재구성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Jacoby, Nori. et al. "Universal and Non-universal Features of Musical Pitch Perception Revealed by Singing". *Current Biology* Volume 29 (2019)을 참고하라.

36) "일반적으로"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실제로는 12음 사이에 무수히 많은 미분음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범한 수준의 청자라면 미분음까지 지각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경우는 현재에서는 고려하지 않고자 한다.

37) "라가(Rāga, राग)"란 인도 고전 음악에서 쓰이는 전통 음계법이다. 기본적으로 라가는 한 옥타브를 약 72개의 음으로 분할하기에 서구 조성 음악에서는 미분음으로 취급되는 음을 음계에 포함한다. 게다가 라가는 주요 음들의 절대적인 음고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라가의 72음 중에는 Sa, Ri, Ga, Ma, Pa, Dha, Ni, Sa와 같은 음들이 있는데, 이 음들을 연주하는 사람마다 미세하게 서로 다른 높낮이를 가질 수 있다. 즉, 동일하게 "Sa"라고 지칭되어도 연주자$_1$에게서는 서구 조성 음악에서의 C보다 낮은 음이면서 연주자$_2$에게는 서구 조성 음악에서의 C보다 높은 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라가에 숙련된 청자는 서구 조성 음악에만 익숙한 청자에 비해, 훨씬 더 세밀한 음고의 음을 포착할 수 있다.

## 1.2. 정당화자로서의 지각 경험

일상적 사례로부터의 직관과 더불어,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개념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의 또 다른 주된 동기는 지각 경험이 인식론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이다. 우리는 대개 경험을 통해 세계와 외부 대상에 대한 믿음을 형성한다. 이때, '정당화된 참인 믿음(justified true belief)' 이라는 전통적인 지식 개념[38]에 따라, 경험을 통해 형성된 믿음은 우리의 지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아주 일상적인 우리의 지식을 떠올려 보라. 우리는 눈을 통해 책상 위에 놓인 사과를 보고, 그렇게 보았기 때문에 '책상 위에 사과가 있다.' 라는 내용의 믿음을 형성하며, 그 믿음이 참인지 그리고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따져본 후 '책상 위에 사과가 있다.' 라는 내용의 지식까지 획득하게 된다. 이처럼 지각 경험은 외부 대상과 세계에 관한 믿음과 지식의 주된 근거의 역할을 한다.

지각 경험이 믿음과 지식의 근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

---

38)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 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현대 인식론에서 주류로 자리하고 있긴 하지만, 이에 동의하지 않는 철학자도 있다. 대표적으로, 자그젭스키(Linda Zagzebski)는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 혹은 더 나아가 '정당화된 참인 믿음 + 제4의 조건' 의 모델로 정의하는 모든 방식은 지식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그 대신 지식을 "지성적 덕의 행위로부터 비롯되는 참인 믿음의 상태(A state of true belief arising out of acts of intellectual virtue)" 라고 정의한다(Zagzebski 1996. p. 271). 비슷하게, 윌리엄슨(Timothy Williamson)도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 과 같은 무언가로 환원하여 분석하는 시도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한다(Williamson 2000). 윌리엄슨은 지식은 그 자체로 가장 근본적인 심적이고 인식론적인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식을 다른 무언가로 환원하기보다는 더 분석될 수 없는 '지식 그 자체' 로만 다룰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정당화된 참인 믿음' 으로서의 지식 모델을 아예 폐기하려는 자그젭스키나 윌리엄슨의 시도가 유효하려면, '정당화된 참인 믿음' 으로서의 지식 모델 혹은 그로부터 변형된 여러 모델들이 모두 전적으로 실패했음을 보여야만 하는데, 자그젭스키나 윌리엄슨 모두 이를 잘 수행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신빙론(Reliabilism)을 비롯한 게티어 문제(Gettier problem) 이후의 인식론적 논의들이 지식 규정의 문제에 있어서 비교적 선방하고 있음을 볼 때, 여전히 '정당화된 참인 믿음' 으로서의 지식 모델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전통적인 인식론적 모델을 따라, 지식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 으로 간주하고자 한다.

자그젭스키의 논의는 Zagzebski, Linda. *Virtues of the Mind: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Virtue and the Ethical Foundations of Knowle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를, 윌리엄슨의 논의는 Williamson, Timothy. *Knowledge and its limi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를 참고하라.

이 필요하다. 그 조건은, 바로 그 경험이 특정한 믿음과 지식의 근거가 되기에 적절한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어떤 지각 경험이 특정한 믿음이나 지식의 근거라면, 그 지각 경험은 바로 그 믿음이나 지식의 정당한 근거여야만 한다. 달리 말하자면, 지각 경험은 특정한 믿음이나 지식을 정당화하는 요인이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지각 경험이 특정 믿음이나 지식의 정당화 요인, 즉, 정당화자(justifier)라는 사실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의 답을 살펴보기에 앞서, 잠시 현대 인식론에서의 믿음의 정당화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를 살펴보자. 현대 인식론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믿음을 정당화하는 것은 바로 또 다른 믿음(들)이라고 전제한다. 예를 들어, 영희가 '철수는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내용의 믿음을 형성한다고 해보자. 이러한 영희의 믿음 형성은, 영희가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헛기침을 자주 한다.'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물을 자주 마신다.'와 같은 내용의 믿음을 사전에 가지고 있고 그 내용에 상응하는 행위를 실제로 철수가 행하거나 그 내용에 상응하는 철수의 상태를 합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정당화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특정한 믿음을 정당화하는 정당화자에 해당하는 믿음(들)의 '내용'이다. 그 내용에 상응하는 행위나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그 내용에 상응하는 듯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이 다른 믿음(들)에 의해서 정당화된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 경험이 특정한 믿음의 정당화자가 될 수 있으려면 마찬가지로 지각 경험의 '내용'을 토대로 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야만 한다. 요컨대, 주체의 지각 경험에 귀속되는 내용인 "주체 자신의 지각 경험에 의해 그 주체에게 전달되는 것"에 포함되는 요인들을 검토해보았을 때 바로 그 내용이 특정한 믿음이나 지식을 견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된다면, 우리는 해당 지각 경험이 특정 믿음이나 지식의 정당화자라고 간주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음은 '지각 경험의 내용은 어떻게 합리적으로 검토되고 평가되어, 특정한 믿음이나 지식의 정당화 요인

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가?' 이다.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개념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의 동기는 바로 이 물음으로부터 비롯된다. 앞서 보았듯, 일반적으로 어떤 믿음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정당화자는 다른 믿음의 내용이라고 여겨지기에, 개념주의자는 현대 인식론에서의 논의를 따라 믿음의 정당화자로 기능하는 지각 경험의 내용도 믿음의 내용과 동일한 성격을 갖거나 적어도 비슷한 성격을 가질 것이라고 상정한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과 지각 경험의 내용이 유사한 성격의 대상이거나 동일한 성격의 대상이라면, 둘을 구성하는 형식적 측면도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추론하는 일 또한 합리적일 것이다.[39] 그렇기에 개념주의자들은 지각 경험의 내용이 믿음의 내용처럼 명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명제 형식은 전적으로 개념으로만 구성되기에, 결론적으로 지각 경험의 내용도 전적으로 개념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요컨대,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일상적 사례로부터의 직관과 지각적 믿음의 정당화자라는 지각 경험 내용의 기능으로부터,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를 주장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두 동기에 근거하여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표준적 개념주의를 주장하는 맥도웰과 브루어의 논변을 살펴볼 것이다.

---

39) 믿음의 내용과 지각 경험의 내용이 유사한 성격의 대상이라는 전제 하에서, '어떤 믿음의 내용이 다른 믿음(들)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로부터 지각에 있어서는 지각 경험의 내용이 지각적 믿음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 라고 추론하는 것은 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각 경험의 내용은 명제의 형식으로 구성된다.' 라고 추론하는 것까지 타당한 것은 아니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의문은 지각 경험의 내용의 명제성/비명제성과 개념성/비개념성 사이의 관계가 독립적인지 혹은 상호 연관된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이어진다. 후술하겠으나 브루어는 이러한 문제를 의식하여 왜 지각 경험의 내용이 개념적이면서 명제적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한다.

반면, 스픽스(Jeff Speaks)는 이러한 점으로부터 착안하여, 지각 경험의 내용이 비개념적이지만 명제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스픽스의 주장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peaks, Jeff. "Is There a Problem about Nonconceptual Content?".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114. (2005)를 참고하라.

## 2.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표준적 개념주의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개념주의를 옹호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는 맥도웰과 브루어로, 이들은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으로 구성된 명제라고 주장한다. 물론, 맥도웰과 브루어는 공통적으로 개념주의를 옹호하지만 논변이 완전히 동일하진 않다. 그러나 브루어의 논변은 상당 부분 맥도웰의 논증을 참고하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맥도웰의 1994년 저서 『마음과 세계(*Mind and World*)』에서 전개된 논증을 개념주의의 시발점으로 삼되 브루어의 1999년 저서 『지각과 이유(*Perception and Reason*)』에서 제시된 논증도 함께 고찰하며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개념주의 일반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대표적인 개념주의자인 맥도웰은 지각 경험은 믿음과 동일하게 오로지 개념적 내용만을 가지며, 지각 경험을 토대로 한 판단이나 지식 형성과 같은 인지 과정은 그저 그 지각 경험의 개념적 내용을 지지하고 승인하는 과정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맥도웰은 이러한 주장을 위해 먼저 지각 경험의 내용의 특징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 우리가 오도되지 않은 특정 경험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사물이 그러저러하다는 것이다. 사물이 그러저러하다는 것은 경험의 내용인데, 경험의 내용은 판단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즉, 경험의 주체가 그 경험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정만 한다면, 사물이 그러저러하다는 것[경험의 내용]은 판단의 내용이 된다. [판단은 전적으로 명제의 형식을 띠기에] 그러므로 사물이 그러저러하다는 것[경험의 내용]은 개념적 내용이다.[40]

---

40) 대괄호 안의 내용은 필자가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한 것이다. 또한, 인용된 문장에서 맥도웰은 '지각' 경험으로 한정하지 않고 인간의 경험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책의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명시적으로 "지각 경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의를 이어나가기에, 이 내용이 지각 경험에 관한 논의라고 받아들여도 무관할 것이다. McDowell, John. *Mind and Worl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p. 26.

즉, 맥도웰에 의하면, 지각 경험의 주체가 자신의 지각을 통해 지각의 대상이 그러저러하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지각 경험의 내용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맥도웰이 지각 경험의 내용을 "사물이 그러저러하다(The thing is thus and so)." 라는 단언문 형식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41] 지각 경험의 내용은 이처럼 단언문 형식으로 구성되기에 필연적으로 명제적이다. 더 나아가, 지각 경험의 내용이 명제적이라면, 명제는 전적으로 개념으로 구성되기에 결국 지각 경험의 내용은 개념적이다. 덧붙여, 그렇기 때문에 지각 경험의 내용은 그 경험에 근거하여 정당화되는 판단 혹은 지각적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맥도웰의 논변의 핵심이다.

이러한 맥도웰의 논증은 셀라스(Willfrid Sellars)의 인식론에 기반을 둔다. 맥도웰은 셀라스의 논조를 계승하여 그가 제기한 "소여의 신화(myth of the given)"[42]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면서도, 셀라스와는 다

---

41)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사물이 그러저러하다." 라는 단언문 형식을 띠고 있어도, 이 단언문에 포함된 "그러저러하다." 라는 요소는 여전히 비개념적이라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론은 다음과 같이 재반론할 수 있다. 먼저 "그러저러하다." 라는 것은 문장 내에 포함된 변항을 일상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방식일 뿐이며, 일상적 사례에서는 "그러저러하다." 라는 문장 요소의 자리에 형용사나 동사, 명사와 같은 개념적인 술어가 자리한다.

물론, 더 나아가서 문장 내에서 "그러저러하다." 의 자리에 "이것" 이나 "저것" 과 같은 지시어가 들어가는 경우를 또 다른 반례로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다소 논쟁적이다. 특히, 맥도웰을 비롯한 표준적 개념주의자들이 〈이것〉이나 〈저것〉 등을 '지시(사)적 개념' 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반론은 지각 경험의 내용이 단언문 형식을 띤다는 주장에 대해 유효한 반론으로 여겨지지 못할 것이다.

42) 셀라스는 사후 1997년에 출판된 책 『경험주의와 심리철학(*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에서 "소여의 신화" 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한다. 그는 지각 경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정당화되는 지식인 '직접지(immediate knowledge)' 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의문을 제기한다. 셀라스는 다른 믿음들의 정당화자가 되는 토대 믿음이, 지각 경험처럼 세계와의 직접적인 관계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식론적 토대주의자들을 겨냥한다. 셀라스는 토대주의자들의 논변이 세계로부터 우연히 '주어지는 것' 인 "소여(the given)" 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자연 현상을 섭리에 따라 주어진 신의 행위 등으로 설명하고자 했던 신화와 유사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토대주의자가 필연적으로 "소여의 신화" 에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논박하는 철학자도 존재한다. 예컨대, 정합론자였으나 토대론으로 돌아선 봉주어(Laurence Bonjour)는 자신이 제시하는 토대주의는 셀라스가 논한 "소여의 신화" 에 빠지지 않는 정당화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봉주어는 여느 토대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믿음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는 기초 믿음이 지각 경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점은 인정하되, 기초 믿음과 지각 경험 사이의 관계가 정당화 관계가 아니라 기술적

르게 지각 경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믿음과 판단 등의 정당화자가 될 수 있다는 입장도 옹호하고자 한다. 맥도웰이 빚지고 있는 셀라스는 "심리학적 유명론(Psychological Nominalism)"이라고 스스로 명명한 입장을 주창한다.

> (...) 이제 우리는 내가 심리학적 유명론이라고 부를 일반적 유형에 관한 관점을 가질 것인데, 이 관점에 따르면 분류(sort), 닮음(resemblance), 사실 등에 대한 모든 의식(awareness), 요컨대, 추상적 개체들에 대한 모든 의식은 - 심지어는 개별자들에 대한 모든 의식까지도 - 언어적 사태(linguistic affair)이다. 심리학적 유명론에 의하면, 언어 사용의 습득 과정은 이른바 비매개적 경험(immediate experience)과 관련된 분류, 닮음, 심지어는 사실에 대한 의식조차도 선제(presuppose)하지 않는다.[43]

다시 말해, 셀라스에 따르면, 어떤 대상들 사이의 닮음이나 외부 사물의 분류 등에 관한 믿음이나 판단 등은 그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앎과 같은 독자적인 현상이 아니라 언어로 구성된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셀라스는 외부 대상에 대한 지각 경험이 세계와 지각 주체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라거나 실제 현상 그 자체가 아니라 그저 언어적으로 재구성된 사태일 뿐이라고 간주한다. 오히려 셀라스가 보기에, 지각 경험과

---

(descriptive) 관계라고 주장한다. 주체가 외부 대상에 대해 형성하는 기초 믿음은 사실 감각기관을 통해 포착한 지각 대상의 풍부하고 세밀한 현상적 특징에 관한 적절한 기술이라는 것이다. Bonjour, Laurence. "Toward a Defense of Empirical Foundationalism". in *Resurrecting Old-Fashioned Foundationalism*. Rowman & Littlefield (2000).

그러나 봉주어의 수정된 토대주의도 셀라스가 제기한 "소여의 신화" 비판을 완벽히 피해가기란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소여의 신화"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봉주어가 주장하는 기초 믿음과 지각 경험 사이의 관계가 왜 하필 '기술적 관계'로 주어졌는지를 의문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봉주어는 이러한 비판을 염두에 두어 기초 믿음과 지각 경험의 관계는 우리가 그 관계의 원인을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논리적 관계"가 아니라고 전제하지만, 이러한 답변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해 보인다.

43) Sellars, Wilfrid. *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p. 63.

같이 세계로부터 직접 우리에게 주어지는 무언가(소여)가 있고, 그 소여가 우리의 믿음이나 판단을 곧장 정당화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심리학적 유명론에 의하면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언어로 포섭되는데, 그렇게 언어로 포섭되지 않는 감각이나 직접적인 경험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그러한 감각이나 경험이 특정한 믿음과 적절한 관계에 있는지 등을 따져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 경험의 내용이 곧바로 믿음이나 판단의 정당화자로 기능할 수 있다는 논의를 옹호한다면, 이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신화를 맹신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셀라스는 이를 "소여의 신화"라고 비판하는 것이다.[44]

맥도웰은 "소여의 신화"에 관한 셀라스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각 경험 그 자체가 "소여"로써 우리의 믿음이나 판단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거부한다. 그러나 동시에 지각 경험이 일상에서 수행하는 인식론적 기능을 부정하지 않기 위해, 맥도웰은 지각 경험의 내용이 믿음이나 판단의 정당화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래서 맥도웰은 지각 경험을 소여라고 상정하지 않되 그 경험의 내용이 믿음이나 판단의 정당화자로 기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명제적이고 더 나아가 개념적이라고 간주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브루어는 위와 같은 맥도웰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 주장의 타당성을 보다 자세하게 검증해내고자 한다.[45] 이를 위해 브루어는 맥도웰의 노선을 따라, 먼저 '지각 경험은 지식의 토대가 될 수 있다.'라는 가

---

44) 셀라스의 심리학적 유명론과 소여의 신화에 관한 비판적 견해 사이의 관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김영건, 『이성의 논리적 공간』,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4)를 참고하라.

45) 브루어는 자신의 논증이 맥도웰의 입장을 자기 방식으로 좀 더 확장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힌다. 특히, 브루어는 지각 경험에 관한 자신의 핵심 논지라고 밝히는 명제가 "맥도웰의 입장의 핵심 요소"라고까지 언급하며, 자신의 작업이 맥도웰의 『마음과 세계(*Mind and World*)』의 연장선 상에 있음을 적극적으로 언급한다. 이러한 언급들은 브루어의 책 『지각과 이유(*Perception and Reason*)』 곳곳에 달린 각주에서 발견된다. 대표적으로는 『지각과 이유(*Perception and Reason*)』의 p. 19의 각주 1이나 p. 149의 각주 1을 참고하라.

설이 참임을 증명하고자 한다.[46] 그는 이 가설을 '지각 경험은 경험적 믿음의 이유를 제공한다.'라는 명제로 구체화한 뒤, 해당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논증을 제시한다.

(1) 공간적 세계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믿음들은 지각 경험과 특정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는다.
(2) 지각 경험이 믿음의 이유를 제공하는 관계만이 (1)에 의해 요구되는 내용 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3) 지각 경험이 경험적 믿음의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가설은 마음 독립적인 공간적 세계에 관한 믿음의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한다.
(4) 우리는 마음 독립적인 공간적 세계에 관한 믿음을 가진다.
∴ (R) 지각 경험은 경험적 믿음의 이유를 제공한다.[47]

브루어의 논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가장 먼저, (4)의 경우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사실을 기술한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점이 없다. 그러므로 논증의 두 전제인 (1)과 (2)를 검토해보자. 우선, 브루어의 논증의 첫 번째 전제인 (1)은 외부 세계에 관한 지식의 일상적인 사례로부터 비롯된다. 이를테면, '내 앞에 빨간 사과가 있다.'라거나 '길 건너편에서 고양이 울음 소리가 들린다.', '옆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와 같은 내용을 갖는 외부 세계에 관한 믿음은 우리의 지각 경험과 특정한 관계를 갖는다. 왜냐하면, '내 앞에 빨간 사과가 있다.'라는 믿음은 빨간 사과라는 외부 세계의 대상에 대한 시지각 이후, '길 건너편에서 고양이 울음 소리가 들린다.'라는 믿음은 고양이가 낸 울음 소리라는 외부 세계의 사건에 대한 청각 지각 이후, '옆집에서 맛있는 냄새가 난다.'라는 믿음은 냄새라는 외부 세계의 현상에 대한 후각 지각 이후에 형성되기 때문이다.[48] 아무 것도 보지 못하여 시지각에 실패했는데도

46) Brewer, Bill. *Perception and Reas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18-48.
47) Brewer. *op. cit.* (1998), p. XIV.
48) 이때, "이후"라는 표현은 지각 경험과 믿음 형성 사이의 관계를 시간적 선후로만

‘내 앞에 빨간 사과가 있다.’라고 믿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정당화되지 못하는 믿음을 형성한 것이거나 믿음이 아닌 상상과 같은 다른 심적 상태의 산물을 갖게 되는 것으로 간주되기에, 지각 경험과 외부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믿음 사이에는 적어도 모종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일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제 전제 (2)를 보자. (1)이 참이라고 간주한다면, 우리는 이제 외부 세계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믿음과 지각 경험 사이에 존재하는 특정한 그 관계가 무엇인지를 묻게 된다. 브루어는 이에 대해 외부 세계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믿음과 지각 경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유 제공 관계(reason-giving relation)”라고 말한다.[49] 그런데 어떻게 외부 세계에 관한 기초 믿음과 지각 경험 사이의 관계가 정확하게 “이유 제공 관계”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브루어는 외부 세계에 관한 기초 믿음과 지각 경험 사이의 관계가 “이유 제공 관계”라는 것이 참임을 밝히기 위해, “전환 논증(switching argument)”이라고 스스로 이름 붙인 귀류법을 통해 이를 검토한다.[50] 우선 외부 세계에 관한 기초 믿음과 지각 경험 사이의 관계가 “이유 제공 관계”가 아니라고 해보자. 그리고 이러한 가정 하에서 주체가 외부 세계의 사물 X를 보고 x라는 내용의 경험을 겪었다고 해보자. 일반적으로는 주체가 x라는 내용의 경험을 겪었다면 그 주체는 x라는 내용의 믿음도 갖게 되겠지만, 앞선 가정에 따라 이러한 조건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주체가 자신이 겪은 경험과 전혀 무관한 내용, 이를테면 y라는 내용의 믿음을 가져도 불합리하

---

나타내기 위해 사용했다. 지각 이후에 해당 내용의 믿음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정황상 지각에 ‘의해’ 혹은 지각을 ‘통해’로 이해하여 정당화 관계로 간주할 수 있을 법하게 만들겠으나, 이는 해당 내용의 믿음이 형성되었다는 유추를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게끔 할 뿐 확언하도록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 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브루어가 전제 (2)를 상정하고 있기에, 이는 바로 뒤에서 전제 (2)에 관해 설명하면서 더 논할 것이다.

49) Ibid. p. 22.

50) 언어학에서의 번역 용례를 참고하여 “전환 논증”이라고 번역했다. 언어학에서는, 단일한 대화 내에서 한 발화 주체가 하나 이상의 언어 혹은 방언을 교체하면서 사용하는 행위를 “부호 전환(code switching)”이라고 표현한다. 이와 유사하게, 브루어는 경험의 내용이 다른 것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논거로 삼고 있기에 본고에서는 “switching argument”를 “전환 논증”으로 번역했다. “부호 전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경임, 『사회언어학의 이해』, 리복 (2019)를 참고하라.

다고 평가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앞서 채택한 귀류법적 가정에 의해, 주체가 x라는 내용의 지각 경험을 겪었다고 해서 그로부터 y라는 내용의 믿음이 도출되지 않아야 할 필요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귀류법적 가정을 참으로 상정할 경우, 우리는 지각 경험의 내용과는 무관하게 주체가 그 어떤 믿음을 갖게 되더라도 모두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귀결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인식론이라는 영역 자체를 포기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주체의 실제 경험과 무관하게 그 어떤 믿음이건 정당한 믿음이 되어 곧 지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명 우리에게는 외부 세계에 관한 바로 그 믿음을 지지할만한 이유 혹은 근거가 필요하기에, 외부 세계에 관한 기초 믿음과 지각 경험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간주한다면 이 관계가 "이유 제공 관계"여야만 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추론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론이 타당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브루어는 (4)를 토대로 한 (3)의 진리값을 살펴본다. 브루어는 (4)의 경우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사실을 기술한 것이므로 그 타당성에 있어서 이견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4)를 참으로 상정하고 (3)을 검토하기 시작한다.[51] 앞서 살펴 보았듯, (1)과 (2)을 받아들인다면, 그로부터 귀류법을 통해 (3)을 일종의 소결로 도출해낼 수 있다.[52]

---

51) 물론 (4)와 관련하여, 우리의 믿음이 마음 독립적인 공간적 세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마음 의존적인 것이라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관념론으로 일컬어지는 형이상학적 입장을 지지하는 이들은 (4)를 참으로 간주하는 것에 의문을 표할 것이다. 왜냐하면, 관념론자들은 우리가 지각하는 모든 것들이 실재가 아닌 우리의 마음에 의해 구성된 관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을 옹호한다면, 위와 같은 논증을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어진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 형성된 관념에 의해 정당화될 것이기에, 지각 경험이 정말로 경험적 믿음의 이유를 제공하는지 아닌지와 같은 정당화의 문제를 살펴 볼 필요조차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브루어가 전제하듯, (4)의 경우 참이라고 간주하고 논증에 대한 검토를 이어나갈 것이다.

52) 이때, (3)을 기호화해보자.

p: 지각 경험은 경험적 믿음의 이유를 제공한다.
q: 마음 독립적인 공간적 세계에 관한 믿음은 가능하다.

그러면 (3) "지각 경험이 경험적 믿음의 이유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가설은 마음 독립적인 공간적 세계에 관한 믿음의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명제는 [~p → ~q] 로 기호화될 수 있다. 이때, (4)가 참인 명제(사실)로 제시되었으므로, q의 진리값

그러나 여기까지의 논증은 지각 경험이 경험적 믿음의 이유를 제공하는 정당화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에 브루어가 찬동하는 것을 합리적으로 만들 뿐, 여전히 지각 경험의 내용이 개념적이어야 하는 이유까지 설명하지는 못한다. 브루어 또한 이러한 점을 인지하여, "이유는 개념적 내용을 필요로 한다." 라는 주장을 덧붙인다. 즉, 브루어는 지각 경험은 우리의 믿음이나 판단의 이유인데, 무언가의 이유는 반드시 개념적 내용으로 구성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지각적 믿음의 이유인 지각 경험도 그 내용이 개념적이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브루어는 지각과 같은 심적 상태가 개념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작업으로부터 출발한다.

> '심적 상태가 개념적이다.'는 다음을 필요충분조건으로 갖는다: 심적 상태가 주체 그 자신이 반드시 소유해야만 하는 개념들의 측면에서만 특징지어질 수 있고 또 그 심적 상태가 연역 논증 혹은 다른 종류의 추론(이를테면, 귀납 추론이나 귀추법)의 전제나 결론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형식으로 된 표상적 내용을 가진다.[53]

즉, 브루어에 의하면 지각 상태의 표상적 내용은 개념들만으로 표현될 수 있으며, 지각 주체는 그 표현에 필요한 개념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서 보았듯 지각이라는 심적 상태는 우리의 추론 과정에서 다른 믿음이나 판단의 정당화자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각 경험의 내용이 추론의 전제나 결론으로 활용될 수 있게끔 개념적이고 더 나아가 명제적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주장의 타당성을 해명하기 위해, 브루어는 다시 한번 귀류

---

은 참이고 ~q의 진리값은 거짓이다. 그러면 후건 부정을 통해 ~(~p), 다시 말해, p가 참이라는 결론이 도출된다. 즉, "지각 경험은 경험적 믿음의 이유를 제공한다." 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것이다.

53) Brewerl. *op. cit.* (1998), p. 149.

법을 활용한다. 그래서 브루어는 자신이 추가적으로 제시한 주장인 "이유는 개념적 내용을 필요로 한다."를 가설로 설정한 뒤, 이 가설이 거짓이라고 상정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다. 브루어는 이 가설이 거짓이라고 상정했을 때 두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토대로, 이유가 개념적 내용을 갖지 않는다는 명제가 거짓임을 증명한다.

첫째로, 브루어는 이유가 필연적으로 명확한 대상을 갖는다는 사실을 지적한다.[54] 이를테면, 배가 고픈 이유는 '배가 고픔'이라는 욕구에 대한(for) 것이며, 내가 갑자기 달리는 이유는 '달리기'라는 행위에 관한 것이고, 그가 범인일 것이라고 믿는 이유는 '그가 범인이라는 믿음'에 관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어떠한 행위나 믿음 혹은 판단 등에 특정한 이유를 제시하는 일은 "합리적인 관점에서 그러한 판단이나 믿음을 적절한 것으로 만드는 주체의 상황의 일부 특징들을 식별해내는 것"이다.[55] 그런데 이때, 주체가 처한 상황의 몇몇 특징을 합리적인 관점에서 식별해내는 일은 필연적으로 타당한 귀납 추론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나는 그가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믿는다.'라는 믿음은 '그의 손에 피 묻은 칼이 있다.'나 '그의 지문이 살인 현장에서 발견되었다.'와 같은 명제와 '피 묻은 칼은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다.'나 '현장에서 지문이 감식된 사람은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이다.'와 같은 명제가 결합된 '그의 손에는 피 묻은 칼이 있다. 피 묻은 칼은 살인사건의 결정적인 증거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살인사건의 범인이다.'라는 귀납 추론을 그 이유로 갖는다. 물론 모든 이유가 귀납 추론의 형식을 띨 필요는 없지만, 이유의 내용이 추론에 활용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점에서 명확한 대상만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유의 내용은 추론의 전제나 결론이 될 수 있는 형식인 명제를 구성하는 개념이 아닌 무언가, 즉, 비개념을 포함할 수는 없다.

둘째로, 브루어는 주체가 자신의 행위나 믿음 혹은 판단 등에 대해 갖는 이유가 주체 자신의 입장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렇기에 이유는 주체가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개념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

54) Ibid, p. 150.
55) Ibid.

는 점을 강조한다.[56] 우리는 자신의 행위나 믿음에 대해 이유를 가질 때, 각자 나름의 이유를 가진다. 설령 객관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더라도, 그 이유는 주체 자신에게 타당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이를테면, 실제로는 철수의 체내 수분량이 적정 수준이더라도, 철수는 자신의 목이 간지럽다고 느꼈다는 이유로 자신이 현재 갈증을 느끼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이 자신의 행위나 믿음 등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가질 때 중요한 점은, 그 이유의 내용이 주체 본인에 의해서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주체 자신이 어떠한 내용에 의식적으로 접근조차 불가능하다면, 그것을 언표하거나 사고에 활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자신의 행위나 믿음 등의 이유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브루어는 "주체에게 실질적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모든 이유는 적어도 의식적 수준에서 존재해야만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한다.[57] 바로 이러한 지점에서 브루어는 이유가 개념적 내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귀류법의 가설이 잘못되었음을 도출해낸다. 앞서 살펴 본 개념의 여러 내포들 중 어느 것에 찬동하든, 주체 본인이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체가 사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인 개념으로 그 이유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유는 개념적 내용을 필요로 하는데, 앞서 보았듯 지각 경험은 판단이나 믿음의 이유로 기능하므로, 브루어는 지각 경험의 내용 또한 개념적이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맥도웰과 브루어의 논변으로 대표되는 표준적 개념주의는 우리의 지각 경험이 일상적으로 우리 지식의 근거가 된다는 인식론적 사실을 해명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책을 마련한다. 특히, 전통적인 경험론자들과는 달리, 지각 경험의 인식론적 역할에 관해 논하는 데 있어서 "소여"라는 특수한 철학적 장치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지각 경험이 어떻게 지식의 정당화자가 될 수 있는지를 논증해낸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

---

56) Ibid, pp. 151-152.
57) Ibid, p. 152.

## 3. 표준적 개념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표준적 개념주의는 이처럼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믿음의 정당화자로서의 지각 경험을 설명함에 있어서 장점을 갖는 듯하지만, 개념주의의 입장에서 해명하기 어려운 몇 가지 비판들이 제기되어 왔다. 본 절에서는 비개념주의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비판들 중 개념주의에 관한 대표적인 두 가지 논박을 살펴봄으로써, 표준적 개념주의가 지각 경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 3.1. 세밀성과 풍부함

첫째로, 표준적 개념주의에게 제기되는 가장 대표적인 반론은 '표준적 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의 특징인 세밀성(fineness of grain)과 풍부함(richness)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즉, 지각 경험의 내용이 개념적이라고 주장한다면, 지각 경험이라는 현상이 갖는 세밀함과 풍부함이라는 특성을 타당하게 설명해낼 수 없다.

이러한 반론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지각 경험의 특징으로 여겨지는 세밀성과 풍부함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지각 경험이 세밀성이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은 경험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개념만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미세한 사항들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세밀성에 관한 이러한 논의는 에반스(Gareth Evans)가 던진 물음으로부터 출발한다. 에반스는 "정말로 우리가 감각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색조들(shades of colour)만큼이나 많은 색 개념들을 가진다는 주장을, 우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있는가?"[58]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통 〈빨강〉, 〈파랑〉, 〈초록〉과 같은 색 개념들을 갖는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마주하는 사물로부터 지각하여 갖게 되는 〈빨강〉이 모두 동일한

58) Evans. *op. cit.* (1982), p. 229.

‘빨강’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빨갛다고 지각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다홍”에 해당하는 색조이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연홍”에 해당하는 색조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우리는 “빨강$_1$(다홍)”과 “빨강$_2$(진홍)”, “빨강$_{19}$(연홍)” 등과 같이 세밀하게는 전부 다른 색조들을 구별해내지 못하고 “빨강”으로 포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지각할 때, 설령 〈빨강$_1$〉과 〈빨강$_{19}$〉라는 세밀한 개념들을 모두 소유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는 ‘빨강$_1$’과 ‘빨강$_{19}$’를 각각 다른 것으로 지각하곤 한다는 사실이다. 에반스는 이러한 일상적인 지각 사례로부터 주체가 지각 경험을 통해 실제로 포착할 수 있는 세밀한 색조들에 비해서 주체가 소유하고 있는 색 개념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각 경험의 내용이 개념적이라고 주장하는 입장은 이러한 세밀성을 잘 설명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세밀성에 관한 논의와 유사하게, 지각 경험의 특징으로 풍부함을 언급하는 철학자도 존재한다. 드레츠키(Fred Dretske)는 지각 경험이 매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구조화된 내용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드레츠키는 지각 경험과 지각적 믿음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서로 다른 것임을 지적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를테면, 철수가 ‘저 식탁 위에 놓인 잔에는 커피가 담겨 있다.’라는 내용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보자. 이 믿음은 식탁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고, 잔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며, 그 잔은 식탁 위에 놓여 있고, 그 잔에는 커피가 담겨 있다는 단순한 몇 가지 사실들만을 제공한다. 그러나 철수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이유에 해당하는 시지각 경험 그 자체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한다. 철수의 시지각 경험 그 자체의 내용에는 철수가 식탁 위의 잔을 보았을 때 포착된 식탁의 색이나 형태, 혹은 잔의 크기나 재질과 같은 정보는 물론이고, 커피가 잔에 얼마나 차있었는지 혹은 잔의 손잡이에는 그림자가 어떠한 각도로 드리워져 있었는지 등과 같은 매우 풍부한 정보들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드레츠키는 개념을 통해 명제라는 형식으로

구조화된 지각적 믿음과 달리, 지각 경험은 훨씬 많은 정보를 지각 주체에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드레츠키는 오히려 우리의 지각 경험의 모든 내용이 개념적으로 구조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큰 저장능력(storage capabilities)과 검색능력(retrieval capabilities)"[59]을 필요로 할 것인데, 인간의 뇌는 물리적으로 한계를 갖기에 지각 경험은 개념화될 수 없는 풍부한 내용을 갖는다고 말한다.

앞서 보았듯 표준적 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의 내용이 개념으로만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규정하든 간에 사고의 구성 단위라는 최소한의 '개념' 규정으로부터 지각 경험의 내용은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단위란 무언가의 수량이나 정도를 측정할 때 그 수치나 정도의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을 뜻하기에, '개념' 또한 우리가 사고할 때 동원하는 무언가의 양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으로 구획 지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반스와 드레츠키가 언급한 지각 경험의 특징인 세밀성과 풍부함은 이러한 구획된 기준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지각 경험의 내용을 가리키기에, 표준적 개념주의는 세밀성과 풍부함이라는 지각 경험의 특징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마주하게 된다.

맥도웰과 브루어는 이러한 비판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시사 개념(demonstrative concept)'을 제시한다.[60] "이것(this)"이나 "저것(that)"과 같은 지시사는 고정된 지시체를 갖는 고유 명사도 아니고 지시체를 제시하는 특정한 양태에 해당하는 기술구도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 언어에서 자주 사용된다. 특히, 지시사는 발화 주체가 자신이 직접 마주하고 있는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지시사의 지시체는 발화 순간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발화자가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책상을 가리키며 "이것은 하얗다."와 같은 문장을 발화한다. 이때 "이것"의 지시체는 '발화자 앞에 놓인

59) Dretske, Fred. *Knowledge and the Flow of Information*. MIT Press (1981), p. 140.
60) 현대 언어철학과 관련된 문헌에서는 종종 "designator"를 "지시어"나 "지시사"로 번역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고에서 사용된 "지시사"와 "지시사 개념"은 모두 "demonstrative"와 "demonstrative concept"임을 밝힌다.

책상’이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 청소를 위해 책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본래 책상이 있던 자리에 무선 청소기가 놓였다고 해보자. 이 경우, 발화자가 동일하게 “이것은 하얗다.”라는 문장을 발화하더라도 “이것”의 지시체는 무선 청소기가 된다.

맥도웰은 이러한 지시사의 특징에 주목하여, 주체가 지시사와 지시사의 형식을 띤 개념(지시사 개념)을 통해 지각 경험의 세밀한 내용이나 풍부한 내용을 포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61] 세밀한 색조 지각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보자. 지각 주체가 <빨강$_1$>과 <빨강$_2$>라는 개념을 모두 갖고 있지 않아서 해당 주체가 ‘빨강$_2$’를 담지한 어떤 사물을 실제로 보고서도 해당 사물의 색조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표준적 개념주의에 의하면 주체는 <(내가 보고 있는 사물의) 이 색> 혹은 <(내가 보고 있는 사물의) 저 색>이라는 지시사 개념을 통해 우회적으로 자신의 지각 경험의 내용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사한 방식으로, 개념주의자는 지시사 개념을 통해 드레츠키가 언급한 지각 경험의 풍부함도 설명할 수 있다. 주체가 ‘저 식탁 위에 놓인 잔에는 커피가 담겨 있는 것을 본다.’라는 개념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지각 경험을 겪었다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커피의 색이나 찰랑거림 혹은 컵의 형태와 같은 풍부한 정보들을 포함할 수 없지만, ‘저 잔을 본다.’라는 지시사 개념을 포함한 내용의 지각 경험을 겪었다고 설명한다면 내부에서 커피가 미묘하게 찰랑거리고 연갈색을 띠고 있으며 모양이 타원형에 가까운 ‘저 잔’의 현재 상태와 속성 등을 모두 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62]

---

61) McDowell. *op. cit.* (1994), pp. 56 - 57.

62) 물론 맥도웰이 <이것>이나 <저것>을 개념의 일종인 지시사 개념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맥도웰은 오히려 <이것>이나 <저것>을 개념의 일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반문을 제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맥도웰은 색 지각과 관련하여 “왜 지각 주체가 자신의 개념적 사고 내에 색조를 포함시키는 능력이 “빨강”이나 “초록” 혹은 “번트 시에나”와 같은 단어로 표현가능한 개념들에 의해 제한된다고 받아들여야만 하는가?”라며 전형적인 색 이름만을 색 개념 토큰으로 간주하는 이들에게 역으로 물음을 던진다(McDowell 1994, p. 56). 그리고 맥도웰은 곧바로 지시사 개념을 의문시하는 입장이 우리의 일상적 색 지각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매우 편협한 생각임을 지적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어떠한 사물을 보고 “저 색”이라고 곧잘 말하고, 심지어 “저 색”이라는 지시사 표현을 통해 자신의 색 지각 경험을 정확하게 기술하곤 하기 때문이다. 다만, 맥도웰은 지시사 개념을 통해 형성된 표상은 그 개념이 사용된

그러나 위와 같이 지시사 개념을 토대로 한 반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밀성과 풍부함이라는 지각 경험의 현상적 특징은 표준적 개념주의에게 문제로 남는다. 왜냐하면, 지시사 개념을 활용하는 개념주의의 논증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 빠지기 때문이다. 앞에서 논의되었던 색조 지각의 사례와 관련하여, 지각 주체가 그 어떤 개별 색조 개념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보자. 즉, 지각 주체는 그 어떤 개념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홍>이나 <연홍>과 같이 빨간색에 속하는 여러 색조들에 상응하는 개념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을 상정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적 개념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에 의하면, 지각 주체는 <다홍>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저 색>이라는 지시사 개념을 통하여 우회적으로 자신의 경험 내용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한다. 문제는, 이때 지각 주체가 활용하는 <저 색>이라는 지시사 개념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주체가 <다홍>이라는 개별 색조 개념 대신 활용하는 <저 색>이라는 지시사 개념에는 이미 <색>이라는 개념이 선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각 주체가 <색>이라는 개념을 미리 갖고 있는지 결코 단언할 수 없다.[63] 오히려 이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낳는다. 왜 지각 주체가 <색>이라는 특정 개념을 미리 갖고 있다고 전제해야 하는가?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사회와 격리되어 자라났다거나 선천적 색맹인 사람은 <색> 개념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시사 개념을 전제하는 표준적 개념주의자들은 이러한 의문 앞에서 비판자들에 의해 "유괴 전략(kidnapping strategy)"[64]이라고 명

---

맥락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지시사 개념은 문맥-의존적이라는 조건을 덧붙인다(McDowell 1994, pp. 56-57).

63) 물론 이때의 지각 주체를 많은 철학자들의 논의에서 으레 상정되곤 하는 '평범한 지각 주체'로 간주한다면, 지각 주체는 개별 색조 개념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색>이라는 상위 개념은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해당 주체가 정말로 <색>이라는 개념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입증 책임은, 이러한 사실을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있는 표준적 개념주의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64) 런틀리(Michael Luntley)는 지시사 개념의 환원 가능성을 주장하는 표준적 개념주의의 논변을 "유괴 전략(kidnapping strategy)"이라고 명명한다. 지각 주체가 소유하고 있지 않은 특정 개념을 그보다 상위 단계에 속하는 지시사 개념으로 환원하는 표준적 개념주의의 논변은 상위 단계에 속하는 지시사 개념으로 그 하위 단계의 개념을 '유

명된 전략을 취한다. 유괴 전략에 의하면, 주체의 지각 경험에서 <다홍>과 같은 개별 색조 개념을 <저 색>이라는 지시사 개념으로 환원되듯, <저 색>에 포함된 <색> 개념 또한 보다 상위의 지시사 개념으로 환원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색조와 관련된 개념들은 다음과 같은 계층 구조를 이룬다.

단계 4: 사물이 보이는 방식
단계 3: 채도, 명도...
단계 2: 빨강, 초록, 파랑...
단계 1: 다홍, 연홍, 진홍...

이러한 구조에 의하면, 가장 하위 단계에 속하는 <다홍>이라는 개별 색조 개념은 보다 상위 단계에 속하는 <저 빨강>이라는 지시사 개념으로 환원가능하며, <저 빨강>이라는 지시사 개념에 포함된 <빨강>이라는 개념은 보다 상위 단계에 속하는 <저 채도>라는 지시사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다.[65] 그렇기 때문에 표준적 개념주의자는 설령 지각 주체가 <빨강>이라는 개념조차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주체의 지각 경험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논한다. 더 나아가, 이렇게 환원된 상위의 지시사 개념 또한 개념의 일종이기에, 지각 주체의 경험은 "그러그러한 것은 저 채도이다."와 같이 개념으로만 구성된 명제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주체가 유관한 하위 단계의 개념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서 즉각적으로는 포착이 불가능한 세밀하고 풍부한 지각 경험의 내용이, 주체가 가진 보다 원초적인 지시사 개념으로 환원되어 결국에는 포착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유괴 전략은 일견 성공적으로 개념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유괴 전략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를 마주한다. 유괴 전략은

---

괴'하듯 마구잡이로 환원해버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Luntley, Michael. "Non-conceptual Content and the Sound of Music". *Mind and Language* 18 (2003), p. 402.를 참고하라.

65) 심지어 <저 채도>라는 지시사 개념은 보다 상위 단계에 속하는 <저 사물이 보이는 방식>이라는 지시사 개념으로 환원가능하다.

상위 단계의 지시사 개념으로의 환원이 무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괴 전략에 따르면, 앞서 예시로 든 색조 지각 사례의 주체는 단계 1, 2, 3에 속하는 개념을 소유하지 못했기에 끝내 단계 4에 속하는 지시사 개념으로 자신의 지각 경험 내용을 환원시켜 지각한 것이다. 그런데 만약 해당 주체가 단계 4에 속하는 지시사 개념도 소유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 사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때, 유괴 전략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 단계 5라는 더 원초적인 개념 층위를 상정하여 해당 단계에 속하는 지시사 개념으로 환원시키면 된다고 설명하는 방식의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유괴 전략에게 제시된 문제를 동일하게 반복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왜냐하면, 주체가 또다시 단계 5에 속하는 지시사 개념조차 소유하지 못한 경우를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고, 그보다 상위에 위치하는 단계 6, 7, 8... n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한한 유괴의 반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표준적 개념주의자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번째로 표준적 개념주의자는 유괴 전략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상위 단계의 지시사 개념으로 환원하는 방식을 고수하는 대신, 모든 주체가 필연적으로 소유하는 임의의 개념 단계를 상정하고서 최종적으로 지각 경험의 세밀하고 풍부한 내용이 해당 단계에 속하는 개념으로 환원된다고 논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유괴 전략의 첫 번째 대응 방식은 계속해서 하위 단계의 개념들을 소유하지 못한 주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실패하기에,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모든 주체가 필연적으로 소유하는 특정한 상위 단계의 개념이 존재한다고 간주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유괴 전략을 취하는 표준적 개념주의자에게 있어서 좋은 해결 방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대응이 타당하려면 모든 주체가 필연적으로 소유하는 특정 개념의 단계가 무엇이며, 그 단계에는 어떤 개념들이 속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정한 한 단계를 다른 개념들이 환원되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단계인 가장 상위의 단계로 단정 짓는 일은 매우 임의적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유괴 전략은 개념주의가 거부하고자 했던 소여의 신화를 내포한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적이다. 우선, 유괴 전략은 하위 단계의 개념이 모두 상위 단계의 지시사 개념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전제하는데, 정작 유괴 전략을 취하는 개념주의자들은 왜 하위 단계에 속하는 개념과 상위 단계에 속하는 지시사 개념이 환원 관계에 놓이는지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유괴 전략은 하위 단계의 개념과 상위 단계의 지시사 개념 사이의 관계가 '환원'으로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암묵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게다가 무한한 유괴의 반복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유괴 전략이 취하는 대응 방식은 특정한 상위 단계의 지시사 개념만큼은 모든 주체가 소유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것인데, 이 또한 그 특정 단계의 개념을 주체에게 당연히 주어진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소여의 신화를 피할 수 없다. 즉, 유괴 전략을 취하는 개념주의는, 역설적이게도 맥도웰이 개념주의를 주창하며 가장 피하고자 했던 소여의 신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논변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자신들이 비판하고자 했던 대상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기에 매우 문제적이다.

요컨대, 지시사 개념을 활용한 유괴 전략은 세밀성과 풍부함이라는 지각 경험의 현상적 특징으로 인해 개념 간의 유괴가 무한히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거나 주체가 필연적으로 소유하는 개념의 특정 단계를 설정하여, 또 다른 소여의 신화에 빠지는 딜레마를 마주한다.

## 3.2. 재식별가능성

둘째로,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표준적 개념주의에게 제기되는 또 다른 대표적인 반론은, 지각 경험의 내용 중 세부적인 것들은 재식별(re-identification)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개념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반론을 자세히 살피기 전에, 개념의 조건 중 하나인 '재식별가능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자. 앞서 정리했듯 개념은 "사고의 구성 단위"로서 일정하게 구획되어 있는 사고의 단위이기에,

어떤 개념이 한 상황에서 특정한 대상에게 귀속될 수 있다면 대상 자체의 변화가 없는 한 지각 주체는 다른 여러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해당 개념을 그 대상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한다. 환각과 같은 오식별 상황이 발생했거나 여러 차례의 지각 사이에 대상의 속성이나 지각 경험에 영향을 미칠 만큼 주변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각 주체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동일한 개념을 귀속시킬 수 있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환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지 않고 조명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예외적인 환경에 놓이지 않았다면 지각 주체는 자신이 안방에서 본 사과에 '빨강'이라는 색 개념을 귀속시킨 것과 동일하게 거실에서도 해당 사과를 보고 '빨강'이라는 색 개념을 귀속시킬 것이다. 요컨대, 지각 주체가 어떤 개념을 올바르게 소유하고 있기 위해서는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단일 개념을 적용시킬 수 있어야만 하고, 이러한 적용을 통해 대상을 재식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개념의 '재식별가능성'은 개념의 필요조건 중 하나이기에, 지시사 개념 또한 이를 만족해야만 한다. 켈리(Sean Kelly)는 지시사 개념을 비롯한 모든 개념은 재식별가능해야만 하는데, 지시사 개념이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켈리는 지시사 개념이 만족해야만 하는 개념 소유의 필요조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논한다.

> 대략적으로 진술하자면, 지시사 개념의 소유에 관한 필요조건은 지시사 개념의 소유가 주체로 하여금 그 개념이 원래 적용되었던 맥락과는 독립적으로 그 개념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 나는 이 보편적인 필요조건을 보다 정확하게는 "지시사 개념 소유의 재식별 조건"이라고 명료화할 것이다. 재식별 조건은 x에 관한 지시사 개념을 갖기 위해서, 주체는 반드시 한결같이 주어진 대상 혹은 속성을 바로 그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식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66]

66) Kelly, Sean. "Demonstrative Concepts and Experience". *Philosophical Review* 110 (2001), p. 403.

켈리는 색 지각 경험의 사례를 언급하며 맥도웰과 브루어를 비롯한 표준적 개념주의자들이 활용하는 지시사 개념이 위와 같은 재식별가능성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지각 주체가 <진청>이라는 개념을 갖지 않고 있다고 해보자. 분명 그 주체는 지시사 개념을 활용하여 '진청색 공책'의 색조를 다른 색 사물들의 색조와 구분해낼 수는 있을 것이다. '진청색 공책'을 본 다음, '연청색 공책' 그리고 '남색 공책'을 각각 보고 나서 "저 색(진청색 공책의 색)은 이 색(연청색 공책의 색)보다 진하다."라거나 "저 색(진청색 공책의 색)은 이 색(남색 공책)보다 연하다."와 같이 비교를 통해 색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고 지각 주체에게 임의의 '청색 사물'을 보여주고서 해당 사물의 색이 아까 활용한 <저 색> 개념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그 주체는 쉽게 답변하지 못할 것이다. 설령 그 임의의 '청색 사물'의 색이 맨 처음 보았던 '진청색 공책'의 색과 완전히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즉, 해당 주체는 <저 색>이라는 동일한 지시체에 대해서 단일한 지시사적 개념을 다시 적용해내지 못함으로서, 재식별에 실패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분명 해당 주체는 '저 색'을 '이 색'과 구분해내며 지각했다. 그렇기에, 켈리를 비롯하여 비개념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그 내용이 전적으로 지시사 개념으로 환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각 경험의 내용이 개념적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하며, 색을 구별하거나 식별하는 지각 주체의 능력이 색을 개념을 통해 포착하는 주체의 능력과 동일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그리고 그렇기에 지각 개념의 내용에는 비개념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67]

그러나 브루어는 켈리를 비롯한 비개념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지시사 개념 소유의 재식별 조건'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반박한다. 우선 브루어는 비개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재식별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론한다.

---

67) 켈리의 논증을 더 상세히 살펴보려면 이풍실, 「비개념주의와 세밀성 논증 - 켈리의 논증을 중심으로」, 『철학』 제 99집 (2009)을 참고하라.

> 재식별 조건을 개념 소유의 필요 조건으로 제시하는 개념주의자의 주장 뒤에는, 문제가 되는 의미론적 값들과 개념들 사이의 현재 관계와는 무관하게, 개념들이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 어떤 사람에 의해서든 포착될 수 있고 또 어디에서든 포착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개념들이 사물들에 대한 완전히 맥락 독립적인 분류와 반드시 상응하고 있다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가정이 존재한다.[68]

즉, 브루어는 비개념주의자들이 제시하는 재식별 조건이, 장소나 개별 주체의 상황 등에 의해 매우 가변적일 수 있는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가정이라고 비판하는 것이다. 다만, 브루어도 지시사적 개념을 비롯한 개념이 재식별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는데, 그 대신 개념이 만족시켜야 할 재식별 조건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비개념주의자들이 제시한 기존의 재식별 조건은 맥락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기에, 지각 주체와 지각 대상 사이의 맥락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지시사적 개념의 재식별 조건을 수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브루어는 어떤 대상이 재식별될 때 담보되어야 하는 동일성을 질적 동일성이 아닌 수적 동일성만으로 완화해야만 함을 주장한다. 즉, 지각 주체가 자신의 지각 경험과 유관한 지시사적 개념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필요조건은, 주체가 자신이 이전에 지각했던 대상과 현재 지각하고 있는 대상의 모든 속성들까지 다 동일함을 확인하여 질적으로도 완전히 동일한 대상으로 재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둘 사이에 연속성이 존재하여 수적으로 동일한 대상이라고만 재식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재식별 조건을 완화하자고 주장하는 브루어의 재반론은 '지시사 개념 소유의 재식별 조건'을 토대로 한 비개념주의자의 비판에 대한 적절한 재반론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개념 소유

68) Brewer. *op. cit.* (1999), p. 171.

의 필요조건으로 언급된 재식별 조건을 수적 동일성으로 완화시키면, 이때의 '재식별'은 애초에 켈리가 언급했던 재식별 개념과는 다른 의미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브루어가 주장한 완화된 조건의 재식별은 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대상에 대한 재식별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기에 서로 매우 유사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분명 서로 다른 두 대상에 대한 식별이다. 즉, 브루어가 재반론에서 주장하는 바는 지각을 통한 즉각적인 재식별이 아니라 지각을 토대로 하여 형성된 단기 기억을 통한 재인지(recognition)이다. 다시 말해, 브루어 식의 재반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주체는 먼저 지각한 '저 색'과 새롭게 지각하는 '이 색'이 모두 완전히 <그 색>과 동일하다고 재식별한 것이 아니라, '저 색'과 '이 색' 사이에는 유관한 맥락이 존재하기에 <그 색>이라고 인지한 것이 된다. 그러나 분명 지각은 인지와는 완전히 다른 심적 과정이다. 그러므로 브루어의 재반론은 만족스럽지 않은 대응이다.

요컨대,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표준적 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이 우리의 믿음과 지식의 이유 혹은 정당화자로 기능하기 위해서 그 내용이 개념적이고 명제적이어야만 하는데, 실제로 지각 경험은 우리의 믿음과 지식의 이유이자 정당화자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결국 그 내용이 개념적이고 명제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변은 지각 경험의 현상적 특징인 세밀성과 풍부함을 잘 해명하지 못하고, 지각 경험 사례에서는 개념 소유의 필요조건인 재식별 가능성이 잘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각 경험에 관한 만족스러운 설명으로 평가받지 못한다. 물론 맥도웰과 브루어를 비롯한 표준적 개념주의자들은 지시사 개념이라는 해결책을 도입하여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이는 오히려 표준적 개념주의의 논변을 자신들이 비판하고자 했던 소여의 신화와 유사하게 만들거나 무한 퇴행에 빠뜨리고, 지각과 인지를 혼동하는 실책을 스스로 범하도록 만든다. 이로 인해,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표준적 개념주의는 일상적 사례로부터의 직관과 지각 경험의 인식론적 기능에 대한 호소로부터 출발함에도 불구하고, 지각 경험의 성격을 아주 잘 규명하고 있지는 못하

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표준적 개념주의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지각 경험의 내용에는 비개념적 내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비개념주의의 논변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 Ⅲ.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

앞 장에서 우리는 맥도웰과 브루어의 표준적 개념주의를 중심으로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로부터 우리는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라고 간주하는 것이 지각 경험의 본성과 우리의 실제 지각 경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여러 문제점을 갖기에, 대안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여러 철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를 검토해 보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는다.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는 앞 장에서 살펴 본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와 완전히 대립되는 주장을 펼치진 않는다. 앞서 보았던 개념주의가 '지각 경험의 내용은 전적으로 개념적이다.'라는 주장을 펼쳤다면, 이와 대립하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의 내용은 전적으로 개념적이지는 않다.'라는 주장을 펼친다. 다만, 이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가 비개념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각 경험의 내용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들 중 비개념이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는 그 논증의 주된 목표에 따라 두 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의 비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의 주장을 비판하고 반론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두 번째 유형의 비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의 내용 중 비개념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한다. 본고는 전자를 '소극적 비개념주의'라고 부를 것이고, 후자를 '적극적 비개념주의'라고 부를 것이다.[69] 특히, 피콕의 논변을 골자로 삼는 '적극적 비개념주의'의

69) 이러한 명명법은 논증의 유형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쓰이는 "negative argument"와 "positive argument"의 구분을 참고했다. 논증의 두 유형을 나타내는 위 표현들을 직역하자면 '부정적 논증'과 '긍정적 논증'이겠으나 종종 '소극적 논증'과

경우,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 진영의 논변을 보다 공고히 하고 있다.[70]

---

'적극적 논증'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는 '부정적 논증'과 '긍정적 논증'이라는 표현이 내포할 수 있는 어조 때문이다. '부정적 논증'이라고 하면, 마치 논증을 구성하는 모든 명제가 부정문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논증의 결론이 부정적인 가치를 함축하는 것처럼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 논증'의 경우에도 유사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해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전자의 경우 다른 논증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비판점을 제시하면서 그 논증의 무용함을 강조하는 데 방점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negative argument"에 해당하는 논증은 자신만의 고유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보다는 특정 논증의 타당성이나 건전성 등을 소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점에서 '소극적 논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 다른 논증의 문제점이나 비판점을 살펴보는 작업보다는 자신만의 고유한 주장을 개진하는 데 집중한다. 즉, "positive argument"에 해당하는 논증은 소극적으로 기존의 다른 논변들을 검토하는 작업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고는 비개념주의 내의 두 유형이 취하는 태도가 각각 소극적 논증과 적극적 논증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두 유형을 각각 "소극적 비개념주의"와 "적극적 비개념주의"라고 명명했다.

70) 본고의 이러한 구분과 별개로, 다른 방식으로 지각 경험에 대한 비개념주의의 입장을 세분화하려는 시도도 존재한다. 헥(Richard Heck)은 에반스의 문제 제기로부터 출발한 대부분의 비개념주의 입장이 에반스의 논의를 지나치게 좁게 이해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비개념주의의 두 노선을 구분할 것을 제안한다. 헥은 크레인이나 피콕, 버뮤데즈(Jose Bermudez)이 취하는 입장과 같이, 지각이라는 심적 상태의 내용이 믿음과 같은 인지적 상태의 내용과는 종 차원에서(in kind) 다르기에 지각의 내용은 비개념적(혹은 개념 독립적)이라고 에반스의 의문을 이해하는 방식을 "내용 관점(content view)"의 개념주의라고 명명한다. 한편, 번(Alex Byrne)이 취하는 방식과 같이 에반스의 논의를 보다 넓게 이해하여 지각과 인지가 유형적으로 서로 다른 심적 상태라고 이해하는 방식은 "상태 관점(state view)"의 개념주의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상태 관점의 비개념주의에 의하면, 지각이라는 상태는 비개념적(혹은 개념 독립적) 상태이고 인지라는 상태는 개념적(혹은 개념 의존적) 상태이다. 요컨대, 지각 경험에 대한 내용 관점의 비개념주의에 따르면 지각 경험의 내용은 비개념성이라는 속성을 소유하는 것이고, 지각 경험에 대한 상태 관점의 비개념주의에 따르면 지각 경험의 내용이 비개념성이라는 속성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이라는 유형의 상태 그 자체가 비개념성이라는 속성을 소유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얼핏 보면, "상태 관점"의 주장은 "내용 관점"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내용 관점"의 주장에 따르면, 지각 경험의 내용은 믿음과 같은 인지적 상태의 (개념 의존적) 내용과는 달리 반드시 개념 독립적인 내용을 포함해야만 한다. 하지만 "상태 관점"의 주장에 의하면, 비개념적 상태에 놓여 있는 주체는 오직 개념 의존적인 내용들만을 가질 수도 있다. 지각과 같은 비개념적 상태에 놓여 있는 주체는 수많은 개념들을 소유하되, 자신이 놓여 있는 상태에 포함된 내용과 무관한 개념들만을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eck, Richard. "Nonconceptual Content and 'the space of reasons'".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109, No. 4 (2002)를 참고하라.

본 장에서는 이러한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의 두 유형을 각각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비개념주의의 주된 동기들을 짚어볼 것이다. 그 후, 소극적 비개념주의와 적극적 비개념주의로 나뉠 수 있는 비개념주의의 두 유형을 살펴보고, 이 두 유형 모두 지각 경험의 본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존재함을 지적하며 비개념주의 또한 만족스러운 철학적 논의가 아님을 주장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먼저 비개념주의의 주된 동기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 1. 비개념주의의 두 동기

## 1.1. 평범한 주체의 개념 소유의 한계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비개념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은 평범한 주체가 일상적으로 자신의 지각 경험과 관련된 모든 개념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례들로부터 논변을 시작한다. 앞서 인용했던 에반스의 의문을 다시 떠올려보자. 에반스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색조들만큼이나 정말로 우리가 많은 색 개념들을 가진다는 주장을 이해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다.[71] 우리는 〈다홍〉이나 〈진홍〉과 같은 〈빨강〉 계열의 몇몇 색조 개념들을 알고 있기도 하지만, 〈다홍〉과 〈진홍〉 사이의 보다 더 미세한 색조까지 알지는 못한다. 〈다홍〉과 〈진홍〉 사이에 존재하는 색조들 사이에 더 세밀하게 존재하는 색조 개념 또한 마찬가지로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밀하고 미세한 색조에 상응하는 개념들을 모두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그 색조들을 구분해내곤 한다. 이를테면, "아까 본 공책의 빨간색보다 지금 보고 있는 가방의 빨간색이 미묘하게 더 진한 것 같다." 와 같은 식으로 말이다. 즉, 일상적으로 우리는 어떤 개념을 미리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개념에 상응하는 실재를 식별하고 또 구분해내곤 한다.

이는 단지 색 지각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각적 대상만이 아니라 미묘

71) Evans. *op. cit.* (1982), p. 229.

하게 다른 음고, 맛, 향처럼 온갖 감각적 대상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상황이 나타난다. 대부분의 지각 주체는 아주 미세한 차이를 갖는 수많은 음고나 매우 사소하게 다른 듯한 각각의 맛이나 향에 상응하는 개념을 전부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음고들이 서로 어딘가 다르다고 느끼거나 맛이나 향이 변했다고 알아차린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세하고 세밀한 차이를 느낌과 같은 즉각적인 반응으로 포착하긴 하지만 그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개념을 통해 형언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즉, 우리의 일상적 지각 경험을 살펴보면, 그 내용에는 개념만으로는 포착될 수 없는 무언가인 '비개념'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일상적 지각 경험으로부터 상기되는 주체의 개념 소유의 한계는 자연과학의 논의에 의해서 더 정교하게 지적되곤 한다. 우리의 모든 심적 활동을 주관하는 신체 기관인 뇌는 명백한 물리적 한계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뇌는 단백질로 구성된 신경 세포들이 군집되어 있는 일종의 세포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뇌는 다른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한정된 연장(extension)을 갖고, 한정된 연장으로 인해 제한된 용량의 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다. 특수한 발육 상태의 인간을 제외한다면, 일반적으로 인간의 뇌는 약 1000억개의 뉴런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수적 한계는 뇌에 저장되는 정보의 양이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의 제한을 야기하기에, 뇌를 통해 형성되고 활용되는 개념 또한 주체가 보유할 수 있는 수가 한정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비개념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의 첫 번째 동기는 바로 이러한 한계로부터 비롯된다.

## 1.2. 영유아나 동물의 지각 경험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비개념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의 또다른 주된 동기는 영유아나 동물[72]과 같은 전-언어적이거나(pre-linguistic) 비-언어적인(non-linguistic)인 생명체들의 지각 경험을 개념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통념적으로 동물과 같은 비인간 생명체가 언어를 통해 소통하거나 표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동물은 개념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성인에 비해 발달이 덜 이루어진 영유아의 경우 언어 활동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제한적인 수의 단어만을 사용하기에 개념 소유에 있어서 매우 미숙하다고 여겨진다. 즉, 전-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생명체는 일반적인 성인과 비교했을 때 개념을 아예 소유하지 않거나 매우 적은 수의 개념만을 소유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영유아나 동물과 같은 전-언어적 생명체와 비-언어적 생명체가 지각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영유아와 동물도 분명 무언가를 보거나 들으며 외부 세계를 지각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영유아와 동물의 지각 경험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를 해명하기 위해, 몇몇 이들은 지각 경험의 내용이 비개념적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동기는 발달심리학(developmental psychology)이나 인지행동학(cognitive ethology)과 같은 경험과학의 여러 분과들에 의해서도 강조된다. 발달 심리학에서 진행되어 온 인간의 발달 초기 단계에 관한 연구들은 영유아에 대한 관찰과 실험을 통해 영유아가 전-언어적인 생명체이기에 개념 소유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심적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표적으로는 고프닉(Alison Gopnik)과 멜초프(Andrew Meltzoff)의 발달 심리학적 연구가 있다. 고프닉과 멜초프는 인간의 발달 단계에 있어서 초기 발달 단계에 해당하는 영유아의 심적 활동들에 대해 논하면서 영유아를 과학자로 비유한다.[73] 많은 사람들이 영유아가 언어 습득을 전혀 하지 못했거나 아주 한정된 언어 표현만을 학습한 전-언어적 생명체라는 점에서 영유아를 지적으로 아직 매우 미숙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과 달리, 영유아는 초보적인 방식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외부 세계를 관찰하여 이론을 고안하고 검증하며 심지어 수정하

72) 인간 또한 동물에 포함되지만, 본 절에서 논해지는 '동물'의 경우 비-인간 생명체로 한정한다.

73) Gopnik, Alison., and Meltzoff, Andrew. "The Scientist as Child". in *Words, Thoughts, and Theories* (1997)

기 때문이다. 물론, 고프닉과 멜초프에 의하면, 영유아가 세우는 이론은 전문 과학자가 정립하는 이론과 질적으로 동등하진 않지만 관찰을 통한 가설 수립과 실제 현상에 대한 가설 적용을 통한 검증 및 그에 대한 반성적 고찰이라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친다는 점에서 전문 과학자가 세우는 이론과 유사하다. 특히, 이때 중요한 점은 영유아가 개념 소유에 있어서 매우 미숙하여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개념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나름의 관찰을 통해 획득한 자신의 지각 경험 내용을 이론 정립에 활용한다는 것이다.[74] 즉, 영유아는 구체적인 특정 개념에 상응하지는 않더라도 추론이나 학습 등과 같은 인지적 활동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지각 경험의 내용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비-언어적인 생명체인 동물의 지각 경험에 대한 인지행동학[75]의 연구들도 유사한 함축을 제시한다. 동물은 외견상 비-언어적 생명체이기에 어떠한 개념도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지각을 통해 획득한 외부 세계에 대해 반응한다.[76] 예를 들어, 동물은 외부

---

74) 심리학자 바일라르건(Renée Baillargeon)의 연구는 영유아의 이러한 이론 정립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예증한다. 바일라르건은 영유아가 어떻게 외부 세계에 대해 학습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영유아가 외부 세계의 새로운 물리적 현상을 지각하는 순간을 관찰한다. 바일라르건에 의하면, 가장 먼저 영유아는 새로운 그 현상의 핵심 요소들을 포착하는 플레이스홀더를 형성한다. 그 이후, 언어를 습득하거나 그 현상에 대해 점점 더 익숙해지면서 소유하게 되는 여러 개념들을 점차 그 플레이스홀더와 동일시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영유아가 외부 세계에 대해 학습하기 위한 과정의 초기 단계인 지각 경험은 분명 비개념적인 내용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Baillargeon, Renée. “Physical reasoning in infancy”. in *The cognitive neurosciences*. MIT Press (1995)

75) 동물인지행동학(cognitive ethology)은 인간을 제외한 동물의 심적 상태를 탐구하기 위해 그러한 심적 상태가 어떻게 동물의 행동을 통해 표현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학문 분과이다. 다만, 이러한 목표와 연구 방법은 심리학의 목표와 연구 방법과 매우 유사함에도 심리학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마음이라는 대상의 귀속을 단언할 수 있는 대상은 인간 뿐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결코 비-인간 동물이 될 수 없기에 (비-인간 동물에게 마음이 존재한다면) 비-인간 동물의 심적 상태를 단언할 수 없다. 따라서 동물이 하는 행동을 통해 이러한 심적 상태를 간접적으로 추론해낼 뿐이기에, 궁극적으로는 동물의 심적 상태에 관한 탐구임에도 인지행동학은 행동학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장이권 외 6인. 『동물행동학』. 월드사이언스 (2021)을 참고하라.

76) 물론 이에 대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예컨대, 인간이 사용하는 개념과 동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동물 또한 나름의 개념을 소유하여 이를 사용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도 있다. 혹은, 동물과 같은 비-인간 생명체가 인간과는 다르게 개념을 갖지 않고서도 고유한 방식으로 사고한다는 반론도 가능할 것이다.

환경에 맞추어 자신의 생존을 위한 먹이를 탐색하거나 주거지를 마련하고, 짝짓기를 하여 번식을 하는 등 다양한 유형의 행동을 취한다.[77] 다만 이때, 동물도 인간과 유사하게 자신이 놓여 있는 환경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에 대한 반응으로써 행동을 취하기에 동일한 유형의 행동을 취하는 데 있어서도 세부적으로는 다른 양태를 보인다. 즉, 동물도 외부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에 반응하여 행동하기 위해 외부 세계에 대한 지각 경험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를 따르면 지각 경험의 내용은 전적으로 개념적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으로는 개념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나름대로 지각 경험의 내용에 근거하여 행동을 취하는 동물의 심적 상태와 그에 따른 행위의 메커니즘을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이처럼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라는 개념주의의 논변

---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다음과 같은 두 비판을 해결해야만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이 반론에서 제시되는 동물의 "개념"은 엄밀하게 말하면 '개념'이 아니다. 인간이 사용하는 '개념'을 기준으로, 본고는 1장에서 '개념'을 "사고의 구성 단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동물은 인간이 아니므로 인간의 사고가 불가능하다. 혹은 적어도 동물은 인간과 완전히 동일한 심적 메커니즘을 따라서 사고하지 않으므로, 동물 나름의 심적 활동의 결과는 결코 "사고의 구성 단위"일 수는 없다. 굳이 말하자면, 이 반론에서 다루어지는 동물의 "개념"은 '개념'이 아니라 '개념*'와 같이 표기해야만 할 '개념'과 유사한 무언가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 설령 동물이 인간과 달리 개념을 소유하지 않은 채로도 나름의 방식으로 사고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때의 '사고'가 인간의 사고와 정말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단언할 수 없다. 우리는 앞서 개념을 "사고의 구성 단위"라고 규정하며, 믿음이나 욕구, 인지 등의 복잡한 심적 상태에는 '개념'이 심적 활동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처럼 활용되어야만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동물과 같은 비-인간 생명체가 개념 소유 없이도 특정한 심적 상태에 놓일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사고와 유사한 심적 상태일 수는 있겠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사고와 질적으로 동일한 것일 수는 없다. 즉, 우리는 그것을 "사고"가 아니라 "사고*"나 "사고′"과 같이 유사한 무언가로 호명할 수는 있어도, "사고" 그 자체로 호명하지는 않을 것이다.

게다가, 위의 두 사항을 차치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동물이 정말로 나름의 방식으로라도 개념을 소유하는지 확언할 수 없다. 네이글(Thomas Nagel)이 「박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What is it like to be a bat)?」(1974)에서 환원주의를 비판하면서 지적했듯, 인간은 비-인간 주체의 심적 상태에 의해 야기되는 현상적 특징들을 1인칭 관점에서는 결코 포착할 수 없다. 박쥐의 관점에서 박쥐로서 생존하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결코 박쥐가 될 수 없는 인간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의 기준에서 박쥐의 삶이 어떠할 것이라고 상상하고 발화하듯,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준과 시각에서 동물이 개념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상정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일 것이다.

77) 장이권 외 6인. *op. cit*, pp. 100-111.

을 통해서는 위와 같은 전-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생명체의 지각 경험과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여러 심적 활동의 정당화자가 되는지 전혀 해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의 두번째 동기가 발현된다.

## 2.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소극적 비개념주의

본 절에서는 평범한 주체가 개념을 소유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영유아나 동물처럼 개념을 소유하지 않는 주체도 얼마든지 지각 경험을 한다는 두 동기로부터 비롯된 비개념주의의 일반적인 입장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개념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의 입장을 두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것이다. 개념주의의 논변을 비판하는 것에 집중하는 입장을 소극적 비개념주의라고 명명하고, 개념주의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비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시하고자 하는 입장을 적극적 비개념주의라고 명명한 후, 각각의 입장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이 두 유형의 비개념주의 중 전자에 해당하는 소극적 비개념주의의 논변과 그에 대한 비판을 살펴볼 것이다.

### 2.1. 소극적 비개념주의의 논변: 크레인의 논증을 중심으로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를 비판하면서, 지각 경험의 내용은 비개념적이고 더 나아가 비명제적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는 크레인(Tim Crane)이다. 크레인은 맥도웰의 논변이 잘못되었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한다. 그는 맥도웰을 비롯한 표준적 개념주의자의 논의처럼 지각 경험의 내용이 결코 명제적이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지각 경험의 내용은 믿음이나 판단의 내용도 될 수 없다고 반론한다.[78]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크레인은 지각 경험의 내용이 명제의 형식으로 보고될 수 있

78) Crane, Tim. "Is Perception a Propositional Attitude?". *Philosophical Quarterly* 59 (2009), p. 453.

다는 것과 지각 경험의 내용이 실제로 개념적이고 명제적이라는 것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지적한다.[79]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각 경험의 내용은 사후적으로 명제를 통해 보고될 수는 있지만 분명 지각 경험의 내용 그 자체가 명제의 구조를 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크레인은 지각 경험의 내용은 명제의 형식을 그 구조로 갖지 않기에, 지각 경험의 내용을 정당화자로 삼아서 전개되는 지각적 믿음이나 판단과는 그 성격에 있어서 명백히 다르다고 논한다. 따라서 지각적 믿음이나 지각 경험을 토대로 한 판단의 내용이 개념적이고 명제적이라고 해서, 필연적으로 그 근거가 되는 지각 경험의 내용 전체가 개념적이고 명제적이진 않다는 것이다.

크레인은 명제를 통한 지각 경험의 내용의 보고가능성과 지각 경험의 내용 그 자체의 개념성이 구별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그림에 관한 유비를 제시한다. 크레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모든 그림에는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림의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장이 그림에 내용을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이것이 그 그림 자체가 명제적 내용을 담지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80]

분명 모든 그림은 명제의 형식으로 보고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진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로부터 그림의 내용이 전적으로 명제로 구성된다는 것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지는 않는다. 앞 장에서 다루었던 매우 세밀한 색조가 그림에 쓰였다고 해보자.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이 그 색조에 상응하는 개념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그 그림의 내용을 보고할 때 해당 색조를 포함하는 내용을 명제 형식으로 제시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해당 색조가 그림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니다. 그저 그러한 색조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수 없을 뿐이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명제의 형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내

79) Ibid.
80) Ibid, p. 461.

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즉, 그림의 어떤 내용이 명제의 형식으로 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림의 모든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이 아닐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 사실이 그림의 내용의 성격이 개념적이고 명제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크레인은 위와 같은 구분을 지각 경험과 그 내용의 성격에 관한 논의에 적용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크레인은 지각 경험의 내용이 명제의 형식으로 표현되거나 보고될 수 있다는 사실이,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고 명제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지각 경험의 성격이 개념적이라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 지각 경험에서 표상되는 것은 대상들과 속성들과 사건들인데, 이는 '다양체(Manifold)'라고 느슨하게 불리울 수 있지만, 판단가능한 내용의 구조를 갖지는 않는다. 우리는 그 모든 복합체 속에서 지각적 '소여'를 직면하고, 우리는 이 소여에 근거하여 대상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혹은 대상들이 어떻게 보이는지(혹은 어떻게 들리는지, 어떻게 냄새 나는지 등등)에 관한 판단들을 내린다. 경험된 것의 몇몇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우리는 대상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보이거나 존재한다고 판단한다. 지각적 판단(지각에 근거하여 내려진 판단)은 일반적으로 선택적이고 주의의 산물이다. 물론 이는 지각 경험과 지각적 판단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설명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관계에 관한 정확한 설명이 무엇이건 간에, 이 논문에서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바는 지각적 판단의 내용으로부터 그 판단이 근거하는 지각 경험의 구조에 관한 가설을 거꾸로 이해하려는 것은 실수라는 것이다.[81]

요컨대, 그림의 내용이 명제의 형식으로 보고 가능하다는 사실이 곧 그 그림의 내용이 전적으로 명제적이고 개념적이라는 것을 함축하지는 않

81) Ibid, p. 465.

듯, 지각 경험의 내용이 명제의 형식으로 보고 가능하다는 사실이 그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명제적이고 개념적이라는 것을 함축하진 않는다. 즉, 크레인은 그림의 내용에 관한 보고가능성이 그림의 내용의 개념성을 담보하지 않듯,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보고가능성이 지각 경험의 내용의 개념성을 담보하지 않기에, 지각 경험의 내용이 개념적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며 표준적 개념주의의 입장에 대해 반박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지적은 지시사적 개념을 활용하여 논변을 펼치는 표준적 개념주의의 입장에 대한 반박으로도 이어진다. 앞서 보았듯, 맥도웰과 브루어를 비롯한 표준적 개념주의자들은 설령 지각 주체가 특정한 개념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시사적 개념을 통해 우회적으로 지각 경험의 내용이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크레인의 논의에 따르면, 지각 경험의 내용의 보고 가능성이 지각 경험의 내용의 개념성을 담보하진 않았다. 그러므로 지시사적 개념을 활용한 우회적인 지각 경험 내용의 포착은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사후적인 보고에 불과할 뿐이기에,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으로 구성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게다가 크레인은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두 사태가 동시에 표상되는 사례를 제시하여, 표준적 개념주의의 논변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그가 제시하는 개념주의에 관한 반례는 바로 “폭포 환영(waterfall illusion)” 이다. 크레인은 폭포를 바라볼 때 흔히 나타나는 환영 사례를 다음과 같이 상술한다.

> 만약 당신이 한 방향만으로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풍경을 일정 시간 동안 본다면, 그리고 그 후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풍경 속 사물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이 사물은 원래의 움직임의 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이 효과는 회전하는 턴테이블에 나선 모양이 그려진 종이를 붙이고서 그 나선을 계속해서 본 채로 턴테이블을 끄는 것을 통해 쉽게 얻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테면, 움직임의 환영은 폭포를 보다가 그 폭포에서 돌과 같이 고정된 사물로 주의가 옮겨갈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82]

다시 말해, 우리는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떨어지는 폭포수를 보다가 갑자기 전혀 움직이지 않는 어떤 사물을 보게 되면, 그 사물이 마치 폭포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본다는 것이다. 즉, 지각 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각한 대상이 움직인다고 보게 됨으로써, 모순된 두 사태를 동시에 지각 경험의 내용으로 갖게 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인간이 'Pa & ~Pa'와 같은 모순된 연언문의 형식으로 지각 경험의 내용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순된 두 명제가 동시에 성립하는 연언문은 믿음이나 의도와 같이 전형적으로 그 내용이 개념적이라고 여겨지는 유형의 심적 상태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P를 믿으면서 P가 아니라고 믿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P를 의도하면서 P를 의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체의 마음 속에서 모순된 두 사태가 공존하는 내용의 지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크레인은 지각이 믿음이나 욕구, 의도처럼 보다 높은 수준의 심적 기관의 작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준-합리적인(Sub-rational)' 심적 과정이라고 주장한다.[83] 이와 같은 크레인의 주장을 따른다면, 지각 경험의 내용은 믿음과 같이 개념이 개입하는 보다 상위 단계의 심적 상태가 아니라 그와는 구분되어야 하는 하위 단계의 특수한 심적 상태이다. 그러므로 믿음이나 욕구처럼 그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으로 구성된다고 간주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크레인은 지각 경험의 내용에는 비개념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논변을 펼친다.

---

82) Crane, Tim. "The Waterfall Illusion". *Analysis* 48 (1988), p. 142.
83) Ibid., p. 146.

## 2.2. 소극적 비개념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처럼 크레인의 논의는 지각 경험의 내용이 개념적이라고 주장하는 표준적 개념주의의 주장을 부정하고 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러한 비판이 전적으로 성공적인지는 다소 의문스럽다. 특히, 크레인의 논의는 개념주의를 비판하고 문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작 그가 고유하게 주장하는 '비개념'이라는 대상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논하지 않는 소극적 논의에 그친다. 본 절에서는 표준적 개념주의자들로부터 크레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여러 비판들 중 주요한 비판점을 살펴봄으로써, 크레인의 논의에 해당하는 소극적 비개념주의가 지각 경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가짐을 논하고자 한다.

앞서 보았듯, 크레인은 그림의 내용이 보고 가능하다는 것이 그 그림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라는 것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을 토대로 지각 경험의 내용에는 비개념적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주체가 자신의 지각 경험의 특정 내용에 대해서 보고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는 그 경험의 모든 내용이 전부 개념적이고 명제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크레인을 비롯한 비개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지각 경험의 내용 중에는 개념적이지 않고 명제의 형식으로 정식화될 수 없어서 보고가 불가능하지만 지각 경험의 내용에 해당하는 무언가가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런데 비개념주의자들이 위와 같이 상정하는 비개념적 내용은 지각 주체 스스로조차도 접근할 수 없다. 지각 경험의 내용이 개념적인지 비개념적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은 적어도 지각 주체 스스로에 의해서는 의식적인 접근이 가능한 대상이어야만 한다. 그리고 경험의 내용에 대해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하려면 주체가 그 내용에 대해 반성하거나 사고하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 즉, 비록 지각 경험의 내용이 비개념적이라고 하더라도 지각 주체가 해당 내용이 자신의 지각 경험 내용으로 갖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주체 스스로에 의해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하여야 하기에 그 내용이 주체에게 있어서 반성이나 사고와

같은 지향적 태도의 대상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개념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은 개념을 통해 명제의 형식으로 보고 불가능한 내용이 과연 지향적 태도의 대상이 되고 또 주체 자신에 의해 의식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대상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개념주의자들은 지각 경험의 내용의 의식적 접근 가능성과 보고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분리 가능한지를 반문하는 것이다. 명제의 형식으로 정식화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개념으로 구성되지도 않아서 보고가 불가능한 지각 경험의 특정 내용이 지향적 태도의 대상일 수는 있다고 상정하려면, 이를 상정하는 측에서 이러한 내용의 실재를 증명해야만 한다. 그러나 크레인의 논변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만을 토대로, 비개념적 내용의 존재를 주장하기에 이는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논변이다.

이와 관련하여, 맥도웰은 크레인과 같이 주장하는 이들이 실책을 범하고 있다고 말한다. 맥도웰의 반론은 먼저 비언어적 생명체가 개념 소유 없이도 지각 경험의 내용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소극적 비개념주의의 논변을 겨냥한다. 맥도웰은 동물과 같이 비언어적인 생명체가 개념을 소유하지 않고서도 나름대로의 내용을 형성한 지각 경험을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비판하면서, 그러한 주장이 관찰자인 인간의 추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84] 오히려 관찰자인 인간이 상황에 맞추어 그럴싸하게 추측하여 그 추측의 내용을 동물의 지각 경험이 "마치 그러할 것이라고 귀속시키는 것(as if attribution)"[85]이다. 개념을 소유하지 않는 생명체인 동물이 자신의 지각 경험을 통해 실제로 어떠한 내용을 표상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에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그 경험의 주체인 동물 자신만이 접근할 수 있기에, 관찰자는 그 동물의 현재 지각 경험의 내용이 마치 이러저러할 것이라고 어디까지나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는 지각 주체 스스로가 아닌 관찰자에 의한 그럴듯한 가정에

84) McDowell, John. "The Content of Perceptual Experience". *Philosophical Quarterly* 44 (1994), pp. 190-205.
85) Ibid., p. 199.

불과할 뿐이므로 동물과 같은 비언어적인 생명체의 지각 경험의 내용의 비개념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맥도웰의 반론은 동물과 같은 비언어적 생명체의 지각 경험만이 아니라 크레인을 비롯한 소극적 비개념주의자가 지지하는 인간의 지각 경험 내용의 비개념성으로도 확장된다. 지각 경험의 주체조차도 스스로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떤 내용이 존재한다고 상정하는 소극적 비개념주의의 논변 방식은 앞서 지적한 '마치 그러할 것이라고 귀속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이 존재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지각 주체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접근 가능하여 타인에게 보고 가능한 내용만이 우리의 지각 경험의 내용일 수 있다고 상정하는 것이야말로 소박하지만 타당한 주장이라는 게 맥도웰의 반론의 핵심이다.

더 나아가, 지각 경험의 내용이 개념적이라는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크레인 식의 비개념주의는 비개념적 내용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갖는다. 앞서 보았듯, 크레인 식의 비개념주의가 지각 경험의 내용이 비개념적이라고 주장하는 주된 이유는 보고 불가능하지만 여전히 지각 경험에 포함되는 특정한 내용이 존재한다고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설령 이렇게 보고 불가능한 비개념적 내용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내용의 존재를 보고할 수 없다. 즉,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의 존재를 입증해야하는 쪽은 비개념적 내용의 존재를 주장하는 비개념주의 진영인데, 설령 비개념적 내용이 실제로는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비개념적 내용의 존재에 관한 모든 진술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크레인처럼 보고 불가능한 비개념적 내용의 존재를 주장할 뿐인 소극적 비개념주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는 점에서 지각 경험의 본성에 관한 성공적인 철학적 논증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 3.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적극적 비개념주의

바로 이러한 이유로부터, 피콕(Christopher Peacocke)은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적극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피콕은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표준적 개념주의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각 경험의 내용에는 비개념적 내용도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피콕은 앞서 살펴본 소극적 비개념주의와는 달리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이 두 유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각각의 비개념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한다. 본 절에서는 피콕이 주장하는 두 유형의 비개념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각각 요약적으로 살펴보며 그의 논증을 검토해볼 것이다.

### 3.1. 적극적 비개념주의의 논변: 피콕의 논증을 중심으로

먼저, 피콕은 비개념적 내용의 첫번째 유형으로 시나리오 내용(scenario content)을 언급한다. 그는 지각 주체가 지각 경험을 할 때, 그 내용에는 자기 자신을 원점 삼아 가상의 축을 그려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공간처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형성된 표상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86] 보다 구체적으로, 피콕은 우리가 무언가를 지각할 때 일반적으로 자신의 흉부의 물리적 위치를 원점으로 상정하고 그 원점으로부터 좌우나 상하 등으로 뻗어나가는 직선을 상상하여 가상의 축들을 상정하게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원점과 축들을 가지고 그려낼 수 있는 좌표 평면 위에 주변 사물들과 그 사물들로부터 발생하는 사건 등의 표면이나 특징 등을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주체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외부 대상들을 지각한다고 설명한다.

시나리오 내용은 시지각 경험의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우리의 일상

86) Peacocke. *op. cit.* (1992), ch. 3.

적인 시지각 경험을 떠올려보자. 이를테면, 우리는 눈을 뜨고 주위를 본 후, '내 바로 앞에 하얀 무언가(달력)가 서 있고, 그 위로는 검은 사각형의 무언가(모니터)가 빛나고 있으며, 그 좌측 하단에는 매끄러운 표면의 검은 원통(스피커)이 놓여 있다…' 와 같이 자신을 원점으로 설정하여 그어진 축들을 기준 삼아 구성된 공간으로서 시지각 경험의 내용을 표현한다.[87] 요컨대, 우리의 지각 경험의 내용 중 일부에 해당하는 시나리오 내용은 위와 같이 "지각 주체 주위의 공간을 채워나가는 방식"[88] 그 자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지각 주체가 지각 경험 과정에서 자신의 주위의 공간을 채워나가는 데 있어서 포착되는 현상적 특징은 지각 대상의 상대적인 위치만이 아니다. 피콕이 제시하는 우리의 지각 경험의 시나리오 내용에는 표면의 질감, 색상, 모양, 크기, 명도와 같은 지각 대상의 다양한 외양적 특징들도 포함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설명대로라면 시나리오 내용은 피콕의 주장처럼 비개념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만 같다. 왜냐하면 시지각 경험에서의 시나리오 내용은 '나'를 원점으로 하여 지각 대상과 그 주변 환경이 어느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거리에 위치하는지를 표상하기에, <거리>나 <방향>과 같은 특정한 사고의 단위를 전제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피콕은 이러한 생각이 시나리오 내용 그 자체와 시나리오 내용에 관한 우리의 사후적 기술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89] 앞서 보았듯, 분명 피콕은 자기 자신을 원점 삼아 그려진 가상의 축을 기준으로 지각 대상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공간처럼 받아들이는 표상을 지각 경험의 시나리오 내용으로 규정했다. 즉, 시나리오 내용은 특정한 단위의 구분 없이 주체에게 지각되는 대상과 그 주변 환경을 동시다발적으로 포착하여 총체적인 하나의 공간처럼 수용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게다가 시나리오 내용은 지각 대상과 그 주변 환경

87) 단, 이와 같은 기술은 이해를 돕기 위해 명제의 형식으로 기술되었을 뿐, 피콕에 따르면 실제 우리의 시지각 경험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 현상적 특징을 가지고 좌표 평면 상에 위치한 점을 마주하는 일 그 자체를 뜻한다.

88) Ibid. p. 61.

89) Peacocke, Christopher. "Scenarios, Concepts, and Perception". in *The Contents of Exper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111-116.

을 단일한 공간 전체의 표상을 포함하기 때문에 세밀하고 풍부한 정보들을 모두 갖는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시나리오 내용을 수용하여 처리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개념화 과정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총체적인 하나의 공간 표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지각 대상과 그 주변 환경이 주체를 원점으로 삼았을 때 어떠한 방향에 있으며, 어느 정도만큼 먼 위치에 자리하는지 등에 대한 개념적 기술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나리오 내용에 관한 사후적 '기술'에 개념이 동원되는 것일 뿐, 시나리오 내용 그 자체에 개념이 포함되는 것은 아님을 상기해야만 한다.[90]

이러한 시나리오 내용은 지각 주체의 주변에 있는 외부 대상들의 현상적 특징들을 원점과 축을 기준으로 위치시키기에, 개념적이거나 명제적이진 않더라도 옳음 조건은 가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각 주체가 유관한 개념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실제 대상과 지각 경험의 시나리오 내용이 상응하는지를 따져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각 주체가 지각을 통해 포착한 공간 내에서 실제 대상의 위치값이, 자기 자신을 원점으로 삼고 그 원점을 기점으로 뻗어나가는 축들을 토대로 이루어진 지각 경험의 표상의 좌표값이 서로 일치하는지를 따져보면, 주체 자신의 지각 경험이 옳게 이루어졌는지를 따져볼 수 있다. 그렇기에, 실제 대상과 관련된 개념들을 선제하지 않고서도 지각 주체는 자신의 지각 경험의 시나리오 내용의 옳고 그름을 검토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옳음 조건의 존재는 시나리오 내용을 포함하는 지각 경험의 내용이 주체의 개념 소유를 전제하지 않고서도 지각적 믿음이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

---

90) 피콕의 이러한 반론은 크레인의 소극적 비개념주의와 유사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 앞서 보았듯, 크레인은 어떤 그림의 내용이 개념으로 묘사되고 기술될 수 있다고 해서, 그 그림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님을 지적한 바 있다(Crane 2008). 시나리오 내용이 개념적 내용을 포함한다는 의구심에 대해, 피콕 또한 시나리오 내용에 대한 사후적 기술이 개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시나리오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인 것은 아님을 논한다는 점에서, 크레인과 피콕의 논증 방식이 유사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 내용만으로 우리의 지각 경험을 완벽하게 설명해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시나리오 내용만으로는 지각 경험의 세밀성과 풍부함까지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가 강의실 좌측 천장의 타일을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보고 있다고 해보자. 즉, 철수와 영희는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대상을 지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철수와 영희의 지각 내용은 [그림 1]처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91] 천장 타일의 모양이 다음과 같아서, 철수는 그 타일을 보고 '마름모꼴'로 지각한 반면 영희는 '정사각형'이라고 지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

그런데 시나리오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지각 경험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주체가 동일한 원점과 동일한 축들을 기준으로 동일한 타일을 지각했기에, 두 주체의 지각 경험의 시나리오 내용은 동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 앞서 보았듯, 두 주체의 실제 지각 경험은 여전히 다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피콕은 이와 같은 일상적 사례로부터 시나리오 내용과는 구분되는 또다른 유형의 비개념적 내용의 존재가 뒷받침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91) Peacocke, Christopher. *A Study of Concepts*. MIT Press (1992), p. 75. Figure 3.1.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의 두번째 유형을 “프로토명제적 내용(protopropositional content)”이라고 명명한다. 프로토명제적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다시 동일한 조건에서의 동일 대상에 관한 철수와 영희의 지각 경험 사례를 떠올려보자. 앞선 사례에서, 철수는 타일을 보고 마름모꼴이라고 지각한 반면 영희는 정사각형이라고 지각했다. 그런데 분명 두 사람의 지각 경험의 대상이 완전히 동일했으며 심지어 모든 조건까지 동일했다. 이는 곧 두 사람이 갖게 되는 지각 경험의 시나리오 내용도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두 사람의 지각 경험의 시나리오 내용은 다를 수 없기에, 지각 경험의 시나리오 내용이 아닌 별도의 유형의 내용에서 차이가 난다고 간주해야만 한다.[92]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피콕은 이러한 차이가 지각 경험의 또다른 비개념적 내용인 프로토명제적 내용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피콕에 의하면, 우선 프로토명제적 내용은 시나리오 내용과 다르면서, 동시에 개념적 내용과도 구분되어야만 하는 지각 경험의 내용이다.[93] 보다 구체적으로, 피콕이 제시하는 지각 경험의 프로토명제적 내용은 시나리오 내용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지각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맺고 있는 관계나 그 관계로부터 파생되는 속성 등을 담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념을 통해 명제화된 내용이 아닌 다른 어떤 내용을 가리킨다. 앞선 사례를 다시 살펴보자. 철수는 타일을 변의 이등분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지각하여 ‘마름모꼴’이라고 믿었고, 영희는 동일한 타일을 각의 이등분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지각하여 ‘정사각형’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명제의 형식으로 구성된 이러한 믿음이 형성되기에 앞서, 그 믿음을 형성하는 것은 분명 믿음 그 자체가 아니라 믿음과 구별되는 무언가여야만 한다.

---

92) 물론, 사실은 두 사람의 지각 경험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두 사람이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이러한 사례는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일어나기에, 이러한 사례가 오류에 해당하는 특수한 경우라고 간주하는 방식은 우리의 일상적 지각 경험을 모두 오류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이해는 배제한 채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93) Ibid., p. 77.

그런데 왜 위와 같은 내용이 지각 대상에 관한 명제적 내용과 구분되어야 하는가? 얼핏 보면, 지각 대상이 담지하는 관계 등에 관한 지각 경험의 내용은 명제의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만 같다. 하지만 피콕은 분명하게 지각 경험의 프로토명제적 내용이 개념의 소유를 선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인다. 지각 주체가 어떤 도형에 대해 그것의 변의 이등분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지각' 하는지 아니면 그것의 각의 이등분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지각' 하는지는, 그 지각 주체가 <대칭>이라는 개념을 소유하는 것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주체는 <대칭>이라는 개념을 소유할 필요 없이 그저 도형의 변과 각을 지각하고 그로부터 관계를 지각하기만 하면 될 뿐이다. 피콕은 이렇게 믿음 그 자체가 아니면서도 믿음을 형성하는 무언가를 곧 믿음을 "원시적으로 자아내는(primitively compelling)"[94] 것이라고 칭하고, 그 무언가가 바로 지각 경험의 프로토명제적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그는 지각 경험의 내용 중 지각의 개별 대상이 다른 대상들과 맺는 관계나 그러한 관계에 따른 특수한 속성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프로토명제적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피콕의 주장에 따르면, 이와 같은 프로토명제적 내용이 담지하는 지각 대상의 대표적인 관계는 '대칭(symmetry)' 이다. 이를 테면, 타일을 '정사각형' 으로 지각한 영희는 그 대상이 변의 이등분선(bisector)을 기준으로 대칭인 도형이라는 프로토명제적 내용을 갖는 지각 경험을 겪은 반면, 타일을 '마름모꼴' 로 지각한 철수는 각의 이등분선을 기준으로 대칭인 도형이라는 프로토명제적 내용을 갖는 지각 경험을 겪었기에, 서로 다른 지각 경험을 겪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피콕은 '대칭' 외에도 '휨(curved)'[95], '평행', '등거리(equidistant)', '동

94) Ibid. p.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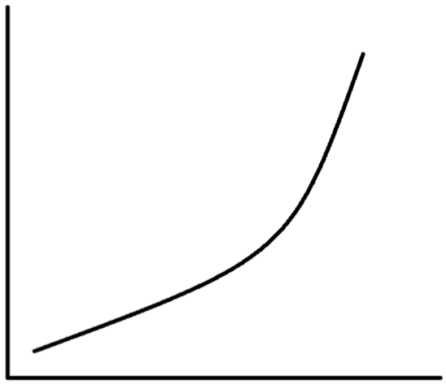
95) 피콕은 왜 '휨' 을 일상적인 시지각 경험에서 표상되는 프로토명제적 내용인지를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다. 추정컨대, 정사각형과 마름모꼴의 관계처럼, 하나의 곡선은 그 휨의 방향에 관한 프로토명제적 내용에 따라 달리 지각될 수 있기에, 피콕이 '휨' 을 프로토명제적 내용의 대표적 사례로 언급한 듯하다.

예를 들어, [그림 2]와 같은 곡선을 생각해보자. 이 곡선이 휜 방향은 우측으로 x° 볼록하게 나온 것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좌측으로 (360-x)° 오목하게 나온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 어떤 지각 주체는 위 곡선을 본 후 전자에 해당하는 프로토명

형(same shape)’과 같은 관계가 인간의 일상적인 시지각 경험에서 표상되는 프로토명제적 내용이라고 언급한다. 이렇듯, 피콕은 지각 경험의 시나리오 내용과 프로토명제적 내용이 바로 지각 경험의 내용 중에서 개념으로 구성되지 않은 비개념적 내용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살펴 보았던 소극적 비개념주의와는 달리, 피콕의 논변은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 비개념주의’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적극적 비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의 시나리오 내용과 프로토명제적 내용이라는 두 유형의 비개념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기에, 이 두 유형들에 관한 논의를 토대로 지각 경험의 특징과 본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피콕의 적극적 비개념주의가 갖는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적극적 비개념주의가 상정하는 시나리오 내용을 통해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의 주된 동기인 지각 경험의 세밀성과 풍부함을 잘 설명할 수 있다. 2장에서 보았듯,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표준적 개념주의는 개념이라는 최소 단위를 상정한다는 점에서 지각 경험의 세밀성과 풍부함을 잘 설명하지 못했다. 반면, 시나리오 내용을 상



[그림 2]

제적 내용이 포함된 지각 경험을 할 것이지만, 또 다른 어떤 지각 주체는 후자에 해당하는 프로토명제적 내용이 포함된 지각 경험을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피콕은 ‘휨’을 프로토명제적 내용으로 포착되는 대표적인 속성 혹은 관계 중 하나로 언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정한다면 별도의 개념을 거치지 않고서도 충분히 외부 대상의 미세한 특징에 관한 지각 경험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지각 주체가 자신의 앞에 놓여 있는 책상을 보았다고 해보자. 그리고 이때 비개념주의의 장점을 살펴보기 위해, 지각 주체에게 지시사적 개념을 통해 길이를 비교할 만한 다른 대상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주체가 미터나 인치와 같은 척도 개념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해보자. 이 경우, 주체의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라면, 해당 주체는 자신이 지각한 책상의 너비나 폭을 지각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피콕의 논의에 따르면, 지각 주체는 시나리오 내용을 통해 길이와 관련된 개념들을 미리 갖고 있지 않더라도 원점과 축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된 지각 대상의 좌표값을 토대로 해당 대상에 대한 정보를 표상하므로, 책상의 너비나 폭을 얼마든지 지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각 주체 자신의 두 팔을 가로로 이은 직선을 X축으로 머리와 몸통을 이은 직선을 Y축으로 두고, 두 축이 교차하는 가슴 정중앙의 점을 원점 (0,0)이라고 해보자. 주체가 길이와 관련된 개념을 전혀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지각한 책상의 너비나 폭을 해당 원점으로부터 일정한 좌표값만큼 특정 방향으로 떨어진 두 점 사이의 거리로 얼마든지 지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외부 대상의 세밀하거나 풍부한 현상적 특징을 시나리오 내용을 통해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표준적 개념주의가 잘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이자 비개념주의의 동기를 잘 해소하고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둘째로, 적극적 비개념주의가 상정하는 프로토명제적 내용은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에게 제기되어 왔던 지각적 믿음 혹은 판단의 정당화자로서의 지각 경험의 가능성을 잘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표준적 개념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의 핵심 동기를 비개념주의 진영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마련하기에, 비개념주의에게 제기되는 개념주의 측의 비판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된다. 앞서 보았듯, 표준적 개념주의자들은 우리의 일상적 사례에서 지각 경험이 지각적 믿음이나 판단의 정당화자로 기능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하여, 소여의 신화를 피하면서도 지각 경험이 지각적

믿음의 정당화자로 작동할 수 있는 인식의 메커니즘을 만들기 위해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콕의 주장을 따른다면,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라고 상정하지 않으면서도 정당화자로서의 지각 경험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피콕은 지각 경험의 프로토명제적 내용이 지각적 믿음을 "원시적으로 자아내는" 것이라고 주장했기에, 지각적 믿음이나 그 믿음으로부터 파생된 지각적 판단이 어떻게 지각 경험 그 자체에 의해 정당화되고 또 근거지어질 수 있는지를 개념적 내용을 상정하지 않고서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피콕은 프로토명제적 내용의 토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반면, 표준적 개념주의자에게는 여전히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 책임이 남아 있는 만큼, 정당화자로서의 지각 경험이라는 인식론적 동기로부터의 논증 전개에 있어서 피콕의 적극적 비개념주의가 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 3.2. 적극적 비개념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와 같이 지각 경험의 세밀성과 풍부함이라는 현상적 특징을 더 잘 설명할 수 있으면서, 더 나아가 개념주의의 동기인 지각 경험이 지각적 믿음의 정당화자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콕이 주장하는 적극적 비개념주의 또한 세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갖는다. 본 절에서는 적극적 비개념주의에 대해 제기되는 대표적인 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로, 적극적 비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의 주된 동기 중 하나인 '영유아나 동물의 지각 경험'을 설명하기가 어렵다. 물론 피콕이 주장하는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인 시나리오 내용과 프로토명제적 내용 모두 비개념적 내용이기에, 원칙적으로는 비-언어적이어서 비-개념적인 생명체인 동물과 전-언어적이기에 개념 소유에 있어서 미숙한 생명체인 영유아 모두 자신의 지각 경험의 내용으로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시나리오 내용과 프로토명제적 내용은 개념적이지는 않더라도 원점과 축을 상정하거나 지각 대상로부터 대칭 관계를 파악하는 등 비교적 복잡한 심적 과정을 거쳐서 산출된다. 따라서 인간만큼 정교한 심적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동물이나 성인에 비해 미숙한 수준의 심적 활동만 할 수밖에 없는 영유아가, 이러한 복잡한 심적 과정을 필요로 하는 시나리오 내용이나 프로토명제적 내용을 자신의 지각 경험의 내용으로 가진다고 단언하기가 어렵다.

물론, 피콕을 비롯한 적극적 비개념주의자들은, 동물과 영유아 모두 성인에 비해서는 미숙할지라도 성인이 갖는 지각 경험의 시나리오 내용과 프로토명제적 내용의 형성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산출된 내용의 지각 경험을 실제로 겪는데, 영유아나 동물의 발달 상태의 한계로 인해 이를 잘 표현하지 못할 뿐이라고 반론할 수도 있다. 즉, 영유아나 동물도 시나리오 내용과 프로토명제적 내용을 포함하는 지각 경험을 실제로 겪지만, 발달의 미숙함이나 언어의 부재 등으로 인해 그러한 지각 경험의 실재 여부를 보고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적극적 비개념주의자가 이러한 반론을 제기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이 비개념주의자에게 있는데, 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반론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영유아와 동물의 지각 경험의 내용에는 시나리오 내용과 프로토명제적 내용이 포함된다는 것이 사실임을 입증하려면, 영유아와 동물이 자신의 지각 경험의 내용을 보고할 수 있거나 혹은 관찰자인 성인이 영유아나 동물이 되어서 그 심적 상태를 진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두 선택지 모두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반론은 오히려 적극적 비개념주의자의 논변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둘째로, 적극적 비개념주의의 논의는 시지각 경험에 한정되기에 지각 경험 일반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기 어렵다. 앞서 살펴 보았듯, 피콕은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으로 시나리오 내용과 프로토명제적 내용을 제시하는데, 이 두 유형의 비개념적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두 주로 시지각 경험에서의 사례만을 언급한다. 그가 제시했던 대표적인 시나리오 내용의 사례는 지각 대상이 되는 외부 사

물의 폭이나 길이와 같은 것이었고, 프로토명제적 내용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각 대상이 되는 도형에서 포착될 수 있는 대칭 관계였다. 게다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비개념적 내용의 대표적인 사례 외에도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는 토큰들까지도 모두 시지각 경험을 통해서만 포착될 수 있는 속성이나 관계에 관한 내용뿐이라는 점에서,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피콕의 논의가 시지각 외의 다른 모든 지각 경험으로까지 일반화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물론, 우리의 지각 경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시지각 경험이다. 단적으로, 지각과 관련된 일상 언어 표현에는 압도적으로 시지각 경험을 기술하고 묘사하기 위한 표현들이 많다. 그나마 청각의 경우, 음성 언어 활동과 관련되고 음악이라는 예술 형식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청각 지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한 일상 언어가 상대적으로 많이 마련되어 있는 편이지만, 그 외의 지각 양태인 후각이나 미각, 촉각의 경우 일상 언어 표현이 수적으로 빈약하다. 이처럼 우리의 지각 경험 사례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시지각 경험이기에, 피콕의 적극적 비개념주의 또한 시지각 경험을 중심으로 그 논변을 구성했을 뿐이라는 변론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피콕이 시지각 경험 외의 다른 지각 양태에서 시나리오 내용과 프로토명제적 내용이라는 비개념적 내용의 두 유형이 어떻게 예화되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변론은 어디까지나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셋째로, 적극적 비개념주의의 논의는 결국 소여의 신화에 빠진다. 피콕은 지각 경험의 시나리오 내용과 프로토명제적 내용은 분명 명제의 형식으로 된 개념적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두 유형의 내용을 통해 지각 경험 그 자체가 우리의 지각적 믿음과 판단의 정당화자로 기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그는 지각 경험의 서로 다른 두 프로토명제적 내용이 외부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지각적 판단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제시하면서, 각각의 프로토명제적 내용은 그 주체가 갖게 되는

지각적 믿음이나 판단을 “원시적으로 자아내는”[96]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프로토명제적 내용이 어떻게 유관한 지각적 믿음이나 판단을 원시적으로 자아내는지를 피콕이 상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도형의 변과 각을 기준으로 하여 파악한 대칭 관계로부터 산출된 서로 다른 두 프로토명제적 내용에 의해 지각 주체가 동일한 지각 대상을 각각 ‘정사각형’과 ‘마름모꼴’로 다르게 지각했다고만 설명할 뿐, 왜 특정 프로토명제적 내용이 특정한 지각적 판단으로 이어지는지는 설명하지 않는다. 피콕은 지각 경험의 프로토명제적 내용과 지각적 믿음 사이의 구체적인 관계가 무엇이며 그 관계로부터 어떻게 정당화가 이루어지는지를 상세히 해명하고 있지 않다. 즉, 적극적 비개념주의자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쉽게 반론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표준적 개념주의자가 문제 삼았던 정당화자로서의 지각 경험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여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초래한다.

요컨대, 적극적 비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의 내용 중에는 비개념적 내용이 존재한다고 소극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상으로, 그 비개념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적극적 비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이 시나리오 내용과 프로토명제적 내용이라는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형언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려는 시도로서 유의미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반론들은 이러한 적극적 비개념주의를 성공적인 논증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도록 만든다. 다시 말해, 적극적 비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의 주된 동기 중 하나였던 영유아나 동물의 지각 경험을 잘 설명할 수 없고, 주로 시지각 경험에 대해서만 논의하기에 지각 경험 전반에 관한 철학적 논의로 확장하기가 어려워 보이며, 소여의 신화에 빠진다는 점에서 지각 경험의 본성에 관하여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시할 수 없기에, 적극적 비개념주의는 다소 비판의 여지가 있는 지각 경험에 관한 철학적 논

96) Ibid., p. 74.

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극적 비개념주의와 적극적 비개념주의 모두 지각 경험의 본성에 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 이에 따라, 다음 장에서는 지각 경험에 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를 종합하여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 각각에게 제기되어 온 문제들을 해결해보고자 하는 신경철학에서의 개념주의-비개념주의 양립 모델을 검토해볼 것이다.

# Ⅳ.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

본고는 앞선 장들을 통해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 및 비개념주의 이론들을 검토했다.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라고 주장하는 개념주의는 세밀성과 풍부함 같은 지각 경험의 현상적 특징을 해명하지 못하고, 재식별 가능성에 관한 지적 또한 대처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지각 경험의 본성을 규명하는 데 실패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지각 경험의 내용에는 개념 외의 무언가인 비개념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비개념주의는 세밀성과 풍부함 같은 지각 경험의 현상적 특징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성공적이지만, 지각 경험이 일상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인식론적 역할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논하지 못하고, 심지어 소여의 신화에 빠진다는 위험성을 떠안게 됨을 보았다.

이렇듯,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철학적 이론들은 나름의 장점을 분명히 갖지만 양측 모두 맹점을 갖는다. 그렇기에 만약 우리가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 양측이 공통적으로 갖는 문제를 찾아내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면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보다 나은 이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 양측이 갖는 공통의 문제는 두 입장 모두 '지각'을 모두 단일한 메커니즘으로 운용되는 심적 상태로만 이해해 왔다는 점이다.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라고 주장하기에, 지각이란 곧 그것의 모든 내용이 '개념화'라는 단일한 방식의 가공을 거친 후 모두 동일하게 처리되는 심적 메커니즘이라고 간주한다. 반면,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이라는 단일한 심적 상태에는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이라는 두 유형의 내용이 공존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지각 경험의 본성에 관한 기존의 철학적 논의들은 모두 '지각'을 단일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심적 상태로만 전제해왔기에 문제를 갖

는 것이다. 양측은 모두 단일한 그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지각 경험의 내용이 산출되어야 할 것 같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첨예한 대립을 벌여온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기존의 철학적 논의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지각 경험의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이 단일한 체계 내에서 동시에 공존한다는 식의 전제에서 벗어나서, 다른 방식으로 지각 경험의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을 모두 타당하게 설명할 수 있는 제3의 이론이 제시된다면, 이는 지각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탐구의 판도를 새롭게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본고는 지각을 단일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심적 상태로 이해하는 대신,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을 각각 산출하는 서로 다른 두 유형의 메커니즘의 연합체인 심적 상태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리고 지각에 관한 이러한 이해의 가능성을 라프토폴루스(Athanassios Raftopoulos)를 비롯한 신경철학자(neurophilosopher)가 제안하는 '이중 과정 이론(dual process theory)'[97]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라프토폴루스는 지각이 단일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단순한 심적 상태가 아니라, 복수의 메커니즘을 각 단계별로 갖는 복합적인 심적 상태라고 주장한다. 즉, 지각이라는 심적 상태 전반에 걸쳐 '개념화'라는 단일한 메커니즘이 작동하여 개념적 내용을 산출해낸다고 주장하는 개념주의나 지각이라는 하나의 심적 상태 내에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이 동시에 공존한다고 주장하는 비개념주의와는 달리, 라프토폴루스의

97) 본고에서는 라프토폴루스의 논의를 "이중 과정 이론"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프릭시온(Marcello Frixione)과 리에토(Antonio Lieto)는 인지심리학과 뇌과학, 신경철학 등에서 지각 경험이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을 각각 산출하는 두 유형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다양한 논의들을 "이중 과정 이론"이라고 명명한다. 이러한 명명과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Frixione, Marcello., and Lieto, Antonio. "Concepts, Perception, and the Dual Process Theories of Mind". *The Baltic International Yearbook of Cognition, Logic and Communication* 9 (2014)를 참고하라.

물론 라프토폴루스 스스로 자신의 논의를 "이중 과정 이론"이라고 명명하진 않았으나, 필자는 그의 논의가 지각 경험을 서로 다른 두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프릭시온과 리에토가 제시한 "이중 과정 이론"의 전형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고에서는 이후 라프토폴루스의 논의를 "이중 과정 이론"라고 지칭할 것이다.

이중 과정 이론은 우리가 흔히 '지각'이라고 단일하게 부르는 심적 상태가 사실은 '지각$_1$', '지각$_2$'처럼 각기 다른 메커니즘으로 그 내용을 산출하는 복수의 과정들의 연합체로 전제한다.[98] 이처럼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하여 라프토폴루스가 제시하는 이중 과정 이론은 지각이라는 심적 상태를 보다 새롭게 규명해내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그렇기에 필자는 라프토폴루스의 '이중 과정 이론'이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기존의 철학적 논의들과는 차별화된 대안적 이론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주장을 위해, 본 장에서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라프토폴루스의 이중 과정 이론의 핵심 논변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먼저 이중 과정 이론에서 논하는 접근법이 배경으로 삼고 있는 인지과학에서의 연구를 간략히 살펴본 후, 그러한 인지과학적 배경으로부터 라프토폴루스가 이중 과정 이론이라는 이름 하에서 어떠한 논증을 펼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중 과정 이론에 제기되는 대표적인 몇몇 철학적 비판들을 살펴보고, 라프토폴루스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재반론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중 과정 이론의 타당

98) 개념주의/비개념주의의 지각 규정과 이중 과정 이론의 지각 규정 사이의 차이를 마음의 모듈성(modularity of mind)을 토대로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 몸의 여러 장기가 각각의 기능에 따라 서로 다른 역할을 하듯, 포더는 인간의 마음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주체의 심적 활동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국소적인 단위인 '모듈'이 여럿 모여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포더는 마음을 구성하는 모듈의 아홉 가지 특징을 제시하는데, 그 중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캡슐화(encapsulation)'이다. 개별 모듈은 각각의 체계 내에서만 정보를 처리하는 단위이기에 일종의 캡슐처럼 처리하는 정보에 있어서 밀봉되어 있다는 점에서 '캡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캡슐화에 의한 정보 밀봉성은 서로 다른 모듈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지각에 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의 규정은 지각을 단일한 모듈로만 구성된 심적 상태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개념주의는 지각이 개념적 내용만을 처리하는 단일한 모듈이라고 주장하고, 비개념주의는 지각이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을 동시에 처리하는 단일한 모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반면, 이중 과정 이론은 지각을 서로 다른 두 모듈로 구성된 심적 상태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왜냐하면, 후술하겠으나 이중 과정 이론은 지각이 서로 다른 성격의 내용을 각각 산출하는 두 단계의 과정이 연합된 심적 상태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기존의 철학적 입장들과 본고에서 옹호하는 이중 과정 이론이 차이를 보이는 '지각'에 관한 규정 방식은 마음의 모듈성을 토대로 논의될 수도 있다.

마음의 모듈성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Fodor, Jerry. *The Modularity of Mind*. The MIT Press (1983)을 참고하라.

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각 경험에 관한 기존의 철학적 논의인 개념주의나 비개념주의와 달리, 이중 과정 이론이 고유하게 갖는 장점들을 간략하게 제시할 것이다.

## 1. 이중 과정 이론의 인지과학적 배경: 마의 연구를 중심으로

지각 경험에 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옹호하기 위해 이중 과정 이론을 제시하는 신경철학자들은 인지과학이나 심리학, 신경생리학 등의 경험과학에서 지각에 관하여 이루어지는 연구들을 그 근거로 삼는다. 각 분과 학문이 취하는 방법론이나 연구자의 고유한 태도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지각 경험에 관한 경험과학에서의 최근의 논의들은 지각이 오직 한 단계로만 구성된 메커니즘을 따르는 심적 상태가 아니라 복수의 단계들로 구성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심적 상태라는 데 모두 동의한다. 이는 지각 경험의 본성에 관한 신경철학자들의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가 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신경철학이 주창하는 이중 과정 이론의 배경이자 전제가 되는 경험과학의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지각에 관한 인지과학 연구들의 출발점이 되고 있는 마(David Marr)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는 심리학과 신경생리학의 논의를 토대로 시지각에 관하여 탐구함으로써, "시지각에 대한 계산주의 이론(computational theory of vision)" 을 주장한다.[99] 마의 시지각에 대한 계산주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시지각 과정은 마치 컴퓨터와 같은 계산 기계의 정보 처리 과정과 유사하다. 즉, 컴퓨터가 사전에 설정된 여러 단계에 따라 입력된 정보값을 처리하듯, 인간도 여러 단계로 구성된 시지각 메커니즘에 따라 외부

99) Marr, David. *Vision: A Comput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Human Representation and Processing of Visual Information*. MIT Press (1982)

의 물리적 대상에 대한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각 주체가 외부 대상을 보면 그 대상에게서 반사된 빛이 주체의 망막 및 수정체를 통해 수용되어서 시각적 정보를 발생시키는데,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시지각의 각 단계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마가 컴퓨터와 인간의 시지각을 유비하고 있기에[100], 우리도 컴퓨터라는 계산 기계의 정보 처리 과정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컴퓨터는 입력(input) - 계산(computation) - 출력(output)의 과정으로 정보를 처리한다.[101] 첫째, 외부의 사용자로부터 처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전달받아 수용하는 단계를 "입력"이라고 부른다. 둘째, 입력된 정보를 원하는 방식으로 연산하여 처리하는 단계를 "계산"이라고 부른다. 셋째, 계산된 정보를 외부의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전달하는 단계를 "출력"이라고 부른다. 예컨대, 마우스나 키보드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값을 컴퓨터에 넣는

---

100) 컴퓨터의 계산 과정과 인간의 시지각을 유비하는 기획에 대해, 해당 기획이 직접적인 경험적 근거 없이 마에 의해 임의적으로 설정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획은 1960년대 이후 컴퓨터공학을 중심으로 여러 공학자들에 의해 "머신 비전(machine vision)" 혹은 "컴퓨터 비전(computer vision)"이라는 이름의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에서. 마의 임의적인 기획이 아니라 공학 내에서의 자연스러운 한 흐름의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컴퓨터 비전의 주된 목표는 공학의 관점에서 인간의 시지각 체계를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된 인간의 시지각 체계를 자동화하여 기계에게도 적용시키는 것이다. 컴퓨터 비전 연구자는 인간의 시지각 과정을 일종의 계산 메커니즘으로 일반화한다. 예컨대, 컴퓨터 비전 연구자는 관찰을 통해 주체의 시지각이 일종의 '장면 분석' 과정과 유사하기에 기하학적 계산 메커니즘으로 치환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컴퓨터 비전의 대표적인 초창기 논의로는 주체의 시지각을 장면 분석이라는 기하학적 계산 메커니즘으로 간주하는 Boden, Margare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tural man*. Basic Books (1977)이 있다.

컴퓨터 비전 연구에 의하면, 주체는 자신이 지각하는 대상과 그 주변 환경을 총체적으로 포함하는 하나의 장면을 점, 선, 면과 같은 기하학적 요소들로 환원시켜 받아들인다. 그리고 점, 선, 면과 같은 기하학적 요소로 환원된 지각 대상과 그 주변 환경은 주체의 지각 체계 내에서 2차원이나 3차원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조합된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산출된 여러 조합들이 곧 전체 장면과 그 장면 내의 여러 부분들에 대한 분석의 근거가 된다. 이와 같이 마가 연구를 진행했던 당대의 컴퓨터 비전의 기획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은 McArthur, David. "Computer Vision and Perceptu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2 (1982)를 참고하라.

101) 물론 이는 컴퓨터의 작동 메커니즘을 아주 단순하게 나타낸 것이기에 세 단계로 표현된 것일 뿐, 실제로 컴퓨터의 입력과 계산과 출력이라는 각각의 정보 처리 과정은 다수의 세부적인 하위 단계들로 구성된다.

것은 입력 단계에 해당하고, 이렇게 입력된 정보를 특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짜여진 소프트웨어가 처리하는 것은 계산 단계에 해당하며, 계산이 완료된 정보를 모니터나 스피커와 같은 장치로 사용자에게 제시하는 것은 출력 단계에 해당한다. 이렇듯, 모든 컴퓨터는 위와 같은 세 단계의 정보 처리 과정을 따른다.

마는 인간의 지각 경험도 이러한 컴퓨터의 정보 처리 과정과 유사하게 복수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는 인간의 시지각 경험도 컴퓨터처럼 세 단계로 구성된다고 논한다. 우선, 빛이 외부 대상의 표면에서 반사된다. 그렇게 반사된 빛은 지각 주체의 감각 기관인 눈의 망막 및 수정체를 통해 시각적 정보로서 수용된다. 이 수용의 과정으로부터 시지각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된다. 마의 구분에 따르면, 이러한 시지각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이 망막을 통해 수용되면서 발생한 정보를 토대로 "1차 스케치(primal sketch)"[102]가 주체에게 표상된다. 1차 스케치란 대상의 윤곽이나 명암, 투명도 등과 같은 매우 대략적인 특징의 존재 여부만을 탐지해낸 정도의 표상을 뜻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마는 초기 스케치가 대상으로부터 반사된 빛에 의해서 지각 주체의 시각 기관에 입력된 정보의 강도 변화, 혹은 대상의 명암, 투명도와 같은 매우 대략적인 현상적 특징의 존재 유무를 담지한 표상이라고 규정한다.[103] 예컨대, 일반적으로 지각 주체가 외부 대상을 보면, 가장 먼저 그 대상의 윤곽이나 밝기 등을 사물에 대한 대략적인 스케치처럼 어렴풋이 마음 속에 품게 되는데, 이것이 시지각의 첫 번째 단계에서 표상된 "1차 스케치"라는 것이다.

그 다음, 눈이라는 감각 기관을 통해 수용된 정보는 시지각의 두 번째 단계를 거치게 된다. 마의 실험과 관찰에 따르면, 시지각의 두 번째 단계에서 지각 주체는 수용된 정보를 가지고 대상의 가시적인 표면에 대한 기하학적 표상을 도출해낸다. 마는 이렇게 시지각의 두 번째 단계에서 산출된 기하학적 표상을 "2½ 차원 스케치(2½-dimensional sketch)"라고 명명한다.[104] 마는 이러한 2½ 차원 스케치의 구체적인 사

102) Marr. *op. cit.*, p. 42.
103) Ibid., p. 52.

례로 대상과 지각 주체 사이의 방향(orientation)이나 대상의 가시적인 두께(depth)를 언급한다. 앞서 보았던 시지각의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된 초기 스케치가 대상의 명암이나 투명도와 같이 매우 대략적이고 모호한 정보에 한정되었다면, 2½ 차원 스케치는 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관계적인 특징까지 포착한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다만, 2½ 차원 스케치는 시지각의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된 초기 스케치보다는 더 복잡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망막을 기준점 삼아 수용된 (retinocentric) 물리적 속성에 국한된 정보만을 포함하고 이 정보가 대상의 특징을 대략적으로만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초기 스케치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마는 시지각의 세 번째 단계에서 지각 주체가 "3차원 모델(three-dimensional model)" 이라고 부를 수 있는 표상을 갖게 된다고 설명한다.[105] 마의 논의에 따르면, 시지각 경험의 세 번째 단계에서 지각 주체는 앞선 단계에서 산출된 2½ 차원 스케치를 활용하여, 외부 대상을 중심에 둔 시야각 내에서 포착되어 표상된 3차원의 상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해, 앞선 두 단계에서 산출된 초기 스케치와 2½ 차원 스케치가 지각 대상의 명암이나 투명도 혹은 대상과 주체 사이의 방향 정도의 대략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하기 어려운 정보만을 포함했다면, 시지각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지각 주체가 본 모든 정보들이 총체적으로 결합되어 3차원 모델이라는 단일한 3차원의 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의 명암이나 방향처럼 대개 모호하고 대략적으로 포착되는 특징은 물론이고 대상의 질감이나 형상, 색조 등의 세밀한 특징들까지도 모두 지각 주체에게 포착될 수 있다. 게다가, 마는 삼차원 모델에 포함되는 내용은 단지 지각 대상의 특징이나 속성만이 아니라고 덧붙인다. 지각 주체가 시지각을 통해 갖게 되는 3차원 모델은 눈을 통해 보고 있는 특정한 대상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정보만이 아니라, 그 대상 주변의 다른 모든 대상들이나 배경 등의 속성으로부터 비롯되는 정보들까지도 삼차원 모델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

104) Ibid., p. 42.
105) Ibid., pp. 302-303.

바로 이 지점에서 시지각의 세 번째 단계와 앞선 두 단계가 결정적으로 구분된다. 마는 3차원 모델이 지각 대상 그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물이나 배경에 관한 정보까지 포함할 수 있는 이유를 '인지적 침투(cognitive penetration)' 가능성으로 꼽는다. '인지적 침투'란, 믿음이나 의도처럼 개념적 내용을 갖는 심적 상태를 포함하는 인지가 주체의 지각 경험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뜻한다.[106] 마는 이러한 인지적 침투가 시지각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 시지각의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단지 지각 대상 그 자체의 가시적인 부분들로부터 산출된 정보만이 아니라 그 대상 주변의 다른 모든 대상들이나 배경 등에 관한 정보와의 비교를 통해 추론 가능한 정보들까지도 포함된 상이 3차원 모델로서 산출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마는 지각 주체가 사전에 가지고 있던 배경지식과 대조하여 추론되거나 상정된 정보까지도 3차원 모델의 산출에 이바지한다고 덧붙이기까지 한다.[107] 이렇듯, 시지각의 세 번째 단계는 앞선 두 단계와 달리 지각 경험의 내용의 산출에 있어서 인지가 개입한다는 점에서, 지각이라는 심적 상태에 속하는 하나의 세부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인지적 침투가 가능하다. 시지각의 세 번째 단계와 첫 두 단계 사이의 이러한 본질적인 차이로부터, 마를 비롯한 많은 인지과학자들은 지각을 크게 두 유형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심적 상태라고 규정하기 시작한다. 즉, 지각은 인지적 침투가 불가능한 내용을 산출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첫 번째 유형과, 인지적 침투가 가능한 내용을 산출하는 과정에 해당

106) 인지적 침투에 관한 위와 같은 정의는 지각과 인지에 대해 연구하는 대부분의 심리철학자들과 인지과학자들 모두에게 통용된다. 이를테면, 필리쉰(Zenon Pylyshyn)은 어떤 지각 경험이 인지적 침투가 가능한 상태라면, 믿음이나 예상 혹은 가치 판단 등과 같은 인지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된 방식으로 해당 지각 경험의 내용을 변화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Pylyshyn, Zenon. "Is vision continuous with cognition? The case for cognitive impenetrability of visual perception". *Behav Brain Sci* (1999), p. 343.를 참고하라.

인지적 침투에 관한 이러한 규정은 다수의 철학자들에 의해서도 유사하게 제시된다. 버뮤데즈나 라프토폴루스, 토리비오, 뮐러, 맥퍼슨, 스톡스 등이 모두 인지적 침투를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인지적 침투에 관한 유사한 정의를 심리철학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제시한다는 차이를 가진다. 신경철학자들의 인지적 침투에 관한 정의는 바로 다음 절에서 후술할 것이다.

107) Marr. *op. cit.*, pp. 313-317.

하는 두 번째 유형이 결합되어 이중 과정으로 진행되는 심적 상태라는 것이다.[108] 요컨대, 마의 기획은 시지각 경험 내에 서로 다른 세 단계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이때 시지각 경험의 세 번째 단계와 초반 두 단계를 구분 짓는 기준이 해당 단계가 산출하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인지적 침투'의 가능 여부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는 니시하라(Keith Nishihara)와의 연구를 비롯하여, 주로 시지각 사례에 대한 관찰을 통해 자신의 기획을 뒷받침하고자 했다.[109] 그러나 애석하게도 마는 연구의 타당성을 더 강하게 증명하는 경험적 근거들을 발견하기 전에 백혈병으로 인해 사망하고 만다. 그렇지만 마의 기획은 인지과학과 심리학, 신경생리학 등에서 인간의 지각에 관한 탐구의 주된 논제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후속 연구의 단초가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자연과학 내의 다양한 방식으로 마의 기획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려는 시도들이 제기되어 왔다.

가장 먼저, 신경생리학에서는 감각을 통해 수용된 정보를 뇌에서 처리하는 부분이 단지 수용된 그 정보에 반응하는 세포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마의 기획을 지지한다. 생리학자 안데르센(Andersen)과 에식(Essick)과 시겔(Siegel)은 뇌의 후두정피질(posterior parietal cortex, 이하 PPC)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시지각의 다른 요소에 전기적 반응을 보이며, 그 반응 유형에 따라 세포들을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110] 이들의 연구에 의하면, 운동하는 물체에 대한 시지각 사례에서 PPC를 구성하는 세포들 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

---

108) 이렇게, 지각을 이중 과정으로 구성된 심적 상태로 간주하는 인지과학자들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다. Stanovich, Keith., and West, Richard.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soning: Implications for the rationality debate?".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000)나 Evans, Jonathan., and Frankish, Kieth(eds.). *In Two Minds: Dual Processes and Beyo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혹은 Kahneman, Daniel. *Thinking, fast and slow*. Farrar, Straus and Giroux (2011)이 대표적이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지과학에서의 이중 과정 이론을 조망하는 Frixione and Lieto. *op. cit.*를 참고하라.

109) Marr, David. and Nishihara, Keith. "Representation and Recognition of the Spatial Organization of Three-Dimensional Shapes". *Proc. Roc. Soc. B.* 200 (1978)

110) Andersen, Richard., Essick, Greg., and Siegel, Ralph. "Encoding of Spatial Location by Posterior Parietal Neurons". *Science* (1985)

하는 약 15%의 세포는 그 물체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안구의 위치변화에 따라서만 전기신호를 산출했고,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약 21%의 세포는 안구의 위치 변화나 방향(orientation)에 반응하진 않았으나 다른 여러 요인들에 의해 망막위상좌표(retinotopic coordinates)[111] 상에서 전기신호를 산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PPC를 구성하는 세 번째 유형의 세포이다. PPC를 구성하는 세포들 중 약 57%의 세포는 안구의 위치 변화나 방향으로부터 산출된 전기신호로부터 비롯된 정보와 망막위상좌표 상에서 활성화된 다른 좌표값들로부터 발생한 정보를 결합했다.[112] 이러한 생리학적 발견은, 뇌에서 시지각을 담당하는 부분 내에 마가 언급한 "2½ 차원 스케치"를 구성하는 아주 기초적인 정보를 전담하는 유형의 세포와 "2½ 차원 스케치"를 "3차원 모델"로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유형의 세포가 별도로 존재함을 시사한다. 더 나아가, 이 두 유형의 세포로부터 도출된 정보를 결합시키는 과정을 담당하는 유형의 세포가 앞선 두 유형의 세포와 물리적으로 인접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시지각이 단순히 자극에 의한 정보 수용만으로 그치지 않고 수용된 정보들을 결합하는 일종의 인지 과정의 개입을 받는다는 것을 함축한다.

둘째로, 베이즈주의에 기반하여 인간의 지각을 이해하려는 통계학자와 수학자가 마의 모델을 지지한다. 크닐(David Knill)과 리차드(Whitman Richard)로 대표되는 자연과학자들은 지각을 베이즈 추론(Bayesian inference)의 일종으로 간주한다.[113] 통계학과 수학적 확률론에서 베이즈주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주어진 정보로부터 새로운 결론을 합리적으로

---

111) 망막위상좌표(retinotopic coordinates)란, 뇌에서 시지각 체계를 담당하는 부분을 하나의 좌표계로 재구성한 것을 가리킨다. 이때 해당 좌표계 내의 개별 좌표값은 그 좌표값에 해당하는 뇌의 부분을 발화시키고 흥분시키는 망막 상의 특정한 위치와 대응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Bridge, Holly. "Mapping the visual brain: How and Why". *Eye* 25 (2011)을 참고하라.

112) 이때, 안데르센, 에식, 시겔이 제시한 세 유형의 세포만이 PPC를 구성한다고 혼동해서는 안된다. 이들이 구분한 PPC의 세 유형에 해당하는 세포들의 비율의 총합은 93%이다. PPC에는 시지각과 연관된 세포들이 대다수이지만, 그렇지 않은 세포도 일부 존재한다.

113) Knill, David., et al;, *Perception as Bayesian Infer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도출해내는 사고 과정을 뜻하는 추론의 의미를 보다 구체화하여, 대상에 대해 주체가 갖고 있는 가설이나 지식으로부터 계산되는 사전 확률(priori probability)을 감각을 통해 새롭게 수용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수정하고 갱신하여 보다 더 정확한 사후 확률(posterior probability)을 도출하는 과정으로서 추론을 규정한다.[114] 그래서 베이즈 추론으로서의 지각을 옹호하는 이들은, 외부 대상에 관한 주체의 지각 경험이란 곧 주체가 그 대상에 관해 사전에 갖고 있던 가설이나 지식을 수용된 정보를 토대로 보정해나가는 추론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즉, 크닐과 리차드를 비롯한 베이즈주의자들은 지각 경험의 결과로 주체에게 주어진 것이 감각 기관을 통해 즉각적으로 수용된 정보 그 자체가 아니라 주체가 지각 대상에 대해 갖고 있던 가설이나 사전 지식의 개입을 통해 보정된 결과물이라고 간주한다는 점에서, 시지각의 세 번째 단계에서의 인지적 침투 가능성을 주장하는 마의 기획은 통계학과 수학에서 설명력 있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베이즈주의와 매우 정합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베이즈주의자들은 지각에 관한 마의 모델을 옹호한다.

한편, 지각의 다중양상성(multimodality of perception)이라는 특징을 근거 삼아 마의 기획을 긍정하는 인지과학자들도 있다. 우리의 일상적 지각은 단일한 양태로만 구성되기도 하지만, 때때로 여러 양태가 단일한 경험 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또는 특정한 양태의 지각 대상이 다른 양태로 포착되어 경험되기도 한다. 예컨대, “푸른 종소리”[115]와 같은 사례를 떠올려보자. 종소리라는 단일한 소리 사건에 대해, 지각 주체는 시지각과 청지각을 모두 경험하고 있으며, 심지어 종소리는 분명 청지각의 대상임에도 시지각의 대상처럼 경험되고 있다. 흔히 공감각 사례라고 불리는 지각의 다중양상성 사례는 지각 경험 사례에서 일상적으로 자주 나타난다. 샴즈(Laden Shams)와 카미타니(Yukiyasu Kamitani)와 시모조(Shinsuke Shimojo)는 관찰을 통해 이와 같은 지각의 다중양상성에

114) 베이즈주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영의. 『베이즈주의 - 합리성으로부터 객관성으로의 여정』. 한국문화사 (2020)을 참고하라.

115) 이 구절은 김광균이 1935년에 발표한 시 「외인촌」의 마지막 구절의 일부로서 공감각적 심상을 나타낸 시적 표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관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했다.[116]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시지각은 다른 지각 양태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 이들은 피실험자에게 여러 차례의 비프음을 들려주는 동시에 한 번의 섬광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상황을 여러 차례 반복한 후, 피실험자에게 한 번의 섬광을 보여준 다음 빛의 잔상이 망막에 남아있을 때 두 번의 비프음을 들려주자, 피실험자는 두 번의 섬광을 보는 경험을 겪었다. 즉, 실제로 섬광이라는 시지각 대상은 한 번만 제시되었음에도, 이후 제시된 비프음이라는 청지각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피실험자는 자신의 지각 경험을 섬광에 대한 세 차례의 시지각 경험으로 보고한 것이다.[117] 이처럼 한 양태의 지각이 다른 양태의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 결과로부터, 많은 인지과학자들은 지각의 다중양상성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각 메커니즘이 외부로부터 수용된 정보를 실시간으로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감각 양상으로부터 산출된 정보를 선제해야만 한다고 간주한다.[118]

---

116) Shams, Laden., Kamitani, Yukiyasu,, and Shimojo, Shinsuke. “What you see is what you hear”. *Nature*. Vol. 408 (2000).

117) 샴즈 외 2인의 실험이 피실험자에게 비프음과 섬광을 연달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실험자에 의해 임의로 서로 다른 양태의 두 자극 사이의 관계가 단기로 설정되어, 지각의 다중양상성 사례에 관한 함축을 제시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경험과학적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제시된다는 점에서 샴즈 외 2인의 해석은 타당해보인다. 예컨대, 사엔즈(Melissa Saenz)와 코크(Christof Koch)는 일련의 비프음을 특정한 패턴으로 들려준 후 유사한 연쇄되는 일련의 섬광을 보여주거나 일련의 섬광을 특정한 패턴으로 보여준 후 유사한 패턴으로 연쇄되는 일련의 비프음을 들려주는 과정을 개인별 100회 이상 시행했다. 이 실험에서 공감각 경험을 스스로 보고하지 않은 일반인 피실험자의 경우 섬광과 비프음 사이의 유사성 판단에 있어서 사실상 추측에 가까운 56.3%의 정확도를 보였으나, 공감각 경험을 스스로 보고한 피실험자의 경우 75.2%의 정확도를 보였다. 즉, 시각-청각의 공감각을 경험하는 이들은 소리에 대한 지각 경험으로부터 시지각 표상을 형성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례에서 일반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정확성을 보인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Saenz, Melissa; Koch, Christof. “The sound of change: visually-induced auditory synesthesia”, *Current Biology Volume* 18, Issue 15 (2008)를 참고하라.

118) 브루멘(Jean Vroomen), 베텔손(Paul Bertelson), 겔더(Beatrice de Gelder) 등과 같은 인지과학자가 이러한 입장을 취한다. 예컨대, 베텔손과 겔더는 복화술(ventroqulism)을 사례로 다중양상적 지각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제된 정보를 필요로 한다고 논한다. 지각의 다중양상성에 관한 개괄적 논의는 Bertelson, Paul., and Gelder, Beatrice. “The psychology of multimodal perception”. In *Crossmodal Space and Crossmodal Atten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를 참고하라.

이러한 시사점은 지각 경험의 본성에 관해 논하는 심리철학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루어졌던 지각 경험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논의들은 대체로 지각을 그저 단일한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심적 상태로만 간주했으며, 더욱이 지각은 인지와 구분되는 별도의 심적 상태로서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개입하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보았듯, 마의 가설로부터 이러한 상정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더 나아가 지각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이해의 가능성이 제기되기 시작했기에, 이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철학적 논의를 개진하는 최근의 심리철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마의 연구를 배경 삼아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하여 새로운 철학적 입장을 제시하는 신경철학자들의 이론을, 라프토폴루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2.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

인지과학과 신경생리학, 심리학 등의 경험과학적 논의에 기반하여 지각을 비롯하여 인간의 심적 상태 전반에 관한 철학적 탐구를 시도하는 최근의 몇몇 철학자들은 스스로를 신경철학자라고 부른다. 그 중 라프토폴루스(Athanassios Raftopoulos)는 앞서 살펴본 마의 연구를 배경 삼아,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 사이의 논쟁에서 새로운 철학적 논의를 개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철학자이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라프토폴루스의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라프토폴루스는 마의 연구를 단초 삼아 인지적 침투의 가능성/불가능성[119]을 기준으로 지각 경험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기에, 먼저 이러한

119) 본고에서 논하는 “인지적 침투 가능성”과 “인지적 침투 불가능성”은 후술되는 내용을 고려하면 사실상 ‘인지가 지각에 침투하지 않음’과 ‘인지가 지각에 침투함’이라는 의미에 가까워 보이기에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지적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이중 과정 이론은 지각의 초기 단계의 내용에는 아직 인지가 침투되진 않았지만, 지각 경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그 내용에는 끝내 인지가 침투될 것이기에 인지적 침투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어폐가 있어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은 지적은 지각의 초기 단계의 내용의 경우 매우 풍부하고 세밀해서 인지가 침투되

구분의 기준이 되는 ‘인지적 침투’의 의미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라프토폴루스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있어서 인지적 침투 가능성과 인지적 침투 불가능성에 관한 기존의 철학적 규정들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조금 더 일반화된 ‘인지적 침투’의 규정을 제시한다. 우선, 라프토폴루스는 맥퍼슨(Fiona Macpherson)과 스톡스(Dustin Stokes), 그리고 시겔(Susanna Siegel)의 규정을 참고한다.

> 맥퍼슨: 만약 지각 사례와 관련된 특정한 사실들, 즉, 감각 기관에서의 근위 자극(proximal stimulus)의 본질과 감각 기관의 상태, 그리고 주체의 주의 초점(attentional focus)이 고정되었을 때 자신의 인지 체계의 차이로 인해 두 주체가(혹은 서로 다른 두 시점에서의 한 주체가) 서로 다른 두 경험을 갖는 게 불가능하다면, 지각 경험은 인지적으로 침투 불가능하다.[120]

> 스톡스: ‘지각 경험 E에 욕구가 침투 가능하다.’는 다음의 두 조건의 연언을 필요충분조건으로 갖는다:
> (1) 지각 경험 E가 어떤 욕구 D에 인과적으로 의존한다.
> (2) 지각 경험 E와 욕구 D 사이의 인과적 연결이 내재적

---

지 않았으나 이 내용이 일정한 심적 과정을 통해 인지가 침투할 수 있게 재가공되어 지각의 후기 단계로 투입된다는 이중 과정 이론의 설명과 잘 부합한다는 점에서, 신경철학의 입장에서 검토가 필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고는 신경철학자들이 “인지적 침투 가능성/불가능성”이라는 표현을 통해 함축하고자 했던 바를 고려하면 해당 표현이 여전히 적절하다고 평가하고자 한다.

신경철학자들은 포더로부터 비롯된 ‘마음의 모듈성’을 전제로 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포더는 인간의 마음이 복수의 ‘모듈’이 모여 구성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Fodor. *op. cit.*) 신경철학자들은 지각과 인지를 완전히 독립된 별개의 심적 과정이라고 전제하기에, 포더의 논의를 통해 말하자면 지각과 인지는 별도의 모듈(module)이다. 따라서, 신경철학자들이 “인지적 침투 가능성/불가능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자신들의 논의에 따르면 지각이 그 자체로 정보에 있어서 밀봉된 모듈임에도 불구하고 인지가 그 밀봉 상태를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함축이 도출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표현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해볼 수 있을 것이다.

120) Macpherson, Fiona. “Cognitive Penetration of Colour Experience: Rethinking the Issue in Light of an Indirect Mechanism”.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84. (2012), p. 29.

(internal)[121]이다.[122]

121) 지각 경험 E와 욕구 D 사이의 인과적 연결이 "내재적"이라는 조건은, 스톡스에 의하면 지각 경험 E와 욕구 D가 직접 연결된 일련의 심적 사건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스톡스는 욕구 D로부터 지각 경험 E가 직접 비롯되거나, 지각 경험 E가 직접 욕구 D를 충족시킬 때에만 둘 사이의 인과적 연결이 "내재적"이라고 간주한다.

예컨대, 스톡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례들은 지각 경험과 욕구 사이의 인과적 연결이 내재적이지 않고 외재적인 경우이다. 먼저, 주체가 '무지개를 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약을 흡입한 경우를 떠올려보자. 이 경우, 마약으로 인한 환각 현상에 의해 주체는 무지개를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례는 해당 주체가 정말로 빛이 굴절되어 발생한 무지개 그 자체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약 흡입에 의해 발생한 신경 반응으로부터 비롯된 환각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지각 경험과 욕구 사이에 '마약'이라는 매개물이 존재하기에 내재적이지 않다.

또한, 주체가 '강아지를 보고 싶다.'라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집 앞 마당에서 뛰어놀고 있는 강아지를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강아지"를 검색하여 강아지 사진을 보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 주체의 욕구가 시지각 경험에 의해 충족되긴 했지만, 강아지를 직접 보는 시지각 경험으로부터 그 욕구가 충족된 것이 아니라 강아지의 사진을 구현한 스마트폰의 화면을 보는 시지각 경험에 의해 충족된다. 즉, 주체의 욕구는 강아지에 관한 지각 경험이 아니라 스마트폰에 의해 매개된 지각 경험에 의해 충족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스톡스는 이 사례 또한 지각 경험과 욕구 사이의 인과적 연결이 내재적이지 않다고 논한다. Stokes, Dustin. "Perceiving and Desiring: A New look at the Cognitive Penetrability of Experience". *Philosophical Studies* 158 (2012), pp. 480-481.

122) 스톡스는 인지적 침투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로 "욕구적 침투(Orectic penetration hypothesis, 이하 OPH)"에 관한 논변을 제시한다. 스톡스가 보기에, 모든 인지적 상태가 지각 경험의 내용에 침투될 수 있는지를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욕구의 경우 분명히 지각 경험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스톡스는 적어도 인지적 상태 중 욕구 그 자체나 소망(hope), 바람(wish), 선호(preference)처럼 욕구와 유사한 심적 상태만큼은 주체의 지각 경험에 침투될 수 있다는 OPH를 세우고 이를 논증하고자 한다. 스톡스는 자신의 논문 후반부에서 이러한 OPH가 참임을 증명함으로서, 적어도 욕구라는 인지적 상태만큼은 지각 경험에 인지적으로 침투할 수 있음을 보여서, 지각 경험이 전적으로 인지적으로 침투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과정에서 스톡스는 보다 구체적인 논증을 위해 명시적으로 욕구에 한정하여 지각 경험에의 침투 가능성을 논하지만, 라프토폴루스는 이러한 스톡스의 논의가 별 문제 없이 인지적 침투 전반에 관한 논의로 일반화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래서, 라프토폴루스는 자신의 논문에서 스톡스가 제시한 "욕구적 침투" 개념의 정의를 임의로 인지적 침투에 관한 정의로 변용하여 간접 인용한다. 이 간접 인용은 Raftopoulos, Athanassios. "The cognitive impentrability of the content of early vision i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purely nonconceptual content". *Philosophical Psychology* (2014), p. 6.에서, 스톡스의 원문은 Stokes. *op. cit.*, p. 480.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필자 또한 라프토폴루스처럼 스톡스가 "욕구적 침투"를 정의하는 방식이 욕구 외의 다른 인지적 상태까지도 포함하는 인지적 침투의 정의로서 자연스럽게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스톡스와 라프토폴루스의 논의가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본고에서는 스톡스의 논의를 임의로 인지적 침투에 관한 정의로 일반화시켜 인용한 라프토폴루스의 문장을 재인용하지 않고 스톡스의 원문을 인용했다.

> 시겔: 만약 시지각 경험이 인지적으로 침투 가능하다면, 두 주체가(혹은 서로 다른 두 반사실적 상황들이나 서로 다른 시간에서의 동일한 주체가) 동일한 외적 조건들 하에서 동일한 원위 자극(distal stimulus)을 보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서로 다른 내용의 시지각 경험을 하는 게 법칙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123]

즉, 맥퍼슨은 감각 기관을 통해 정보가 수용되는 조건들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어서 지각에 입력되는 정보가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주체의 지각과 연관되는 두 인지적 상태 사이에 차이가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의 지각 경험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었다면, 해당 지각 경험은 인지적으로 침투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스톡스는 어떤 지각 경험이 특정한 욕구를 원인 삼아 비롯되었고, 그러한 인과 관계가 관찰자 등에 의해 외부적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주체 자신의 마음 안에서 내적으로 성립된 것이라면, 해당 지각 경험은 욕구가 침투 가능한 지각 경험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맥퍼슨의 정의와 유사하게, 시겔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외부 자극이 지각 메커니즘에 투입되었음에도 주체가 서로 다른 내용의 지각 경험을 한다면, 해당 지각 경험은 인지적으로 침투 가능하다고 정의 내린다.

인지적 침투 가능성/불가능성에 대한 여러 철학자들의 규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보자. 굿먼(Cecile Goodman)과 브루너(Jerome Bruner)는 지각 경험의 인지적 침투 가능성이 참임을 검증하기 위해 지각 주체가 자신이 지각하게 될 대상의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그 대상의 물리적 크기에 대한 지각 결과가 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관찰 실험을 수행했다.[124] 이들

---

123) Siegel, Susanna. “Cognitive penetrability and perceptual justification”. *Noûs* 46 (2011), p. 4.

124) Bruner, Jerome., and Goodman, Cecile. “Value and need as organizing factors in perception”.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2 (1947)

은 두 가지 실험을 병행하였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는 피실험자인 아이들에게 1센트, 5센트, 10센트, 25센트, 50센트의 동전과 함께 각각의 동전과 동일한 크기의 회색 원판을 나란히 보여주었다. 실제로는 크기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사회적 가치가 없는 회색 원판에 비해 사회적 가치가 있는 동전을 더 큰 것으로 지각했다. 한편, 두 번째 실험에서는 동일한 연령대의 10명의 부유층 어린이와 10명의 빈민층 어린이에게 동일한 크기의 동전을 보여준 뒤 자신이 본 동전의 크기를 추정해 보라고 했다.[125] 그 결과, 실제 동전의 크기는 모두 동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전의 사회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부유층 아이들은 동전의 물리적 크기를 상대적으로 작게 본 반면, 동전의 사회적 가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한 빈민층 아이들은 동전의 물리적 크기를 상대적으로 크게 보았다.[126] 위 실험에서 관찰할 수 있듯, 주체가 사전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욕구 등의 인지적 상태는 주체의 지각 경험의 내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친다.[127] 오늘날의 인지과학자들은 이렇게 주체의 인지적 상태가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특징을 "인지적 침투 가능성"이라고 부른다.

---

125) 이때, 피실험자 중 부유층 어린이는 보스턴의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이거나 기업 경영인인 아이들이고, 빈민층 어린이는 보스턴 슬럼가의 판자촌에 사는 아이들이었다.

126) 혹은 이러한 실험 결과를 동전에 대한 욕구의 인지적 침투에 따른 지각 경험 내용의 차이에 관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험 결과를 이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주체의 인지적 상태가 지각 경험 내용에 침투했다는 사실은 동일하게 도출된다.

127) 브루너와 굿먼의 실험과 유사한 결론을 함축하는 일군의 실험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지각 경험 시에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포만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보다 음식 사진의 명도가 상대적으로 더 밝다고 본다(Gilchrist, John., and Nesberg, Lloyd. "Need and perceptual change in need-related objec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4 (1952)). 또한, 동일한 색조로 칠해진 여러 도형들 중 입술이나 사과처럼 전형적으로 빨간색을 띠는 대상에 해당하는 도형이 상대적으로 더 빨갛다고 본다(Delk, John., and Filenbaum, Samuel. "Differences in Perceived Color as a Function of Characteristic Colo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78 (1965)). 이와 유사하게, 인종적 특징에 대한 믿음이 침투하여 동일한 밝기임에도 불구하고 흑인종의 전형적인 눈매나 코, 입을 합성한 얼굴 사진이 백인종의 전형적인 눈매나 코, 입을 합성한 얼굴 사진에 비해 더 어둡다고 지각하기도 한다(Levin, Daniel., and Banaji, Mahzarin. "Distortions in the perceived lightness of faces: the role of race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35 (2006)).

라프토폴루스는 앞서 살펴 본 맥퍼슨과 스톡스, 시겔의 '인지적 침투'에 관한 규정의 공통점에 착안하여, 인지적 침투에 관한 보다 일반적인 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라프토폴루스가 보기에, 어떤 지각 경험이 인지적 침투 가능성을 담지한다는 것은 곧 그 지각 경험이 어떠한 인지적 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스톡스는 이러한 영향을 인과 관계로 상정했고, 맥퍼슨과 시겔은 경험 내용의 차이를 산출하는 것과 동일시했다. 이러한 공통점으로부터 라프토폴루스는 인지적 침투 불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만약 지각 체계 내에서 신호들의 전송과 변형이, 보다 상위의 인지에서 생산되어 상부하달식으로 지각 체계에 들어가는 신호들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 지각 과정은 인지적으로 침투 불가능하고 그러한 단계에서 산출된 심적 상태 또한 인지적으로 침투 불가능하다. 비슷하게, 만약 지각적 내용과 그 내용의 변형들이 인지적 내용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그 지각적 내용은 인지적으로 침투 불가능하다 혹은 개념적으로 밀봉되어 있다(encapsulated).[128]

그러므로 어떠한 지각 경험의 내용이 유관한 인지적 상태로부터 어떤 방식으로든 그 내용의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지각 경험은 인지적으로 침투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역으로, 어떤 지각 경험의 내용이 어떤 방식으로든 유관한 인지적 상태에 의해 그 내용의 형성에 있어서 영향을 받는다면, 해당 지각 경험은 인지적으로 침투 가능한 것이다.

라프토폴루스는 인지적 침투에 관한 위와 같은 정의를 토대로, 지각 경험의 첫 번째 단계가 그 내용에 있어서 인지적 침투가 불가능한 단계라고 주장한다. 라프토폴루스는 이러한 지각 경험의 첫 번째 단계가 다른 유형의 단계에 선행한다는 점에서 "지각의 초기 단계(the early

128) Raftopoulos. *op. cit.* (2013), p. 4.

perceptual stage)“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명명에서 알 수 있듯 감각 기관을 통해 이제 막 수용되어 지각 경험의 첫 번째 단계에 투입되는 정보는 아직 지각 메커니즘을 전혀 거치지 않았거나 거의 거치지 않은 날것의 자료(raw data)이다.[129] 그렇기에 해당 정보는 외부 대상에 관한 매우 풍부하고 세밀한 현상적 특징들을 포함하고 있다. 라프토폴루스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정보가 처음 지각 메커니즘에 투입되어 처리되기 시작하는 단계인 지각 경험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그 경험 내용의 형성에 있어서 인간의 인지적 능력이 개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앞서 언급했듯 지각 경험의 첫 번째 단계만을 거쳐서 산출된 정보는 사고의 구성 단위인 개념만으로 모두 포섭하기에는 매우 풍부하고 세밀한 내용들을 무수히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지적 상태가 지각 경험의 첫 번째 단계로부터 산출되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적어도 지각 경험의 내용이 인지적 상태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구성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지각 경험의 첫 번째 단계에서 처리되고 있는 정보는 이렇게 재구성되기에는 너무나 풍부하고 세밀하다. 라프토폴루스는 더 나아가 지각 경험의 첫 번째 단계에는 ‘사고의 구성 단위’인 개념이 동원될 수 없고, 심지어 그 내용은 명제의 형식으로도 재구성될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렇기에 라프토폴루스의 논의에 따르면, 지각 경험의 첫 번째 단계에서 산출되는 정보들은 비개념적이다.

반면, 지각 경험의 두 번째 단계는 그 내용에 있어서 인지적 능력이 개입하는 심적 상태의 단계이다. 즉, 지각 경험의 두 번째 단계는 해당 단계로부터 산출되는 경험 내용에 대해 인지적 침투가 가능한 단계이다. 특히, 지각 경험의 두 번째 단계의 이러한 인지적 침투 가능성은 지각 경험이 지각적 믿음이나 판단과 같은 인지적 상태의 근거로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앞서 보았듯, 외부 대상에 관한 정보가 감각 기관을 통해 주체에게 수용된 후 지각 체계의 초기 단계를 통해 약간은 가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는 인지에 활용될 수 없을 만큼 여전히 풍부하고 세밀하다. 그렇기에, 지각 경험의 두 번째

129) Raftopoulos, Athanassios. *Cognition and Perception: How do Psychology and Neural Science inform Philosophy?*. MIT Press (2009), p. 54.

단계에서는 앞선 첫 번째 단계를 거쳐서 산출된 정보에 주체의 인지적 능력이 개입하여, 이를 믿음이나 판단, 욕구 등과 같은 인지적 상태에 활용될 수 있는 형식으로 그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라프토폴루스는 지각 경험의 두 번째 단계에서 산출되는 정보가 개념적이라고 주장한다.

라프토폴루스는 지각 경험의 두 단계 구분의 구체적인 사례로 시지각 경험의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를 언급한다. 라프토폴루스에 따르면, 시지각은 "초기 시각(early vision)"과 "후기 시각(late vision)"으로 구분할 수 있다.[130] 우선, 시지각 경험의 첫 번째 단계인 초기 시각에서는 외부 사물과 같은 지각 대상으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적 내용(phenomenal content)들이 수용된다.[131] 이때 산출되는 현상적 내용들은 바로 그 시지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조건들(enabling condition)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내용들이다. 이를테면, 색 지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조건에는 그 사물 표면의 분광 반사율(spectral reflectance)[132]이나 사물에 반사되는 빛 자체의 파장 형태 등이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각 주체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사물을 빨간색 사물로 보았다고 하자. 해당 주체가 자신 앞에 놓여 있는 사물이 빨간색이라고 보는 바로 그 시지각 경험의 내용은 해당 사물이 특정한 분광 반사율을 갖고 있고 또 광원으로부터 발산되어 해당 사물의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 특정한 파장 형태를 띄고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133] 이처럼 초기 시각에서 산출되는 현상적 내용은 지각 대상의 속성

130) 라프토폴루스는 시지각에 관한 이러한 구분법을 앞서 살펴본 마를 비롯한 신경과학자들의 연구로부터 차용했다. 대표적으로, 마와 필리쉰이 시지각을 초기 시각 단계와 후기 시각으로 구분한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Marr. *op. cit.* (1982), pp. 241-245.나 Pylyshyn. *op. cit.* (1999)를 참고하라.

131) Raftopoulos. *op. cit.* (2009), pp. 48-52.

132) 분광 반사율이란 "물체색이 스펙트럼 효과에 의해 빛을 반사하는 각 파장별(단색광) 세기"를 뜻한다. "물체의 색은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각 파장별 분광 분포(분광 반사율)에 따라 여러 가지 색으로 정의되며, 조명에 따라 다른 분광 반사율이 나타"나기에, 각 물체 표면의 고유한 분광 반사율로 인해 해당 물체가 특정한 색으로 지각되는 것이다. 분광 반사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박연선. 『색채용어사전』. 도서출판 예림 (2007), p. 74.를 참고하라.

133) 주체의 바로 그 시지각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에는 그 외에도 수많은 물리적 조건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으나,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정도만을 언급했다. 다만,

과 그 대상이 놓인 환경 등으로부터 비롯되는 매우 많은 물리적 조건들에 따라 불수의적이고 자동적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라프토폴루스는 초기 시각에서 산출되는 내용이 믿음이나 욕구와 같이 지향성을 띄는 고차원의 인지적 상태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 시각의 내용에는 인지가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 라프토폴루스는 초기 시각의 내용에는 인지가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언어를 통해 명료하게 표현하거나 기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오히려, 라프토폴루스는 심적 상태에 대한 물리주의적 환원을 강조하는 이들처럼 초기 시각이 이루어질 때의 신경 세포나 섬유 등의 흥분 등과 같이 물리적 사실에 관한 언급을 통한 간접적 설명만이 가능하다고 덧붙인다. 라프토폴루스의 논의에 따르면, 이러한 이유에서 인간의 시지각 경험의 내용 중 초기 시각 단계에서 구성된 내용만이 비개념적이다.[134]

라프토폴루스는 초기 시각 단계에서 산출된 정보가 시지각 경험의 두 번째 단계인 후기 시각을 거쳐야만 비로소 지각적 믿음을 비롯한 인지에 활용될 수 있는 개념적 내용으로서 수용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보았듯, 초기 시각 단계만으로는 지각 대상의 현상적 특질들은 수용되긴 했어도 주체의 판단이나 믿음의 대상이 되진 못했다. 그런데 분명 우리는 외부 사물을 본 뒤, 거의 즉각적으로 그 지각 대상의 여러 현상적 특징들을 토대로 대상에 대한 판단이나 믿음 등을 갖는다. 그러므로 초기 시각 단계와 시지각 경험에 근거한 지각적 믿음이나 판단 사이를 이어 줄 심적 상태의 또 다른 단계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라프토폴루스는 바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지각 경험의 두 번째 단계인 후기 시각이라고 주장한다. 즉, 라프토폴루스의 분석에 따르면, 감각기관을 통해 수용된 후 초기 시각 단계를 거쳐 일차적으로 처리된 정보는, 후기 시각 단계를 거치면서 인지적 침투가 가능해지기에 지각 주체

---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지각 경험의 물리적 가능 조건이 사실상 무수히 많은 수의 물리적 조건들의 연언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때의 연언지들을 모두 명제 형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을지라도 말이다.

134) Raftopoulos. *op. cit.* (2009), p. 146.

의 인지적 능력의 개입이 가능하게 되어, 비로소 지각적 믿음이나 판단처럼 개념적 내용을 갖는 인지적인 심적 상태 사이를 이어주는 초석이 되는 것이다.[135]

라프토폴루스는 지각 경험이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라는 이중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는 주장을 신경과학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험적으로도 정당화하고자 한다.[136] 많은 신경과학자들은 관찰을 통해 감각 기관으로부터 수용된 정보에 의해 발생한 신호가 어떠한 경로로 전송(transmit)되는지를 연구한다. 대표적으로, 신경과학자 불리에르(Jean Bullier)는 fMRI[137]를 활용하여 피실험자가 움직이는 물체를 볼 때 시각 피질(visual cortex)[138]의 어느 부분에서 혈류량의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한다.[139] 이 실험에 따르면, 전반적으로는 시각 피질의 경로를 따라 V1부터 V6까지 순차적인 혈류량 증가가 관찰되나, V5의 혈류량 증가가 이루어진 다음 한시적으로 V1과 V2의 혈류량 증가도 관찰되었다. 즉, 불리에르의 실험에 따르면, 시지각이 이루어질 때 시각 피질에서는 V1에서 V6까지 상향식으로 신호가 전송되는 동시에, V5의 신호가 하향식으로 V1이나 V2에서의 신호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다.

---

135) 이렇듯. 라프토폴루스는 지각을 두 단계의 과정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지각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했던 마의 가설과 차이를 보인다.

136) Raftopoulos, Athanassios. *Cognitive Penetrability and the Epistemic Role of Perception*. Palgrave Macmillan (2019), pp. 251-274.

137) fMRI는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의 준말로, 뇌의 활동성을 자기장의 신호 변화를 토대로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영상을 뜻한다. 이때, 뇌신경의 활동성에 따른 자기장의 신호 변화는 활동성이 증가/감소한 뇌 부위의 혈류량 및 산소포화도 변화를 토대로 측정한다. 뇌의 특정 영역의 활동성이 증가하면, 해당 영역에 위치한 뇌 세포가 활성화를 위해 혈액 내 헤모글로빈에서 산소를 추출하여 소모하고 이에 따라 해당 영역으로 유입되는 혈류량이 증가하여, 그에 따른 자기장 신호도 변화한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영상으로 보며 관찰하는 방법은 뇌를 비침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fMRI를 통한 뇌 연구의 원리와 방법에 관한 개괄적인 설명은 김연희. 「Functional MRI를 이용한 뇌기능 연구」. *한국뇌학회지* 1 (2001)을 참고하라.

138) 뇌를 반구로 간주했을 때 그 후면에 해당하는 후두엽에는 시지각을 관장하는 영역인 시각 피질이 있다. 시각 피질은 단일한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지각에 따른 신호가 처리되는 일련의 경로를 형성하는 복수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신호가 처리되는 순서에 따라 각 영역은 V1, V2, V3, V4, V5, V6로 불린다.

139) Bullier, Jean. “Integrated model of visual processing”. *Brain Research Reviews* 36 (2001).

이러한 경험적 증거는 플롬 외 3인의 연구에서도 잘 나타난다.[140] 플롬을 비롯한 4인의 신경과학자들은 뇌파 검사와 fMRI를 토대로 V5에서의 신호가 V1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다 더 상세하게 관찰한다. 이들은 피실험자가 시지각 경험을 할 때 시각 피질에서의 신호 발생과 전송 경로를 시간 경과(temporal course)에 따라 살핀다. 플롬 외 3인의 연구에 따르면, V1에서 뇌의 활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V2에서 뇌의 활동성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 사이에, 즉, V1에서 시지각 정보가 처리되며 V2로 전송될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에, V1에서는 그와 동시에 V5와 직접 연결된 거대세포 경로(magnocellular pathway)를 통해 V5로 신호를 전송했다가 다시 돌려받는다.[141] 즉, 시각 피질에서의 신호 전송 과정은 상향식으로 V1에서 V5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하향식으로 V5에서 V1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시각 피질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를 담당하는 V1이 보다 후기 단계를 담당하는 V5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경험적 증거들은 라프토폴루스의 이중 과정 이론이 건전한(sound) 논증임을 보여준다.[142]

---

140) Plomp, Gijs., et al. “Early recurrence and ongoing parietal driving during elementary visual processing”. *Scientific reports* 5 (2015)

141) V5는 V1과 직접 연결된 거대세포 경로 외에도, V5보다 선행하는 시지각 메커니즘의 다른 영역과 직접 연결되는 여러 경로들을 가진다. 그중에서도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LGN과도 직접 연결되는 경로를 갖는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술할 것이다.

142) 물론 V5에서 V1으로의 신호 전송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지각 경험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이중 과정 이론뿐만 아니라 개념주의의 주장을 옹호하는 근거로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념주의는 인지에 활용되는 구성 요소인 개념으로만 지각 경험의 내용이 구성된다고 주장하기에, 결국 개념주의에 의하면 인간의 지각은 인지의 내용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 내용이 결정되는 하향식 처리 과정으로만 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경과학자들의 관찰에서는 하향식 경로만이 아니라 V1에서 V6까지의 상향식 경로도 발견되었으며, 특히 신경 신호의 상향식 전송과 하향식 전송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관찰되었다는 점에서, 시각 피질에서의 신호 전송 경로는 개념주의를 정당화하는 증거로 쓰일 수 없음을 유의해야만 한다.

## 3. 이중 과정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라프토폴루스를 비롯한 신경철학자들이 제시하는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위처럼 우리의 지각 경험을 설명함에 있어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를 양립시킨다는 점에서 양측의 장점을 모두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두 논의인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를 양립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마주한다. 즉,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가 각각 갖는 장점을 동시에 갖기도 하지만, 그 대신 두 입장을 양립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새로운 난점들을 마주한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이중 과정 이론에게 제기되고 있는 두 문제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에 대한 인지적 침투 가능성/불가능성이 지각의 초기 단계의 경험 내용의 개념성/비개념성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지를 확언할 수 없다. 앞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라프토폴루스는 인지적 침투 가능성/불가능성을 기준 삼아 지각 경험을 크게 두 단계로 구분하고, 그 중 첫 번째 단계는 인지적 침투가 불가능하기에 그 경험 내용이 비개념적이라고 주장했고 두 번째 단계는 인지적 침투가 가능하기에 그 경험 내용이 개념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라프토폴루스의 이러한 주장만으로는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의 인지적 침투 불가능성이 전적으로 해당 경험 내용이 비개념적이라는 것을 필연적으로 함축하는지를 확신할 수 없다. 물론 위에서 보았듯, 라프토폴루스의 논의는 마나 필리쉰과 같은 신경과학자들이 제시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실험 결과들에 근거하고 있기에, 라프토폴루스가 이들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논변을 정당화하는 것은 일견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어디까지나 귀납적이기에, 그저 우리는 아직까지 '인지적 침투가 불가능하지만 개념적인 내용을 갖는' 지각 경험의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라프토폴루스를 비롯하여 이중 과정 이론을 옹호하는 이들은 인지적 침투가 불

가능하지만 개념적인 내용을 가질 수 있는 사례가 결코 존재하지 않음을 연역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중 과정 이론에 회의적인 몇몇 철학자들은 라프토폴루스가 이러한 입증 책임을 자신의 논증에서 해결하고 있는지가 의문스럽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는 바로 토리비오(Josefa Toribio)이다. 토리비오는 라프토폴루스가 지각의 초기 단계에 대한 인지적 침투 불가능성과 지각의 초기 단계의 경험 내용의 비개념성 사이의 관계를 필요충분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143] 그는 인지적 침투 불가능성과 비개념성 사이의 관계를 위와 같이 규정한 라프토폴루스의 입장을 "상호 함축 가설(mutually entailing thesis)"[144]이라고 명명하고, 이 가설이 별다른 정당화 없이 라프토폴루스의 논변에서 참으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상호 함축 가설에 관한 토리비오의 반론에 따르면, 경험과학적 근거들을 토대로 지각의 초기 단계에 대한 인지적 침투 불가능성 그 자체는 귀납적 참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조건 없이 필연적으로 지각의 초기 단계에 대한 인지적 침투 불가능성으로부터 해당 지각 경험의 내용에 비개념적이라는 사실이 뒤따라나오지는 않는다.[145] 더 나아가, 토리비오는 인지적 침투 불가능성과 비개념성은 서로의 필요충분조건이라고 확언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한쪽의 필요조건이거나 충분조건인지도 검토해보아야 할 문제라고 비판한다.[146]

오히려 토리비오는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가 인지적으로 침투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단계의 경험 내용이 지각 주체의 개념 소유와 연관되는 사례가 존재한다고 반론한다. 그는 애매한(ambiguous) 형상의 도형의 사례를 언급한다. [그림 3]과 같은 도형을 생각해보자.[1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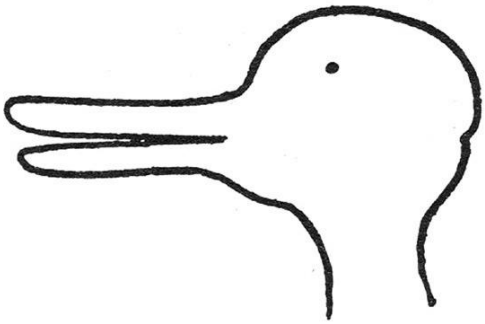
143) Toribio, Josefa. "Nonconceptualism and the cognitive impenetrability of early vision". *Philosophical Psychology* 27 (2014), p. 622. 이때 토리비오가 인용하는 라프토폴루스의 문장은 Raftopoulos. *op. cit.* (2013), pp. 8-9. 에 나타난다.

144) Toribio. *op. cit.*, p. 622. 토리비오는 이 가설을 줄여서 "MET" 라고 부른다.

145) Ibid.

146) Ibid.

147) Wittgenstein, Ludwig.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Wiley-Blackwell (1953), p. 194



[그림 3]

평범한 지각 주체가 위와 같은 형상의 도형을 보고 나서 갖게 되는 지각 경험의 내용은 말 그대로 "오리/토끼"와 같이 애매한 무언가이다. 즉, 주체의 시지각 경험 내용은 오리의 외관과 토끼의 외관을 모두 포함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오리와 토끼 중 어느 한 쪽으로 고정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애매한 형상일 것이다. 그렇기에 위 도형을 본 주체의 지각 경험 내용은 〈오리〉라는 개념과 〈토끼〉라는 개념 중 어느 개념에도 상응하지 않는 비개념적인 내용이다.[148] 반면, 지각 주체가 비개념적인 내용을 산출하는 지각 경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거나 믿음을 가지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컨대, 위 도형을 본 지각 주체는 자신의 시지각 경험의 내용은 비개념적이지만, 얼마든지 해당 경험의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본 도형이 '오리'(혹은 '토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애매한 도형에 대해서도 판단이나 믿음이 가능한 것은, 토리비오의 반론에 따르면, 지각 주체가 시지각 경험 이전에 소유하고 있던 개념인 〈오리〉 혹은 〈토끼〉를 위 도형에 대한 자신의 지각 경험 내용을 비교하거나 대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위 도형을 보고 난 후, "내가 본 저 그림은 토끼 그림이다." 혹은 "내가 본 이 그림

148) 물론 〈오리/토끼〉라는 개념 그 자체가 존재하고, 위 사례에서 지각 주체는 해당 개념에 완전히 상응하는 표상을 그 경험 내용으로 갖는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적으로 무언가를 사고할 때 어떤 대상을 '오리이면서 토끼인 생명체' 혹은 '오리인지 토끼인지 식별하기가 어려운 생명체'와 같은 애매한 대상으로 사고하지 않기에, 이는 철학적 논의를 위한 특수한 사례로만 다루고자 한다.

은 오리 그림이다.” 와 같이 도형의 형상에 대한 판단을 내리거나 믿음을 갖는다. 그러므로 오리/토끼와 같은 애매한 형상의 도형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지각 사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떠한 지각 경험이 비개념적 내용을 갖는 지각 경험이라고 할지라도 인지적 침투는 가능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토리비오는 라프토폴루스의 논변이 실책을 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라프토폴루스는 토리비오가 개념이 침투하는 시점을 혼동하여 비판하고 있다고 재반론한다.[149] 토리비오의 지적대로, 위 도형에 관한 시지각 사례에서 지각 주체는 ‘오리/토끼’ 라는 애매한 형상의 도형을 지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오리>나 <토끼>라는 하나의 개념을 활용하여 그 도형에 대한 지각적 믿음이나 판단을 명확하게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일견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의 인지적 침투 불가능성과 내용의 비개념성 사이에는 수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지각 주체가 <오리>나 <토끼>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명확한 지각적 믿음이나 판단을 내리는 시점은 사실 지각 경험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아니다. 위 사례에서 ‘오리/토끼’ 그림에 대한 시지각 경험에 인지적 능력이 침투한 시점은 해당 그림에 대한 시지각이 모두 완료된 후 사후적으로 해당 경험을 검토하는 시점이다. 다시 말해, 라프토폴루스가 보기에, 토리비오는 주체의 지각 경험이 완전히 종결된 이후에 주체가 자신의 경험을 반추해보는 순간에서야 인지적 침투가 가능한 것을, 마치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 그 자체에서 인지적 침투가 가능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라프토폴루스가 제시한 이중 과정 이론은 지각 경험의 두 단계를 지각 대상으로부터 수용된 정보가 처리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인지적 침투가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를 놓고 구분했기에, 토리비오의 위와 같은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둘째로, 우리는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 단언할 수 없다. 라프토폴루스의 논의에 의하면, 지각

149) Raftopoulos, Athanassios. “Nonconceptual content: A reply to Toribio’s “Nonconceptualism and the cognitive impenetrability of early vision””. *Philosophical Psychology* 27 (2014)

경험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는 시간적 선후 관계에 놓여 있어서,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에서 고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된 정보가 지각 경험의 후기 단계에 투입되어 또다른 고유한 과정을 거쳐 처리되어 지각 경험의 내용을 산출한다. 그리고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 각각의 고유한 과정은 인지적 침투 불가능성과 인지적 침투 가능성을 담지한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동일한 정보와 그 정보로부터 산출되는 내용은 어떻게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에서 후기 단계로 이행 혹은 연계되는 것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서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이 쉽게 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는 토리비오가 이중 과정 이론에 대해 제기하는 두 번째 주된 비판점이다.[150]

번스턴(Dan Burnston)은 이러한 토리비오의 비판을 좀 더 정교화한다. 번스턴은 인지적 침투가 불가능했던 내용이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 사이의 모종의 관계로 인해 인지적 침투가 가능하게끔 되어 후기 단계에 투입될 수 있도록 변형되는 과정을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 빗댄다. 그리고 그러한 번역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한다.

> 번역 메커니즘의 어떤 단계가 표상 유형의 변화를 함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고 가정해보자. 번역에서의 그 단계가 그와 같이 표상 유형의 변화를 함축하는 한 가지 방법은 분절적인 것(the discrete)을 지각된 것(the perceptual)에 사상할(map) 수 있도록 두 종류의 내용을 모두 표상하는 것이다. 그러면 지각적으로 구조화된 내용 중 어느 것에다가 인지적 표상을 사상해야만 하는가? 지각 메커니즘이, 여러 지각 내용들 중에서 다른 내용이 아니라 특정한 하나의 지각 내용을 왜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이론 없이는, 번역을 상정함으로써 얻게 되는 설명의 이점이 없다.[151]

150) Toribio. *op. cit.*, pp. 634-635.
151) Burnston, Daniel. "Cognitive penetration and the cognition-perception interface". *Synthese* 194 (2017), p. 3657.

번스턴이 제기하는 의문의 요지는 마지막 문장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 즉, 번스턴이 보기에,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왜 하필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로부터 산출된 인지적 침투가 불가능하여 비개념적인 내용이 선택되어, 인지적 침투가 가능하게끔 변형되어 지각 경험의 후기 단계에 투입되고, 끝내 개념적인 내용으로 산출되는지에 관한 합당한 이유를 제공해줄 수 있는 이론적 설명을 제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결국, 토리비오와 번스턴에 의해 제기된 비판을 정리하자면, 이중 과정 이론은 다음과 같은 물음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에서 처리된 정보와 그 정보로부터 산출된 경험 내용은 어떻게 지각 경험의 후기 단계로 전달되어 투입되는가?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에서는 인지적 침투가 불가능했던 정보가, 지각 경험의 후기 단계에서는 어떻게 인지적 침투가 가능해질 수 있는가? 지각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이러한 두 물음에 대해 합리적인 답변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한다.

앞서 살펴 본 라프토폴루스의 논의처럼, 두 단계가 단지 시간적 선후 관계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의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가 시간적 선후 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두 단계의 내용이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타당하게 주장하기가 어려우며, 더 나아가 두 단계의 내용의 본질적 차이인 인지적 침투 불가능성/가능성의 변화를 설명하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각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지금까지 내놓은 논의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두 단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 이를테면, 두 단계 사이의 관계가 인과나 수반 혹은 공변(co-variation) 등과 같은 특정한 양태의 관계임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어야만 이중 과정 이론의 타당성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점에 대한 해명이 부족한 것처럼 보이기에, 이는 이중 과정 이론의 발목을 잡는 큰 결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인지적 침투가 불가능한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에서의 내용과

인지적 침투가 가능한 지각 경험의 후기 단계에서의 내용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연계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지각에 관한 철학적 논의의 근원적인 동기 중 하나였던 '정당화자로서의 지각 경험'의 가능성을 해명하는 일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앞서 보았듯,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에서 처리되어 산출된 지각 경험의 내용은 지각 경험의 후기 단계로 투입된 후, 후기 단계의 고유한 메커니즘을 거치는 과정에서 인지적 능력이 개입되어 보다 정교한 내용으로 재구성된다. 그리고 이렇게 재구성된 지각 경험의 내용은 인지적 침투가 가능하기에 우리의 믿음이나 판단을 정당화하는 근거나 이유로 기능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지각 경험의 내용이 어떻게 지각적 믿음과 판단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새로운 설명처럼 보인다. 그렇기에, 이 과정에서 어떻게 초기 단계의 내용이 후기 단계로 연계되며 또 인지적 침투가 불가능하던 내용이 어떻게 인지적 침투가 가능해지는지를 밝히는 것은 제기된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 되는 것만 아니라 이중 과정 이론의 철학적 의의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라프토폴루스는 토리비오와 번스턴의 반론에 대해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응수한다. 그는 이중 과정 이론이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 사이의 관계를 명료하게 해명하지 못한다는 토리비오와 번스턴의 반론에 대해.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가 곧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attention)'라는 심적 과정을 통해 지각 경험의 서로 다른 두 단계가 매개된다고 재반론한다.[152] 라프토폴루스의 논의에 따르면, 인지적 침투가 불가능한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로부터 산출되는 비개념적 내용이지만, 해당 내용에 대한 주체의 '주의'를 거쳐서 그 내용은 인지적 침투가 가능하게끔 가공되어 지각 경험의 후기 단계로 투입된다.

그렇다면 라프토폴루스가 제시하는 '주의'란 무엇인가?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는 주의를 "동시에 보게

152) Raftopoulos. *op. cit.* (2019), pp. 126-158.

된 대상들이나 동시에 떠오른 일련의 사고들 중 하나만을 명료한 형태로 마음 속에 품는 것”[153]이라고 정의하며, 초점화(focalization)와 집중(concentration)이 주의의 핵심 기제라고 언급한다. 더 나아가, 주의는 “어떤 것을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다른 것들을 소거(withdrawal)하는 것”이라고 덧붙인다.[154] 주의에 관한 이러한 정의는 점차 정교화 되어, 오늘날 인지심리학이나 뇌과학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의를 “본질적으로 사람이 보다 깊은 정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특정 정보를 선택하고 의식 속에 유지시키는 기능을 하는”[155] 심적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즉, 인간은 주의를 통해 수용된 정보에 포함된 풍부한 현상적 특징을 일부 탈각시키거나 지각 대상의 세밀한 특성들 중 상징적이거나 대표적인 사항을 선별하여 해당 정보를 재구성한다. 바로 이러한 ‘주의’ 덕분에, 매우 풍부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어서 인지적 침투가 불가능했던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의 비개념적 내용은 인지적 침투가 가능하게끔 변환되어 지각 경험의 후기 단계로 투입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56]

---

153) James, William.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1. Henry Holt and Company (1890), pp. 403-404.

154) Ibid.

155) 이정모 외, *op. cit.* (2021), p. 43.

156) 이때, ‘주의’를 지각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를 매개하는 특수한 심적 과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인지적 침투라고 간주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주의’는 주체가 사전에 갖고 있는 지식이나 믿음 등을 토대로 특정한 정보를 무시하거나 초점화하는 심적 과정이라고 이해되기에, 주의 그 자체가 인지적 침투의 일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주체가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여 해당 대상으로부터 투입되는 정보만을 계속 추적하고 그 외의 정보는 소거하는 식으로 작동하는 ‘선택적 주의(selective attention)’는 인지적 침투의 일종이라고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주의’를 인지적 침투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방식은 주의의 특정한 유형만을 부각한 것이다. 이를테면, ‘분할 주의(divided attention)’가 이루어지는 경우, 주체는 의식적으로 특정한 대상이나 과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서도 주어진 모든 정보에 대해 동시에 집중한다. 하지만 주체 자신이 어떻게 그 모든 정보에 대해 동시에 집중하여 처리하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접근하여 명료하게 기술하진 못한다. 예컨대, 주체가 운전을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지인과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는 사례를 생각해보라. 그 주체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 운전석에서 포착하는 모든 정보에도 주의를 기울이지만, 동시에 지인과의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들려오는 음성 언어나 얼굴 표정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에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그렇지만 이 사례에 대해 주체가 사전에 갖고 있던 특정한 배경 지식이나 믿음 등에 의해 특정 정보에

‘주의’가 시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를 매개해준다는 것은 시지각 경험에 의한 신호와 정보의 전송 경로에 대한 생물학적 분석을 통해 입증된다. 주체의 시지각 경험이 이루어지면, 망막으로부터 수용된 정보는 전기 신호로 변환되어 뇌의 시각 피질로 전달되는데, 이때 망막과 시각 피질 사이에는 외측 슬상핵(Lateral geniculate nucleus, 이하 “LGN”)이라는 신경핵이 존재한다. LGN은 주체가 자신의 시야에 들어 온 여러 대상들 중 특정 대상에 집중할 때 활성화되어, 망막을 통해 수용된 모든 정보를 그대로 뇌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여과된 신호를 뇌의 시각 피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즉, LGN의 활성화는 주체가 외부 대상을 보고 수용하는 수많은 정보들 중 특정한 정보에 ‘주의’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러한 LGN이 시각 피질 내에서 시지각 정보의 처리 경로의 시작점을 맡고 있는 V1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지각 경험의 후기 단계를 담당하는 V5와도 직접 연결된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앞서 살펴 본 플롬 외 3인의 연구에 의하면, V5에서 V1으로 신호를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V5에서 LGN으로 신호를 보내는 회귀(recurrence)가 발생한다.[157] 그리고 이렇게 회귀된 정보는 V1부터 V6까지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상향식의 시지각 과정에 투입된다. 이렇듯, 보다 복잡한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V5에서 지각 경험의 후기 단계를 거쳐 처리된 정보가 ‘주의’를 관장하는 LGN으로 다시 전송되고 결국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를 담당하는 V1으로 전송된다는 점에서,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 사이의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토리비오와 번스턴의 비판은 라프토폴루스의 논증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158]

---

대한 소거나 초점화가 이루어졌다고 분석하기는 어렵다. 이렇듯, 인지적 침투의 일종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주의’의 유형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주의’ 그 자체를 인지적 침투와 동일시하는 반론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보다 자세하게, 무의식적 주의에 관해서는 Prasad, Seema., and Mishra, Ramesh. “The Nature of Unconscious Attention to Subliminal Cue”. *Vision(Basel)* (2019)를 참고하라.

157) Plomp et al. *op. cit.*, p. 5.

158) 라프토폴루스는 토리비오와 번스턴의 비판이 자신의 논증에 대한 적절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번스턴은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 사이의 관계를 일종의 번역에 빗대어 설명하면서, 번역의 대상과 번역의 결과물 사이

## 4. 이중 과정 이론의 장점

요컨대, 라프토폴루스는 시지각을 주된 사례로 들며 인간의 지각 전반을 크게 서로 다른 성격의 두 단계 혹은 이중의 과정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심적 상태라고 주장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라프토폴루스의 논의는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에 관한 두 철학적 입장 사이의 첨예한 대립을 봉합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라프토폴루스의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가 양립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 라프토폴루스는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에서는 비개념적 내용을 형성하는 데 활용되었던 정보가, 지각 경험의 후기 단계에서는 인지적 침투에 의해 개념적 내용을 산출하는 데 기여한다고 논한다. 즉, 라프토폴루스의 이중 과정 모델에 따르면, 동일한 정보로 구성된 지각 경험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각 경험의 내용은 특정한 지각 경험의 단계(초기 단계)에서는 비개념적이지만 또 다른 특정한 지각 경험의 단계(후기 단계)에서는 개념적이다.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의 이러한 논변은 흔히 단일한 심적 상태로만 간주되곤 하는 지각 경험이, 사실은 복수의 서로 다른 세부 단계들 혹은 메커니즘들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의 경험 내용을 산출하는 하위 상태들의 연합과 같은 복합적인 심적 상태로 이해되어야함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지각 경험에 관한 새로운 철학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지각 경험에 관한 기존의 철학적 논의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장점을 갖는다.

첫째,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 각각의 입장에 비해,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지각에 관한 타 학문 분

---

에 어떤 논리적 관계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라프토폴루스의 논증에서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는 어떤 논리적 관계가 필요한 설명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LGN과 V5 사이의 연결 경로와 같은 신경과학과 생물학의 연구가 증명하듯, 라프토폴루스는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는 실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 관계는 생득적(innate)으로 주어진 관계이기 때문이다.

야들의 논의와 더 정합적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 이중 과정 이론은 마의 논의와 같이 지각 경험을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는 신경과학에서의 연구에 그 근간을 두고 있기에, 동시대 신경과학의 논의에 매우 잘 들어맞는다. 그 뿐만 아니라, 이중 과정 이론은 인간이 언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고찰하고자 하는 의미론에서의 최신 논의와도 자연스레 연결될 수 있다. 브로가드(Berit Brogaard)나 르카나티(François Recanati)와 같은 언어철학자들은 지각과 인지를 철저하게 별개의 심적 상태로 구분하던 전통적인 논의 대신, 인간의 심적 상태를 전부 지각의 일종으로 간주하되 지각을 두 유형으로 이분화하여 전통적으로 인지라고 여겨지던 '의미에 관한 이해'와 같은 심적 과정을 상위 지각으로 규정한다.[159] 물론 이러한 주장을 옹호하는 이들이 지각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상위 지각과 하위 지각을 인지적 침투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수용된 특정 정보를 처리하는 메커니즘의 차이에 따라 인간의 심적 과정 전반을 지각의 세부 유형들로 구분한다는 점에서 이중 과정 이론과 유사한 이론적 기획이라는 점에서, 그 연결점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최신의 심리학적 논의들과도 유사점을 갖는다. 전통적인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을 의식의 반대급부 혹은 의식을 배제한 심적 상태로 규정했는데, 최신의 심리학적 논의들은 무의식을 의식의 전 단계로 간주하려는 시도를 한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베그너(Daniel Wegner)와 같은 사회심리학자들은 "적응 무의식(adaptive unconsciousness)"의 존재를 주장한다.[160] 이들은 무의식을 의식의 반대급부로 규정하지 않고, 무의식은 우리의 의식 밖에 있긴 하지만 우리의 판단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심적 상태라고 말한다. 심지

159) 이를테면, Brogaard, Berit., and Chomanski, Bartek. "Cognitive Penetrability and High-Level Properties in Perception: Unrelated Phenomena?".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96 (2015)나 Recanati, François, *Perspectival Thought: A Plea for (Moderate) Relativism.* Oxford (2007)과 같은 저작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철학적 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Nes, Anders., Sundberg, Kristoffer., and Watzi, Sebastian. "The perception/cognition distinction". *Inquiry* 66 (2021)를 참고하라.

160) Wegner, Daniel. *The Illusion of Conscious Will.* The MIT Press (2002)

어 이러한 주장을 제시하는 심리학자들은 적응 무의식이 의식보다 빠르고 효율적이기에 인간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이며, 그렇기에 적응 무의식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 진화심리학적으로도 더 타당한 주장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적응 무의식에 관한 사회심리학자들의 논의는 인지적으로 침투 가능한 지각의 후기 단계와 그것의 전-단계로서 인지적으로 침투 불가능한 지각의 초기 단계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중 과정 이론의 전반적인 구조와 흡사하다. 이렇듯,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지각에 관하여 탐구하는 다양한 분과 학문들의 최신 논의들과 보다 정합적이라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갖는다.

둘째,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지각 경험의 내용에 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 모두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소여의 신화'에 빠지지 않는다. 1장에서, 우리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표준적 개념주의자들이 지각 경험의 대표적인 현상적 특징인 세밀성과 풍부함을 설명하기 위해 지시(사)적 개념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시(사)적 개념을 다른 개념들의 토대에 해당하는 특권적인 개념으로 만듦으로써 스스로가 비판하던 '소여의 신화'에 빠지는 자기 모순을 마주하는 것을 보았다. 마찬가지로, 2장에서 우리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소극적 비개념주의가 비개념적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음에도 '마치 그러할 것이라고 귀속시켜버림'으로써 검증되지 않은 것을 이미 주어져 있다고 상정하는 상황과,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적극적 비개념주의가 지각 경험의 비개념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시나리오 내용과 프로토명제적 내용이라는 특수한 장치를 상정하는 논증 방식이 비개념주의를 '소여의 신화'에 빠지게끔 한다는 사실도 보았다. 반면,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소여의 신화'의 위험으로부터 면역인 것처럼 보인다. 앞서 보았듯,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에 의하면 주체가 최종적으로 포착하는 지각 경험의 내용은 인지적 침투가 가능한 개념적 내용이다. 이중 과정 이론의 논의가 여기까지만 진행된다면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표준적 개념주의와 마찬가지로 '소여의 신화'에 빠지겠지만, 이중 과정 이론은 이러한 개념적

내용의 토대를 인지적 침투가 불가능한 지각의 초기 단계에서의 비개념적 내용으로 제시하여 소여의 신화로부터 벗어난다. 다시 말해, 이중 과정 이론은 지각 경험의 후기 단계로부터 산출된 개념적 내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어떤 철학적 대상의 존재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득적인 구조에 따라 생리적으로 자연스레 산출되는 비개념적 내용이 그 기초라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논의들과는 달리 '소여의 신화'에 빠지지 않는다.[161]

셋째,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우리의 실제 지각 경험 사례에 더 잘 부합하는 설명을 제공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음을 듣거나 어떤 색조를 볼 때, 지각 대상과 관련하여 지각 경험 이전에 갖고 있던 배경 지식이나 해당 지각 경험에 있어서의 숙련도 등에 따라 그 대상을 더 적확하게 포착하곤 한다. 주체의 감각 기관에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분명 모든 지각 주체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일한 대상을 보거나 들을 경우, 동일한 내용의 지각 경험을 겪어야만 할 것 같다. 심지어 주체가 유관한 지식을 더 많이 쌓거나 훈련을 열심히 하여 대상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간 경우, 동일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을 더 적확한 개념으로 포착하거나 더 세밀하고 풍부한 내용의 경험을 겪게 되는 식으로 지각 경험의 양상이 완전히 변하기도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조차 제각기 다른 지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 또한 반대로, 우리는 사전에 배경 지식을 갖고 있지 않거나 숙련도가 떨어지는 대상을 지각하는 경우에는, 분명 그 대상을 보거나 들었음에도 그 대상에 대한 지각 경험의 내용을 언표하거나 형언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상적 사례들은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을 통해 보다 더 잘 설명된다. 주체의 사전 지식 소유 유무나 숙련도 차이는 인지적 침투의 가능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들이기에,

161) 이러한 비판은 사실 개념주의/비개념주의 중 어느 한 쪽에 속한다고 평가될 수 있는 철학자 뿐만 아니라 초월론적 논증(transcendental argument)을 전개하는 많은 철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이러한 비판은 "소여의 신화"를 재현한다는 표현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 초월론적 논증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비판과 유사한 맥락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대상으로부터 동일한 정보가 수용되었더라도 해당 요인들에서의 차이로 인해 지각 경험의 후기 단계에서 인지적 침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각 경험의 최종적인 내용이 차이를 보인다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의 일상적 지각 경험은 동일한 정보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는 비개념적 내용을 갖는 듯 하면서도 또 다른 어떤 경우에는 개념적 내용을 갖는 듯한 것처럼 여겨지곤 한다는 점에서,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두 성격의 내용이 모두 산출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에 실제 지각 현상을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다.[162)]

요약하자면,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마와 같은 신경과학자들의 실증적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의 지각 경험이 크게 두 유형의 메커니즘으로 구분될 수 있는 심적 상태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이중 과정 이론을 옹호하는 철학자들이 지각 경험을 두 단계로 구분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언급하는 것은 바로 인지적 침투 가능성이다. 즉,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에는 주체의 인지적 능력이 침투할 수 없어서 해당 단계로부터 산출되는 경험의 내용은 비개념적이고, 반면 지각 경험의 후기 단계에는 주체의 인지적 능력이 침투할 수 있어서 해당 단계로부터 산출되는 경험의 내용은 개념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이중 과정 이론은 지각 경험에 관한 철학적 논의에 있어서 새롭게 제시되는 신경철학적 입장으로서, 기존의 철학적 논의인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 사이의 대립을 봉합하고 더 나아가 두 입장을 양립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대안적 논의로 평가할 수 있을 듯하다. 물론, 이중 과정 이론이 핵심적 전제로 삼고 있는 인지적 침투 가능성/불가능성과 지각 경험 내용의 개념성/비개념성 사이의 관계가 다소 명료하지 않고, 지각 경험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 사이의 관계가 구체적으로 해명되지 않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러한 반론들은 앞서 보았듯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재반론될 수 있다. 따라서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적어도 현재까지 제시된 지각의 본성에

162) 구체적으로 어떠한 실제 지각 현상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다음 장에서 상술할 것이다.

관한 철학적 논의들 중에서는 가장 만족스럽고 타당한 논의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설명하기 까다로운 미세 지각의 사례를 지각 경험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이 지각에 관한 여타의 철학적 논의들보다 어떻게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며, 이중 과정 이론의 유용성을 증명해 볼 것이다.

# Ⅴ. 이중 과정 이론의 의의

앞선 장들에서 본고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의 입장을 각각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양측이 모두 지각 경험의 본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기존의 두 철학적 논의와 달리, 지각 경험에 관한 인지과학적 입장을 배경 삼아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를 양립가능하게끔 하는 모델을 제시하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지각 경험의 본성에 관한 철학적 논쟁이 처한 교착 상태를 해결할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고는 이중 과정 이론이 기존의 철학적 논의들과 비교했을 때 갖는 세 가지 장점들을 설명했다. 언급한 이중 과정 이론의 장점들 중 한 가지는 이중 과정 이론이 갖는 철학적 이론으로서의 장점이 아닌 실제 지각 경험의 사례에 대한 설명적 이점이었다. 만약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이 우리의 실제 지각 경험 사례들을 다른 이론들보다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이중 과정 이론은 철학적이고 미학적인 가치 외에도 실용적인 가치까지 갖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앞서 살펴 보았듯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는 공통적으로 시지각 경험의 사례를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분명 지각 경험 전반에 관한 논증을 제시하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화를 위해 동원되는 사례들은 시지각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기존의 두 철학적 입장은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이 우리의 지각 경험 일반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음고 지각이라는 지각의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시지각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두 논의들과는 달리 청각적 경험에 주목하되, 그 중에서도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미분음

(microtone)’에 대한 지각 경험을 중심으로 이중 과정 이론의 유용성을 따져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미분음’의 정의를 살펴보며 ‘미분음’에 대한 지각 경험이 왜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례인지를 논할 것이다. 그리고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에 각각 근거하여 음고 지각의 메커니즘에 관해 설명하고자 하는 두 입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음고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라고 주장하는 ‘음계도 가설’과 음고 지각 경험의 내용에는 비개념적 내용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다이애나 래프먼의 ‘N-음고’ 지각 이론이 어떤 논의를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 검토로부터,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을 음고 지각의 경우에 적용했을 때, 이중 과정 이론이 미분음 지각처럼 해명하기 어려운 사례를 어떻게 기존의 논의들보다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제시하여, 이중 과정 이론의 이점을 예증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이 우리의 지각 경험 전반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일반 이론일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이다.

## 1. 미분음의 문제

모든 소리는 고유한 높낮이를 가진다. 어떤 소리는 다른 소리들보다 높고, 또 어떤 소리는 다른 소리들보다 낮다. 때로는 그 높낮이가 동일한 경우도 있다. 이는 단지 음악적 소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특정한 높낮이의 소리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악기 소리를 비롯한 음악적 소리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발화에서의 음성처럼 비-음악적 소리와 더불어 공사장에서의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와 같이 우연적으로 발생한 소리까지도 모두 나름의 일정한 높낮이를 가진다. 이렇게 모든 소리들이 각자의 높낮이를 갖는 것은, 바로 소리들이 각자 서로 다른 음고(pitch)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고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음고는 소리가 가진 속성들

중 높낮이와 관련된 속성으로 여겨진다. 오늘날 음고에 대한 표준적 규정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미국 국가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Association)에서 1994년에 제시한 규정으로, 미국 국가표준협회에 따르면 음고란 "어떤 소리가 만들어내는 청각적 자극으로부터 그 소리를 음계도(musical scale) 상에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배열할 수 있게 하는 청각적 속성"[163]이다. 즉, 음고란 서로 다른 소리들을 단일한 음계 내에서 높고 낮은 순서대로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속성이다. 이러한 음고는 일반적으로 소리의 파형이 단위시간 동안 반복되는 횟수에 비례한다. 즉, 단위시간 동안 소리의 파형이 반복되는 횟수가 크면 그 소리의 음고가 높고, 단위시간 동안 소리의 파형이 반복되는 횟수가 작으면 그 소리의 음고는 낮다. 왜냐하면 주파수는 1초라는 단위시간 동안 특정한 파형이 반복되는 횟수를 뜻하기에, 어떤 소리의 주파수가 높다는 것은 곧 그 소리의 파형의 반복률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진다면 그 소리는 비교대상이 되는 소리보다 높은 음고를 가진다.

그런데 모든 소리의 주파수를 일일이 측정하고 비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주파수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기 이전에도 서구 조성 음악은 존재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서구 조성 음악은 주파수와 같은 객관적인 요소로 환원하여 음의 음고를 고려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두 음의 음고 사이의 상대적인 차이를 음악적 활동에 활용했다.[164]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구 조성 음악은 주파수와 같은 절대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고정된 음들이 아니라 한 옥타브를 12개의 음으로 분할한 반음계(Chromatic scale)[165]를 음악의 표준 범주로 삼는다. 즉, 서

---

163)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Pitch". in *ANSI S1.1-1994*. American National Standard Acoustical Terminology (1994)

164) 이때, 두 음의 높낮이의 간격을 "음정(interval)"이라고 부른다.

165) "온음"과 "반음"은 그 표현과는 조금 다르게 특정한 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음과 다른 음 사이의 간격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오선 악보 상으로 2도에 걸쳐 배치된 두 음 사이의 간격을 "온음"이라고 하고, 그 간격의 절반에 해당하는 어떤 두 음 사이의 간격을 "반음"이라고 한다.

서구 조성 음악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음계는 온음계(Diatonic scale)로, 온음계란 한 옥타브 안에 5개의 온음과 2개의 반음을 포함하는 음계를 뜻한다. 한 옥타브 내의 세 번째 음과 네 번째 음 사이, 그리고 일곱 번째 음과 여덟 번째 음 사이의 간격만

구 조성 음악의 문법이나 규범 등에 익숙한 청자들은 가장 기본이 되는 온음계를 추가로 분할한 반음계를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찬가지로 서구 조성 음악의 작곡가나 연주자는 반음계 활용을 작곡이나 연주의 기초적인 규칙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서구 조성 음악에 익숙한 청자는 이러한 온음과 반음에 대한 지각을 토대로, 자신이 듣고 있는 음악 작품을 구성하는 문법이나 규칙을 파악해내곤 한다. 그러나 모든 음악이 항상 반음계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온음(wholetone)과 반음(semitione)은 한 소리와 다른 소리 사이의 음높이의 상대적인 차이를 가리키기 위한 음악적 단위이기에, 이는 얼마든지 더 작게 쪼개어질 수 있다. 즉, 우리는 얼마든지 온음과 반음을 3분할, 4분할, 6분할 등 필요에 따라 더 미세하게 분할할 수 있다. 음악학에서는 이렇게 반음보다 더 작은 음정을 "미분음(microtone)"이라고 명명한다.[166]

그런데 미분음은 온음과 반음을 의도적으로 재분할한 미세한 음정이기에, 미분음을 활용하지 않고서도 작곡이나 연주가 가능하므로 오랜 시간 동안 그 중요성을 크게 인정받지 못했다. 미분음에 대한 이러한 괄시는 서구 조성 음악의 기보법의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앞서 언급했듯, 서구 조성 음악의 전통은 온음과 반음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기에 전통적인 기보법으로는 미분음을 적절하게 표기하기조차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음악사적으로 미분음은 음계와 음률에 관한 연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167]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기의 작곡가인 코스틀레(Guilaume Costeley)는 19음 음계를 개발해내어 미분음을 토대로 한 평균율을 연구

---

반음이고 나머지 간격은 모두 온음이면 해당 음계는 온음계이다. 한편, 반음계(Chromatic scale)는 온음계에서 나타나는 온음에 해당하는 간격을 추가적으로 반음으로 분할한 음계이다. 따라서 반음계란 총 12개의 반음을 갖는 하나의 음계를 뜻한다.

즉, 예를 들어 '다(C)-라(D)-마(E)-바(F)-사(G)-가(A)-나(B)-다(C)'로 구성된 온음계가 있다면, 이 온음계를 '다(C)-올림다 혹은 내림라(C# 혹은 Db)-라(D)-올림라 혹은 내림마(D# 혹은 Eb)-마(E)-바(F)-올림바 혹은 내림사(F# 혹은 Gb)-사(G)-올림사 혹은 내림가(G# 혹은 Cb)-가(C)-올림가 혹은 내림나(C# 혹은 Bb)-나'로 재분할한 것이 반음계가 된다.

166) 이시현. 「현대음악에 사용된 미분음 연구」. 연세대학교 음악학 석사학위논문(1995), p. 3.

167) 서구 조성 음악에서 미분음에 관하여 시도되었던 탐구나 실험의 역사는 Ibid., pp. 3-6을 참고하라.

했다.[168] 또한 빈센티노(Nicola Vincentino)[169]나 허위겐스(Christiaan Huygens)[170]와 같은 이들은 오늘날 서구 조성 음악이 표준으로 삼는 12음 음계보다 훨씬 세밀하게 분할된 31음 음계를 고안했다. 심지어, 84음 음계를 제안하는 보상케(Robert Holford Macdowall Bosanquet)[171]와 같은 작곡가도 존재한다.

미분음을 도입하려는 음악사적 시도들은 20세기 이후 서구 현대음악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기술의 발달로 아주 미세한 음고의 소리까지 합성해낼 수 있는 신시사이저 같은 전자 악기가 개발되고, 이를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는 재생 장치 또한 마련되면서, 많은 현대음악 작곡가들이 미분음을 실제 작곡과 연주에 도입하고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들은 12음 음계를 벗어나 대안적인 음악적 체계를 제시하거나, 기존의 12음

---

168) 기욤 코스틀레(Guilaume Costeley)는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프랑스 태생의 작곡가이자 오르간 연주자이다. 코스틀레는 한 옥타브를 19개의 음으로 분할한 19음 음계를 고안하고, 이를 활용하여 1558년에 작곡한 샹송 "Seigneur Dieu ta pitié"를 작곡했다. 코스틀레는 이러한 시도를 토대로 미분음을 작곡에 활용하고자 시도했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코스틀레의 생애와 음악적 업적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Godt, Irving. "Costeley, Guillaume." *Grove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2001)를 참고하라.

169) 니콜라 빈센티노(Nicola Vincentino)는 르네상스 시기에 활동한 이탈리아 태생의 작곡가이자 음악학자이다. 빈센티노는 스스로 한 옥타브를 31개의 음으로 분절한 체계에 따라 소리를 내는 건반 악기를 제작하여, 이를 토대로 미분음을 활용한 연주와 음악 이론을 고안해냈다는 점에서 당대의 매우 진보적인 음악가로 평가받는다. 빈센티노의 31음 음계에 관한 음악학적 분석은 Wild, Jonathan. "Genus, Species and Mode in Vincentino's 31-tone Compositional Theory". *Music Theory Online* 20 (2014)를 참고하라.

170) 크리스티안 호이헨스(Christiaan Huygens)는 17세기 네덜란드의 물리학자 겸 천문학자이다. 천문학자로서는 토성의 고리를 발견해내었으며, 물리학자로서는 두 물체의 충돌 현상에서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나 진자운동에 관한 연구로 역학의 기초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는 수학적으로 음악에 접근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어서, 한 옥타브를 31개의 음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로그함수를 고안하여 독자적인 31음 음계를 당시 관습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12음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호이헨스가 고안한 31음 음계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Huygens, Christiaan. *Le Cycle Harmonique*. Diapason Press (1691)과 Huygens, Christiaan. *Novus Cyclus Harmonicus*. Diapason Press (1724)를 참고하라.

171) 로버트 보상케(Robert Holford Macdowall Bosanquet)는 19세기와 20세기에 활동한 영국의 천문학자이자 음악 이론가이다. 보상케는 한 옥타브 내에 총 84개의 음이 존재하는 음계를 고안하고, 이러한 평균율 기법에 맞추어 총 84개의 건반이 달려 있는 가상의 악기인 "일반화된 건반(generalized keyboard)"을 구상해낸다. 보상케가 고안한 평균율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Bosanquet, Robert. *An Elementary Treatise on Musical Intervals and Temperament*. Macmillan and Co (1876)을 참고하라.

음계를 미분음을 포섭할 수 있는 다른 방식으로 분할하는 등의 시도를 통해 미분음을 더 잘 다룰 수 있는 음악적 체계를 고안하고자 했다. 이를테면, 카릴로(Julián Carrillo)는 “Sonido 13”이라고 스스로 명명한 체계를 통해 온음을 16분할하는 새로운 평균율 체계를 제시했고[172], 부소니(Ferruccio Busoni)는 한 옥타브 내의 온음을 세밀하게 3, 4, 6분할하여 작곡에 활용하는 방식을 시도하여 이후의 작곡가들에게 온음을 임의의 음높이로 얼마든지 분할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173] 또한, 헤르프(Franz Richter Herf)와 메델(Rolf Maedel)은 전통적인 12음 음계를 수용하되, 표준적으로 상정된 12개의 음마다 각각 ±1/12 온음, ±1/6 온음, ±1/4 온음을 기보할 수 있는 특수한 방식을 고안하여 사실상 72음으로 구성된 음계를 제안했다.[174]

게다가, 서구 조성 음악 전통에 기반을 둔 현대음악가만이 아니라 동시대의 수많은 대중음악가들 또한 자신의 의도나 취향 등에 따라 온음과

---

172) 줄리안 카릴로(Julián Carrillo)는 20세기에 활동했던 멕시코 태생 작곡가로, 그는 12음계에 기반하되 12음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미세한 소리들을 다룰 수 있는 기보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서구 조성 음악에서 관습적으로 쓰이는 12음 외의 또다른 음을 다루겠다는 의도를 담아 “Sonido 13(13번째 소리)”이라는 이름을 붙여 고유한 평균율 체계를 고안하고, 그 체계에 따라 여러 음악들을 작곡했다. 카릴로와 그의 Sonido 13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Madrid, Alejandro. *In Search of Julián Carrillo and Sonido 13*. Oxford University Press (2015)를 참고하라.

173) 페루치오 부소니(Ferruccio Busoni)는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이탈리아의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이다. 그는 연주자로서도 두각을 나타냈지만, 음악에 관한 혁신적인 저술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1911년 저서인 『새로운 음악 미학에 관한 소고(*Sketch of a New Esthetic of Music*)』에서 그 당시까지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무조 음악과 미분음에 관한 음악학적 논의를 제시하고, 이 논의를 직접 자신의 작곡 양식에도 반영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소니의 전기인 Beaumont, Antony. *Busoni the Composer*.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와 부소니의 저작인 Busoni, Ferruccio. *Sketch of a New Esthetic of Music*.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 (1911)를 참고하라.

174) 프란츠 헤르프(Franz Richter Herf)와 롤프 메델(Rolf Maedel)은 작곡가이자 지휘자이며,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모차르테움 대학의 교수이다. 이들은 1970년부터 함께 미분음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1977년 『조성 바깥의 음악(*Ekmelische Musik)*』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음체계를 제안하는 책을 출판한다. 헤르프와 메델은 한 옥타브를 총 72개의 음으로 분할하는데, 이 분할을 서구 조성 음악의 전통인 12음계를 기반으로 더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은 모차르테움 대학 내에 미분음 및 대안적인 음 체계를 연구하는 동명의 연구소를 설립하였으며, 이 연구소는 오늘날까지도 헤르프와 메델이 고안한 음체계에 근거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헤르프와 메델의 논의는 Maedel, Rolf., and Herf, Franz. *Ekmelische Musik*. Katzbichler, München/Salzburg (1977)을 참고하라.

반음만이 아니라 그보다 상대적으로 더 세밀한 음높이의 차이인 미분음을 작곡과 연주에 활용한다. 앞서 언급했듯, 오늘날에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보다 더 미세한 수준에서 음높이를 조정하여 소리를 발생시킬 수 있는 신시사이저와 같은 전자악기가 발달하면서, 대중음악에서의 미분음 사용 또한 과거보다 훨씬 왕성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미분음이 갖는 음악사적 중요성과 더불어 동시대 음악가들이 미분음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분음은 오늘날 "음악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한 소재로서 그 가치가 부각"[175]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렇듯, 미분음이 음악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부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분음에 관한 연구는 미진하다. 그마저도 작곡가나 연주자를 중심으로 미분음을 어떻게 창작과 실연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실용적인 논의만 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미분음의 본성에 관한 연구는 드물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 나아가, 이는 미분음에 대한 청자의 지각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미분음이 활용된 음악에 대한 판단과 이해, 감상과 같은 보다 고차적인 음악적 활동에 관한 체계적 설명의 가능성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

그렇다면 미분음의 본성에 관한 연구는 왜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일까? 이러한 어려움은 미분음 지각의 사례를 음고 지각에 관한 기존의 이론적 모델들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사람들은 동일한 미분음을 듣고도 제각기 다른 내용의 경험을 겪는다.[176] 그런데 왜 동일한 미분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지각 경험은 청자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이루어지는가? 다르게 말하자면, 왜 미분음 지각 경험의 내용은 지각 주체마다 다르게 표상되는가?

---

175) 이시현. *op. cit.*, p. 1.

176) 단, 이를 감각질(qualia)의 문제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더 상세하게는 후술하겠으나, 본고에서 지적하는 '동일한 미분음을 듣고도 제각기 다른 내용의 경험을 겪는' 사례는 모든 지각 주체가 동일하게 '미분음'이라는 대상을 포착했으나 그 대상에 관하여 갖는 사적인 느낌이나 인상 등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사례가 아니라, 동일한 대상에 관한 지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체는 자신의 지각 대상을 '표준음'과 동일시하는 반면 다른 주체는 자신의 지각 대상을 표준음과 분명히 다른 '미분음' 그 자체로 포착하는 사례이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미분음 지각의 사례를 살펴보자. 4옥타브 라와 그보다 미세하게 음고가 낮은 어떤 음 $\alpha$를 철수와 영희에게 들려주었다고 해보자. 단, 이때 철수는 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하기 위해 고도의 청음 훈련을 받아 온 청자이고, 영희는 음악적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청자이다. 철수와 영희는 분명 동일하게 '4옥타브 라'와 $\alpha$를 모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자신이 들은 소리가 '4옥타브 라'와 $\alpha$를 구분하는 반면, 영희는 '4옥타브 라'와 $\alpha$를 동일한 것으로 지각한다. 이처럼 음악적 숙련도가 높거나 생득적으로 절대음감과 같은 능력을 가진 청자는 평범한 지각 주체들과 달리 미분음에 관한 경험 내용을 갖는다. 반면 별도의 음악적 훈련을 받지 못했거나 음악적 지식이 없는 청자는 표준적인 음으로 간주되는 반음계의 12음과 그로부터 미세하게 차이나는 음높이를 가진 소리를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미분음 지각을 하지 못한다.

미학에서의 논의를 포함하여 음고 지각에 대한 여러 분과 학문에서의 연구는 각자가 상정하는 이론 체계를 토대로 위와 같은 미분음 혹은 미세 음고에 대한 지각이라는 문제적 사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보고자 노력해왔다. 이러한 문제 사례까지 정합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는 이론이라면, 적어도 그렇지 못한 여타의 이론보다 더 큰 설명력을 가지면서 더 많은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미분음 혹은 미세 음고에 관한 지각 경험에 대해 설명하려는 시도들 중 대표적인 두 논의로 경험과학에서 제기되는 개념주의적 입장인 "음계도 가설"과 미학에서 제기되는 비개념주의적 입장인 'N-음고 지각'에 관한 래프먼(Diana Raffman)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겠다.

## 2. 미분음 지각에 관한 기존 논의들

음고 지각 또한 지각이라는 심적 상태의 일종이기에, 인간의 음고 지각 메커니즘에 관한 논의는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를 토대로 고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음고 지각에 관한 기존의 학술적 논의들을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 사이의 논쟁의 구도와 겹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념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이 인간의 지각 경험의 내용은 전적으로 '사고의 구성 단위'인 개념으로만 구성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몇몇 이들은 인간의 음고 지각 경험이 전적으로 사고의 특정한 구성 단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에 그 내용 또한 전적으로 개념적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비개념주의를 옹호하는 이들이 인간의 지각 경험의 내용에는 개념 외의 무언가인 비개념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유사하게, 음고 지각 경험의 내용에는 개념만으로는 포섭이 불가능한 것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본 절에서는 인간의 음고 지각을 설명하고자 하는 기존의 논의들을 각각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의 입장과 유사한 것으로 구분하여, 음고 지각에 관한 개념주의적 입장과 음고 지각에 관한 비개념주의적 입장으로 크게 두 입장으로 나누어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먼저 음고 지각에 관한 개념주의로서 경험과학에서 제기되는 음계도 가설을 살펴보고, 음고 지각에 관한 비개념주의로서 다이애나 래프먼의 N-음고 지각에 관한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음고 지각에 관한 개념주의적 입장과 비개념주의적 입장 모두 미분음 지각과 같은 음고 지각 사례를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없음을 보이고자 한다.

### 2.1. 음고 지각에 관한 개념주의적 입장: 음계도 가설을 중심으로

본고의 예비적 고찰에서 보았듯,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

는 인간의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이라는 사고의 구성 단위로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과 유사하게, 음고 지각에 관한 개념주의는 인간의 음고 지각의 내용이 특정한 구성 단위로만 구성된다고 주장하고, 더 나아가 그 구성 단위가 무엇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신경과학과 음악 심리학 등의 분과 학문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의 지각에 대한 경험과학적 탐구를 시도하는데, 그 중에서 일군의 연구자들은 우리의 음고 지각의 모든 사례에 있어서 음계도가 전제된다고 논한다.[177] 이러한 논의는 "음계도 가설(scale-degree hypothesis)"이라고 불린다. 음계도 가설에 의하면, 청자는 어떤 음들을 연쇄적으로 들을 때, 자신이 들었던 음들의 음고가 정확히 무엇인지 포착하지 못했더라도 그 음들의 음고를 특정한 음계에 속하는 표준음의 음고로 표상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음고 지각 경험 이전에 이미 청자의 마음 속에 음고 지각에 개입하는 개념틀(framework)로 선제된 음계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음계도 가설의 옹호자들은 자신들의 주장이 미세 음고 지각의 사례에서도 성립한다고 논한다. 즉, 하나의 선율(melody)로 제시되는 일련의 음들처럼 연쇄적으로 제시되는 음들의 음고에 관한 지각에 있어서, 청자는 자신이 들은 소리가 실제로는 미분음일지라도 그 소리를 12음계에서의 표준음으로 지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음계도 가설은 여러 인지과학자들과 음악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음고 지각의 메커니즘에 관한 설득력 있는 가설로 받아들여져 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다울링(Jay Dowling)의 논의이다. 다울링은 단일한 선율을 구성하는 음들의 음고 정보는 그 선율의 오르내림의 패턴을 형상화한 윤곽(contour)으로 구성된 도식으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는 연구

---

177) 본절에서 후술하는 다울링과 하우드 외에도, 음고에 관한 신경망 이론(Neural Network Theory for Pitch)을 옹호하는 바루차(Jamshed Bharucha)나 레이든(Bernice Laden) 등이 이러한 입장을 옹호한다. 이들은 인간의 마음이 인간 두뇌를 구성하는 뉴런과 같은 신경 요소들의 체계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경망 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의 음고 지각도 필연적으로 신경망을 거쳐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Bharucha, Jamshed. "Pitch, Harmony, and Neural nets: A Psychological Perspective". in *Connectionism and Music.* The MIT Press (1991)과 Laden, Bernice., and Keefe, Douglas. "The Representation of Pitch in a Neural Net Model of Chord Classification". *Computer Music Journal* (1989)을 참고하라.

결과를 제시한다.[178] 다울링은 다음과 같은 실험으로부터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한다. 그는 21명의 대학생들을 2년 이상 청음 훈련을 받았거나 그에 준하는 음악적 지식을 겸비한 피험자군과 2년 미만으로 청음 훈련을 받았거나 음악적 지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족한 대조군으로 구분한 뒤, 각 피실험자들에게 두 개의 짧은 멜로디를 들려준 뒤 두 멜로디를 구성하는 음들의 음고에 관한 여러 물음들을 주었다. 먼저, 멜로디를 구성하는 음들 중 특정한 하나의 음의 음고만을 물어보는 경우에 있어서는 청음 훈련을 받았거나 음악적 지식이 많아서 사전에 음계와 같은 도식을 선제하는 피험자군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모두 비슷한 비율로 답하거나 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멜로디를 구성하는 음들의 음고 간의 윤곽을 그려보게끔 한 후 그 윤곽 내에서 특정한 지점에 해당하는 음의 음고를 물어보았을 때는 피험자군의 답변의 정확도가 대조군에 비해 훨씬 높았다. 이러한 실험 결과에 따라, 다울링은 멜로디 내의 음고 지각과 멜로디 기억에 있어서 윤곽이라는 요소가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다울링의 주장은 음계도 가설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음고 지각에 있어서 일종의 선제된 도식으로 작동하는 윤곽의 존재를 함축한다는 점에서 음계도 가설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하우드(Dane Harwood)는 다울링의 논의를 계승하되 이를 좀 더 발전시킨다. 하우드는 단일한 선율을 구성하는 음들의 음고에 관한 지각 경험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것이 그 음들의 음고 변화에 따른 윤곽이라는 다울링의 주장에 찬성하긴 하지만, 음고 지각 경험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윤곽보다 더 구체적인 무언가라고 주장한다.[179] 그래서 하우드는 음고 지각에 있어서 작용하는 도식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명해내고자 한다. 하우드는 연구를 통해 음고 표상이 이러한 지각에서 활용되는 도식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논한다. 그는 음고들이 추상화된 반음계들의 연쇄로서 저장된다고 주장한다.[180] 즉, 한 멜로디를

178) Dowling, Jay. “Scale and Contour: Two Components of a Theory of Memory for Melodies”. *Psychological Review* 85 (1978)
179) Dowling, Jay., and Harwood, Dane. *Music Cognition*. Academic Press (1985), p. 128.
180) Ibid.

구성하는 음들의 음고에 관한 지각은, 이동 '도' 법(Movable-do system)에서의 "도", "레", "미"와 같은 계이름과 같이, 고정된 주파수처럼 절대적인 값은 아니더라도 특정 체계 내에서 상대적으로 고정된 표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요컨대, 하우드는 도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해당하는지에 있어서는 하울링의 논의와 차이를 보이긴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음고 지각이라는 심적 상태의 메커니즘에는 음고에 관한 도식이 지각 경험보다 이전에 전제되어 있다고 상정하고, 그 도식을 거쳐서 산출된 표상이 음고 지각 경험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간주한다. 다만, '도식'의 실제적인 사례가 바로 서구 조성 음악에서의 '음계도'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간의 음고 지각에 있어서 최소 단위로 작동하는 '음계도'라는 도식이 항상 개입한다고 간주하는 음계도 가설은 개념주의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청자의 음고 지각에 있어서 '음계도'라는 최소 단위가 항상 개입하므로 청자의 음고 지각 경험의 내용은 필연적으로 C-음고라는 범주로 구성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고 지각에 관한 개념주의적 입장인 음계도 가설은 그 이론적 장점에 있어서도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와 유사한 장점을 갖는다. 즉,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가 일상적 사례로부터의 직관을 잘 설명하듯, 음고 지각에 관한 개념주의적 이해도 음고 지각에서의 일상적 사례를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음계도 가설은 음악적 지식이 많지 않거나 전문적인 청음 훈련을 받지 않은 청자들의 선율 청취 같은 일상적 사례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강점을 갖기에 많은 지지를 받는다.

이를테면, 특별한 청음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평범한 청자에게 조율이 조금 잘못되어 모든 음에서 표준음의 주파수보다 약간 낮은 주파수에 상응하는 음고의 음을 발생시키는 피아노로 모차르트의 "작은별 변주곡"의 첫 소절을 연주하여 들려준 후, 해당 소절의 멜로디를 구성하는 음들의 음고가 무엇인지를 답하도록 했다고 해보자. 비록 피아노의 잘못된 조율로 인해 표준음보다 미세하게 낮은 음고를 갖는 음들로 멜로디가 구성되지만, 그 청자는 흔히 알고 있는 다장조 음계에 입각하여 멜로디

의 음을 <도>-<도>-<솔>-<솔>-<라>-<라>-<솔>로 지각한다. 즉, 이와 같은 일상적 사례는 평범한 청자가 발생된 소리들을 있는 그대로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소리들로 인해 입력되는 정보값이 '음계도'라는 도식을 거쳐 지각 주체에게 표상화되어 지각된다는 것을 함축한다는 점에서 음계도 가설에 설득력을 불어 넣는다.

그러나 음계도 가설은 반음계에서의 표준음과 인접한 미분음의 지각 경험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 동일한 미분음에 대하여 왜 음악적으로 숙련된 청자와 평범한 청자의 지각 경험 내용이 다를 수 있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 음계도 가설에 따르면, 실제로 지각되는 대상인 소리가 설령 표준음의 음고와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음고를 가지고 있더라도 음계도라는 도식을 거쳐 지각 경험의 내용이 산출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든 청자는 음계 내의 표준음만을 그 지각 경험의 내용에 포함해야만 한다. 그러나 평범한 청자와는 달리 절대음감을 타고난 청자나 청음 훈련을 통해 표준음과 미분음의 음고를 후천적으로 식별해낼 수 있게 된 청자는 미분음 그 자체에 관한 내용을 지각 경험의 내용으로 갖는다. 예컨대, 숙련된 청자의 대표 격인 연주자는 연주하게 되는 악기의 연식이나 공연장의 기온 및 습도 등에 따라서, 표준음을 연주하더라도 그 표준음의 음고와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음고의 음이 연주된다는 것을 포착하고 그에 맞추어 조율을 요청한다. 즉, 예민한 연주자는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악기들로부터 발생하는 미묘한 음고 차이를 포착해내어 표준음에 인접하지만 분명히 서로 다른 소리임을 지각해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범한 청자에게는 이와 같은 조율 과정이 없더라도 모두 그저 동일한 소리로 들릴 뿐이다. 평범한 청자는 예민한 연주자 혹은 숙련된 청자와는 달리, 그 음고에 있어서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소리들에 대해서 전부 표준음과 동일시할 것이다. 이처럼 동일한 음에 대한 서로 다른 두 내용의 지각 경험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음계도 가설은 미분음에 대한 지각 경험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 2.2. 음고 지각에 관한 비개념주의적 입장: 래프먼의 ‘N-음고’ 지각 이론을 중심으로

음고 지각에 관한 개념주의적 입장이 미분음 지각을 비롯한 음고 지각 사례 일반을 충분히 설명해내지 못하기에, 몇몇 이들은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의 입장과 유사하게 인간의 음고 지각 경험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들은 앞서 살펴 본 음계도 가설과 같은 개념주의적 논의로는 인간의 음고 지각 경험의 현상적 특징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인간의 음고 지각 경험에는 비개념적 내용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음고 지각에 관한 비개념주의적 입장을 옹호한다.

이러한 입장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미학자는 바로 래프먼이다. 래프먼은 앞서 살펴 본 음계도 가설만으로는 우리의 음악적 경험의 풍부함과 세밀함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논의로서 ‘N-음고’ 지각 이론을 제시한다. 래프먼의 논변은 음악의 형언불가능성에 관한 세분화로부터 출발한다. 래프먼은 음악이 형언불가능성(ineffability)을 가진다고 주장한다.[181] 즉, 래프먼은 음악에는 언어화될 수 없는 국면이 있다고 생각하고[182], 이렇게 언표될 수 없는 음악의 국면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래프먼은 음악의 형언불가능성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의 음고 지각 경험을 언급한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래프먼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보기 위해, 래프먼이 주장하는 음악의 형언불가능성의 세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중 세번째 유형인 뉘앙스 형언불가능성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음고 지각에 관한 비개념주의적 입장인 ‘N-음고’ 지각에 관한 래프먼의 논변을 살펴볼 것

181) Raffman, Diana. *Language, Music, and Mind.* MIT Press (1993), pp. 68-76.

182) 음악의 형언불가능성은 크게 두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첫째, 음악은 인간에게 언어보다 더 일반적인 무언가를 전달하기에 형언불가능하다. 둘째, 음악은 인간에게 언어보다 더 세밀하고 미묘한 무언가를 전달하기에 형언불가능하다. 음악의 형언불가능성에 대한 이와 같은 두 방식의 이해는 분명 주목할만한 큰 차이지만, 본고에서는 음악의 형언불가능성 자체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기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음악의 형언불가능성의 두 의미를 구분하려는 시도에 관해서는 이종희, 「음악적 표현성과 말할 수 없음(ineffability) 논제에 관하여」, 『미학』 제77집 (2014)를 참고하라.

이다.

래프먼은 음악의 형언불가능성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 각각의 형언불가능성이 어떤 것인지를 상세히 설명한다. 첫째로, 래프먼에 의하면, 음악은 구조적 형언불가능성(structural ineffability)을 가진다.[183] 음악의 구조적 형언불가능성은 우리가 음악에 대해 특정한 표상을 가지는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우리는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대한 특정한 표상을 갖는다. 그리고 이 표상의 내용은 청자가 음악에 대해 갖는 믿음이나 판단, 지식과 같은 인지적 상태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왜 그 표상의 내용이 주체로 하여금 바로 그러한 내용의 믿음이나 판단을 갖도록 하는지, 다시 말해, 지각을 통해 형성된 특정한 음악적 표상이 어떠한 구조를 토대로 할당되기에 주체가 바로 그러한 내용의 인지적 상태에 놓이게 되는지를 우리가 항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음악 연주와 관련된 지식의 사례를 떠올려보자. 숙련된 음악가들은 연주를 할 때 자신이 연주하고 있는 곡을 기보해 놓은 악보에 자세한 지시 사항이 없어도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주해야 할지를 안다. 이를테면, 노련한 연주자는 '이 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연주해야겠군.' 이라거나 '저 부분에서는 천천히 늘여서 연주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아.' 와 같은 내용의 방법지를 왜인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다는 것이다. 래프먼은 이처럼 느림이나 빠름 등과 같은 속성을 연상시키는 표상이 왜 듣고 있는 음악의 여러 구조들 중에서 바로 그 부분과 연결되는지를 명시적으로 알진 못하지만 어쨌건 그 음악에 대해 알게 되는 것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음악의 구조적 형언불가능성이라고 부른다.

둘째로, 래프먼에 의하면 음악은 느낌 형언불가능성(feeling ineffability)을 가진다.[184] 우선 래프먼은 음악의 느낌 형언불가능성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 음악에 관한 전통적인 미학적 논의를 검토한다.[185] 전통적인 미학적 논의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한 음악 작품을 '안다'는 것

183) Ibid.
184) Ibid, pp. 78-83.
185) Ibid, p. 78.

은 곧 그 작품에 관한 지각 경험을 통해 특정한 표상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그 표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음악미학의 논의들은 이때 작품으로부터 산출되는 지각적 표상의 내용이 대체로 '느낌'의 형식을 취한다고 주장한다. 달리 말하자면, 청자가 어떤 음악 작품에 대해 '안다'는 것은, 그 청자가 작품을 듣는 경험을 겪은 후 해당 청취 경험으로부터 산출된 표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우리는 일련의 소리들로 구성된 한 마디를 듣고 그 마디를 "다운비트(downbeat)"라는 내용을 갖는 소리 사건으로 표상하곤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당 소리 사건에 대해 갖게 된 표상으로부터 '인접한 다른 소리들에 비해 강조되는 느낌'을 받거나 '박자가 다른 부분의 박자보다 더 센 느낌'을 받는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어떤 음을 듣고 그 소리를 "으뜸음"이라는 소리 사건으로 표상하곤 하는데, 이 표상으로부터 '안정적이고 이완시키는 느낌'이나 '진행되는 전개를 끝맺는 듯한 느낌'을 경험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구들이 그 표상으로부터 비롯되는 느낌 그 자체를 완벽히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리 사건으로부터 갖게 되는 지각적 표상이 주는 느낌은 실시간으로 경험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기술구는 특정한 시점(時點)에서의 느낌만을 포착하여 언어로 환원시킨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음악이 청자에게 제공하는 느낌은 형언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래프먼은 이를 느낌 형언불가능성이라고 명명한다.[186]

래프먼이 논하는 이러한 두 형언불가능성은 모두 음악의 인지와 관련이 있는 형언불가능성이다. 왜냐하면, 앞서 살펴보았듯 음악의 구조적 형언불가능성과 느낌 형언불가능성은 모두 음악을 지각하는 과정이 아니

186) 래프먼은 음악의 형언불가능한 느낌을 언어의 의미(meaning)와 유비한다. 래프먼에 따르면, 음악이 갖는 느낌은, 특정 언어에 대한 앎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의미'와 유사하다. 다만, 언어의 의미에 관한 의미론(semantics)과 완전히 동일한 것이 음악에서는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래프먼은 음악의 느낌을 '유사-의미(quasi-meaning)'로 규정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논의는 기경서, 「래프먼(D. Raffman)의 '음악적 의미' 이론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미학 석사학위논문(2015)을 참고하라.

라 지각을 통해 산출된 표상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음악에 대한 앎 혹은 지식과 같은 인지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반면, 래프먼이 제시하는 음악의 세번째 형언불가능성은 음악에 대한 지각과 관련이 있다. 래프먼의 논의에 따르면, 셋째로 음악은 뉘앙스 형언불가능성(nuance ineffability)을 가진다.[187] 래프먼은 음고를 비롯한 음악적 요소들에 대한 지각에 있어서, 종종 "뉘앙스"[188]라고 불리는 음악의 어떤 특징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래프먼은 우리가 음악을 듣고 그 음악에 대한 지각 경험으로부터 표상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분명 포착이 되긴 했지만 범주화와 같은 방식을 통해 언어로 보고하는 일에 실패하는 음악적 특징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바로 그러한 음악적 특징을 산출하는 속성을 "뉘앙스"라고 정의한다.[189] 다시 말해, 분명히 지각에 의해 포착되었기에 청자는 어떠한 뉘앙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의식할 수 있기에 뉘앙스의 존재를 식별할 수는 있지만, 그 뉘앙스가 정확히 무엇이고 또 그 뉘앙스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특히, 래프먼은 음고 지각의 사례에서 뉘앙스의 존재가 나타난다고 강조한다. 래프먼에 의하면, 뉘앙스는 미세 음고를 갖는 미분음에 대한 지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앞서 보았듯, 미분음은 온음과 반음 사이에서 미세한 음고를 갖는 소리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서구 조성 음악은 한 옥타브를 7개의 온음과 5개의 반음으로 분할한 반음계를 음악의 기본 전제로 삼는다. 즉, 반음계는 서구 조성 음악에서 일종의 기본적인 문법처럼 간주되기에, 서구 조성 음악의 표준적인 범주들만을 가지고는 미분음에 대해 형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분명 미분음은 존재하며, 심지어 숙련된 청자에게는 표준음과 명확히 구별되는 서로 다른 대상으로 지각된다. 명백히 존재하지만 형언할 수 없는 미분음을 보다 구체적으로

187) Ibid. pp. 73-79.

188)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뉘앙스"는 '음색, 명도, 채도, 색상, 어감 따위의 미묘한 차이. 또는 그런 차이에서 오는 느낌이나 인상'을 뜻하는 단어이다. 분명 "뉘앙스"는 프랑스어지만, 이를 대체할만한 적확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듯하여, 본고에서도 "뉘앙스"라고 음차하여 사용했다.

189) Ibid. p. 17.

설명하기 위해, 래프먼은 음고에 있어서 뉘앙스를 도입한다. 그래서 래프먼은 음고라는 속성을 이분화하여, 반음계에 속하는 표준 12음의 음고를 "C-음고(chromatic pitch)" 라고 부르고, C-음고로 포섭되지 않는 미분음의 음고를 "N-음고(nuance pitch)" 라고 부르며 둘을 구분한다.[190]

N-음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또 그 존재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래프먼이 왜 C-음고 외의 또다른 음고의 존재를 상정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자. 래프먼은 정보 수용 과정으로서의 지각에 관한 인지심리학적 논의가 제시한 인간의 정보 처리 한계점을 N-음고의 존재를 상정하기 위한 배경으로 삼는다. 대다수의 인지심리학자들이 동의하듯, 인간의 심적 과정은 뇌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보다 효율적인 정보 처리 방식을 필요로 한다. 즉, 효율적인 심적 과정을 위해서는 심적 과정에 동원되는 정보 중 잉여적인 값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압축하여 뇌에서 연산되는 정보의 양을 줄여야만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심적 과정은 수용된 정보들 중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낼 장치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활용되는 심적 장치를 인지심리학자들은 "도식(schema)" [191]이라고 부른다. 인지심리학자 앤더슨(John Anderson)은 도식을 "대상들의 일반적인 범주들, 사건들의 집합들, 그리고 사람들의 유형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의 상당수를 조직하는 지식의 크고 복합적인 단위" [192]라고 규정하면서 도식을 인간의 지식 형성을 비롯한 인지에 동원되는 주요한 심적 장치 중 하나로 간주한다. 즉, 인간은 심적 과정에 있어서 수용된 수많은 정보들을 그 정보들과 유관한 단위들로 구성된 일종의 단일한 네트워크인 도식을 통해 처리한다는 것이다.[193]

---

190) Ibid. pp. 64-65.

191) 앤더슨 외에도, 바틀릿(Frederic Bartlett)과 피아젯(Jean Piaget), 루멜하트(Daivd Everett Rumelhart) 등의 인지심리학자들은 도식이 인간의 지식 형성을 비롯한 다양한 인지적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간주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Bartlett, Frederic.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2) 나 Piaget, Jean.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52), p. 7.을 참고하라.

192) Anderson, John.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Freeman (1980). p. 128.

193)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이 인지에 있어서 '도식'을 활용한다고 주장하는 인지심리학에서의 논의는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이러한 도식은 필연적으로 재인(recognition)이 가능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도식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투입되는 정보와 유관한 범주나 표상과 같은 특정 단위들을 반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이러한 반복적 활용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지는 심적 대상을 통해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뇌의 물리적 한계로 인해 인간이 저장할 수 있는 정보의 양에는 한계가 있기에, 도식을 형성하는 정보들을 매번 단기 기억을 통해 새로이 불러오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이처럼 도식은 단기 기억이 아닌 장기 기억을 통해 유지되는 대상이다.

래프먼은 앤더슨의 도식에 관한 논의를 자신의 논변에 활용한다. 앞서 본 앤더슨의 논의에 따르면, 우리의 심적 과정은 입력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그 정보와 관련성이 있는 여러 표상들로 구성된 체계와 범주의 집합인 도식에 투입하여 처리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래프먼은 서구 조성 음악에서 도식이 서구 조성 음악의 전통적인 문법처럼 자리하고 있는 반음계와 그에 속하는 표준음의 음고인 C-음고를 통해 재현된다고 지적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래프먼은 서구 조성 음악이 전통적으로 반음계에 속하는 12개 음인 C-음고로 구성된 "반음계적 사건(chromatic pitch-event)"에 관한 규칙과 관습을 일종의 문법으로 체계화해왔다고 말하며, 이러한 문법이 바로 오늘날 서구 조성 음악의 "음악적 문법(musical grammer, 이하 "M-문법")"이라고 논한다.[194]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M-문법이라는 도식에 따라 음악을 청취하거나 창작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1절에서 보았듯, 우리는 일상적으로 음악에서 C-음고로 구성된 M-문법만으로는 포섭되지 않는 여러 소리들을 마주한다. 특히, M-문법에 따른 C-음고 범주만으로는 결코 형언할 수 없는 무언가가 음악 지각의 사례에서 실제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래프먼은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C-음고가 아닌 다른 유형의 음고를 상정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언불가능한 음고가 바로 자신이 논하는 음악의 형언불가능성의 한 유형을 산출하는 "뉘앙스"에 해당한다고 덧붙인다. 그래서 래프먼은 이러한 미

194) Raffman. *op. cit.*, p. 64.

세한 음고를 “뉘앙스 음고(이하 “N-음고”)” 라고 부른다.[195]

래프먼은 N-음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 첫째로, 래프먼은 음향심리학적 실험을 근거로 제시한다. 래프먼이 언급하는 실험은 다음과 같다.[196] 먼저, 여러 피실험자들에게 반음보다 미세한 정도로 음고 차이가 나는 두 음을 여러 쌍 들려준다. 이때, 각 쌍을 구성하는 두 음은 계속해서 달라지지만, 그 두 음의 음고차는 동일하다. 즉, 피실험자들은 여러 쌍의 소리들을 들으며 특정한 미세 음고를 갖는 미분음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듣는다. 이후, 각 피실험자에게 자신이 들었던 두 음 사이의 음고차가 얼마였는지에 대해서 답하도록 했다. 그러자 모두 동일하게 일정한 미분음만큼을 그 차이로 갖는 두 음의 쌍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자의 경우 그 쌍들로부터 식별되는 두 음 사이의 간격을 20여개 정도의 각기 다른 음고로만 식별한 반면, 또 다른 어떤 청자는 두 음 사이의 간격을 서로 다른 300여개 정도의 음고로 구별해냈다.[197] 이러한 실험 결과는 청자가 반음보다 더 미세한 미분음도 분명히 지각한다는 것이 참임을 뒷받침한다. 다시 말해, 미분음 지각에 있어서 청자는 서구 조성 음악의 표준적인 범주로는 형언할 수 없는 N-음고를 포착한다는 것이다. 피실험자가 반음보다 더 미세한 음고 차이를 갖는 두 음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를 지각했기에, 이 실험의 결과는 곧 청자가 C-음고로 구성된 M-문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음고들도 실제로는 지각하고 있음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래프먼이 N-음고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는 특수한 연주 기법의 사례이다. 래프먼은 N-음고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연주 기법의 사례로 프렛(fret)이 없는 기타나 베이스를 쳐서 내

195) Raffman. *op. cit.*, pp. 66-67.

196) Raffman. *op. cit.*, p. 65. 래프먼은 이를 Burns, Edward. “Intervals, Scales, and Tuning”. in *The Psychology of Music*. Academic Press (1982)에서 재인용하였는데, 번스는 이 실험을 Kameoka, Akio., and Kuriyagawa, Mamoru. “Consonance Theory Part I: Consonance of Dyads”. *J Acoust Soc Am* 45 (1969)와 Plomp, Reiner., and Levelt, Williem. “Tonal Consonance and Critical Bandwidth”. *J Acoust Soc* AM 38 (1965)로부터 인용하고 있다.

197) 심지어 이는 실험에 참여한 피실험자의 반응 중 양극단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야기한 것일 뿐, 많은 사람들은 두 음의 간격에 해당하는 음고를 식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개수를 제시했다.

는 벤딩음(bending note)[198]이나 슬라이딩음을 꼽는다. 프렛은 현악기의 목부분에서 음정들을 일부씩 분절하기 위한 분절점과 그 지점을 표시하기 위한 직선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두 프렛 사이의 간격은 서구 조성음악에서의 반음과 일치하기에, 이러한 프렛이 없는 현악기의 경우 표준음을 정확하게 연주하기 위한 시각적이고 촉각적인 참조점이 부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프렛이 없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는 반음계 내의 C-음고를 정확히 지판에서 짚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심지어 프렛이 없는 현악기로 현을 의도적으로 밀거나 당기는 벤딩이나 슬라이딩과 같은 기법을 구현해낼 경우, 연주되는 소리의 음고는 표준음의 음고보다 미세하게 낮거나 높아져서 C-음고로 포섭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래프먼은 그럼에도 청자가 이러한 연주 기법을 통해 산출되는 소리 또한 성공적으로 지각해낸다는 사실이 C-음고 외의 무언가인 N-음고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래프먼의 이러한 논의는 "N-음고"라는 특수한 음고 개념을 도입하여, 앞서 보았던 개념주의적 입장인 음계도 가설과는 달리 미분음 지각의 사례라는 난제를 보다 잘 설명해낸다는 장점을 갖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분음 지각을 N-음고에 관한 지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래프먼의 시도는 크게 두 가지 철학적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않다.

첫째로, N-음고라는 별도의 속성을 상정하는 래프먼의 논변은 과도하게 존재자의 수를 늘린다. 래프먼의 논의에 따르면, 음고는 단일한 속성이 아니라 "N-음고"와 "C-음고"라는 서로 다른 두 유형으로 구성된 일종의 범주이다. 즉, 음고를 단일한 존재자로 이해하는 일상적인 방식과는 달리, 래프먼의 논의에 따르면 음고는 서로 다른 두 존재자로 구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소리의 높낮이를 단일한 속성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예컨대,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듣고 그 소리의 높낮이에 관하여 "이 소리의 C-음고는 이러저러하다." 혹은

198) 벤딩은 현악기를 연주하는 데 있어서 현을 의도적으로 끌어올려 소리의 음을 변화시키는 기법을 가리킨다. 특정한 운지법을 정확하게 짚어냈다면 동일한 음고의 소리가 연주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연주자가 현을 끌어올리는 벤딩을 통해 그 소리의 음고를 미묘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소리는 C-음고의 측면에서 이러저러하다.”라고 논하면서 “이 소리의 N-음고는 그러저러하다.” 혹은 “이 소리는 N-음고의 측면에서 그러저러하다.”라고 논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구분 없이도 우리는 자신의 음고 지각 경험에 관한 많은 진술들을 제시하고 또 그러한 진술들을 토대로 의사소통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일상적으로 “N-음고”와 “C-음고”라는 별개의 두 존재자의 실재에 따른 구분 없이도 음고 지각 경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래프먼의 논의는 음고에 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보다 쓸데없이 존재자의 수가 많은 세계를 상정하는 것이다.[199]

둘째로, N-음고에 관한 래프먼의 논변은 그 타당성이 검증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를 낳는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직관과 달리 존재자의 수를 늘리고자 하는 래프먼의 논의는 일종의 존재 주장이기 때문이다. 즉, ‘N-음고가 존재한다.’라는 래프먼의 논변의 요지는 곧 일종의 존재론적 개입(ontological commitment)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래프먼이 N-음고 지각 이론에서 논하는 바는 ‘X는 존재한다.’의 형식으로 구성된 실질 존재론(substantive ontology)에서의 존재 주장의 일종이다. 그런데 이러한 존재론적 개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해당 존재 주장으로부터의 존재론적 하강을 통해 개별 존재론적 사태가 옳게 도출될 수 있는지와 해당 주장이 개입하고 있는 개별 존재론적 사태들로부터의 의미론적 상승이 모두 가능한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만 한다. 즉, N-음고의 토큰이라고 간주되는 미분음 사례들로부터 N-음고라는 속성 일반이 정말로 추상될 수 있는지(의미론적 상승)와 ‘N-음고가 존재한다.’라는 주장으로부터 개별 미분음들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이 옳게 예화될 수 있는지(존재론적 하강)를 모두 따져볼 수 있어야만 래프먼의 논변의 타당성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200] 그런데 래프먼의 논변은

199) 콰인(Willard Quine)은 「존재하는 것에 관하여(*On What There Is*)」에서 비-존재의 존재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이농(Alexis Meinong) 식의 존재론이 과도하게 많은 수의 존재자를 상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심지어 콰인은 마이농 식의 존재론이 지나치게 존재자의 수를 늘리게 됨으로써, 세계를 “과밀한 우주(overpopulated universe)”로 만들고 종래에는 우주를 “슬럼”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Quine, Willard. “On What There Is”. *The Review of Metaphysics* (1948), pp. 23-24.

N-음고의 존재를 경험과학의 실험 결과와 몇몇 연주 기법으로부터 산출되는 미분음 사례에 대한 관찰로부터 당위적으로 도출해낼 뿐이다. 즉, 래프먼이 N-음고의 존재에 관한 논증을 전개하는 방식은 '이러저러한 실험 결과가 있고 그러저러한 연주 기법에 의해 제시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N-음고가 존재한다고 간주해야만 한다.' 는 것이다. 이는 어디까지나 래프먼의 논의에 따르면 개별 존재론적 사태로부터 존재론적 개입을 산출하는 의미론적 상승이 합리적이라는 사실만을 증명할 뿐이다. 래프먼은 자신의 논의가 존재론적 하강에 있어서도 합리적인지를 증명해내진 못한다. 왜냐하면 래프먼 자신의 정의에 따르면, 뉘앙스란 그 존재 여부가 포착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현상적 특징에 대해서는 언표하거나 보고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래프먼의 논의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N-음고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여러 논거들을 제시할 수도 있어야만 하는데, 래프먼 스스로가 제시하는 N-음고 규정에 의하면 N-음고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진술들을 제시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논증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 따라서 래프먼의 논변은 존재론적 하강이 불가능하기에 그 논변이 타당한지 아

---

200) 콰인은 「존재하는 것에 관하여」와 『말과 사물(Word and Object)』을 통해, 존재론적 개입과 그러한 개입에 관한 탐구인 존재론을 구분해야함을 주장한다. 예컨대, 콰인에 의하면 'X가 존재한다/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형식의 존재 주장은 존재론적 개입에 해당하고, 그러한 단언문에서 "존재하다/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언어 표현이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 논하는 것은 존재론에 해당한다. 콰인은 이러한 구분에 기반하여 어떤 대상의 존재 여부에 대해 경합하는 주장들을 평가하기에 앞서 해당 주장들이 차이를 보이거나 공통적으로 전제하는 "존재" 라는 언어 표현과 그 표현에 상응하는 개념에 대해 메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의미론적 상승(semantic ascent)" 라고 부른다.

비록 콰인은 의미론적 상승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했으나, 어떤 대상의 존재에 관한 철학적 증명을 위해서는, 분명 특정한 존재론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개별 존재론적 개입을 이해하고자 할 경우 그 존재론의 주장이 정말로 타당하고 건전한지를 따져보는 과정도 필요하다(이와 관련해서는 Chisolm 1976; 김영정 1986을 참고하라). 즉, 존재론적 개입으로부터 존재론으로 상승하는 것과는 역의 과정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프라이스(Huw Price)는 "의미론적 하강(semantic descent)" 이라고 부르며, 박준호는 "존재론적 하강(ontological descent)" 이라고 부르는데 본고에서는 박준호의 용법을 따라 "존재론적 하강" 이라고 표기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Price, Huw. "Naturalism without Representationalism". in *Expressivism, Pragmatism and Representation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와 박준호, 「존재론의 범위와 책무: 콰인의 존재론적 개입」, 『논리연구』 16-2 (2013)을 참고하라.

닌지를 아예 검증할 수 없다는 문제를 갖는다.

## 3. 이중 과정 이론의 적용과 그 장점

앞서 살펴 본 음계도 가설과 N-음고 지각 이론과는 달리,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미분음 지각의 사례를 포함한 인간의 음고 지각 전반에 대해 보다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우선, 이중 과정 이론을 음고 지각에 관한 논의에 적용하면, 인간의 음고 지각 일반 또한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라는 서로 다른 두 세부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외부에서 발생된 소리가 귀를 통해 인간의 음고 지각 메커니즘에 입력된다. 곧이어, 아무런 정보 처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날 것의 정보가 음고 지각의 초기 단계로 투입되어, 해당 소리의 음고와 연관된 풍부하고 세밀한 현상적 특징들이 주체의 경험 내용으로써 산출된다. 그리고 이렇게 음고 지각의 초기 단계로부터 산출된 정보는 '주의'의 매개를 통해 인지적 침투가 가능하도록 재구성되어 후기 단계로 투입된다. 후기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로부터 산출되어 투입된 정보의 처리에 있어서 주체가 가진 믿음이나 지식 등이 개입함으로써 개념적인 내용이 최종적으로 산출된다.

이러한 적용을 토대로, 미분음 지각의 사례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먼저, 외부에서 발생된 미분음은 귀를 통해 음고 지각의 초기 단계로 투입되고, 이에 따라 미분음 지각으로부터 비롯된 정보는 초기 단계를 거쳐 비개념적인 경험 내용을 산출한다. 초기 단계로부터 산출된 비개념적 내용은 '주의'의 매개를 거쳐 후기 단계로 재투입되는데, 이때 해당 내용에는 주체의 음악적 지식이나 믿음 등이 침투하여 그 처리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201] 결국 성공적으로 후기 단계를 거쳐 처리된 미분음 지각의 정보는 인지적 침투에 의해 재구성된 새로운 내용이 된

201) 이때 인지적 침투에 동원되는 음악적 지식이나 믿음의 내용은 각 주체의 선천적인 자질의 차이나 훈련에 따른 숙련도의 차이에 의해 매우 다를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동일한 미분음에 대한 서로 다른 내용의 지각 경험이 이루어지는 핵심적인 원인인데, 이에 관해서는 곧 후술할 것이다.

다.

위와 같이 이중 과정 이론을 토대로 미분음 지각 사례를 이해하는 방식은 음고 지각에 관한 기존 논의들에 비해 크게 두 지점에서 더욱 합리적이다. 첫째로, 이중 과정 이론을 통한 미분음 지각 사례에 대한 이해는 미분음 지각 사례를 설명하고자 하는 기존의 논의들에 비해 훨씬 경제적이다.[202] 미분음 지각 사례를 설명하려는 대표적인 기존의 두 논의인 음계도 가설과 래프먼의 N-음고 지각 이론은 각각 음계도라는 심적 대상과 N-음고라는 속성의 존재를 전제해야만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보았듯, 두 논의 모두 각자가 참으로 상정하는 음계도와 N-음고의 실재 여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적으로 존재론적 개입을 하고 있을 뿐이다. 즉, 음고 지각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논변의 성립을 위해 특정한 존재자를 상정함으로써, 존재자의 수를 임의로 늘리고 있다. 반면, 음고 지각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은 이러한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중 과정 이론은 인간에게 이미 생득적으로 주어진 '지각'이라는 심적 상태를 단지 두 유형의 단계로 세분화하고 각 단계에서 산출되는 내용의 성격 또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할 뿐이므로, 세계에 새로운 존재자를 상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중 과정 이론을 통하여 미분음 지각 사례를 이해하는 방식은 앞서 살펴 본 음고 지각에 관한 기존 논의들과 달리, 동일한 미분음에 관하여 평범한 청자와 숙련된 청자가 겪는 지각 경험의 내용의 차이에 대해 더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 라프토폴루스의 논의에 따르면, 지각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가 갖는 주된 차이는 각 단계로부터 산출되는 경험 내용에 대한 인지적 침투의 가능 여부이다. 즉, 이중 과정 이론에 의하면, 지각의 후기 단계로부터 산출되는 경험 내용은 지각의 초기 단계의 내용과는 달리 유관한 인지적 능력이 개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음고 지각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에 근거한다면, 미분음 지각

202) "경제적"이라는 표현은 콰인에게서 빌려왔다. 콰인은 「존재하는 것에 관하여」에서 페가수스와 같은 비-존재가 가능자로서 존재할 수 있다고 간주하는 철학적 입장에 대해 존재론적으로 낭비(prodigical)이며 비경제적이라고 비판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콰인의 표현을 빌어, 이론의 성립을 위해 음계도와 N-음고라는 대상의 존재를 가설적으로 설정하는 기존의 논의들이 "비경제적"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에 있어서 평범한 청자와 숙련된 청자의 차이는 청자의 유관한 인지적 능력 보유 유무로 설명할 수 있다. 예컨대, 절대음감을 선천적으로 타고 났거나 청음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서 후천적으로 음고 지각에 대한 숙련도가 높은 청자나 화성 이론이나 음악학을 공부함으로서 음악적 지식이 풍부한 청자의 경우, 미분음 지각과 유관한 인지적 능력을 갖추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숙련된 청자는 미분음으로부터 발생한 정보를 수용했을 때, 자신이 소유한 음악적 지식에 기반하여 미분음으로부터 발생한 정보에 적절한 인지적 능력을 개입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지적 능력의 개입 가능성은 그 숙련된 청자로 하여금 음고 지각의 초기 단계에서 산출된 정보와 경험 내용이 음고 지각의 후기 단계로까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만든다.

반면, 음악적 지식이나 음고 지각에 있어서 숙련도가 떨어지는 평범한 청자의 경우, 미분음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관한 인지적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예 부재한다. 즉, 숙련된 청자와는 달리, 평범한 청자는 미분음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전혀 갖고 있지 않기에 후기 단계에서 보다 유관한 인지적 능력의 침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청자가 사전에 소유한 음악에 관련된 인지적 능력의 차이에 의해 [표 1]과 같이 동일한 미분음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경험 내용을 갖는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

| | 지각 대상 | 초기 단계 | 침투되는 인지적 능력 | 후기 단계 |
|---|---|---|---|---|
| **숙련된 청자** | 미분음 | 풍부하고 세밀한 비개념적 내용 | 절대음감, 고도의 음악적 지식, 훈련을 통한 미분음 지각의 경험 등 | 표준음과 구분되는 별도의 개념으로서의 '미분음' |
| **평범한 청자** | 미분음 | 풍부하고 세밀한 비개념적 내용 | 약간의 음악학적 지식 등 | 표준음과는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확언하기는 어려운 '무언가' |
| **유관한 인지적 능력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청자** | 미분음 | 풍부하고 세밀한 비개념적 내용 | 부재 | 표준음 |

[표 1] 청자의 숙련도에 따른 음고 지각의 단계별 산출 내용

예컨대, 미분음에 관한 음악학적 논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청자는 음고 지각의 후기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아예 전무하기에 그저 해당 소리를 인접한 표준음과 동일한 것으로 지각할 것이다. 한편, 음감을 선천적으로 타고 났으나 별도의 훈련을 받지 않았고 또 화성학과 같은 음악 이론도 배운 적이 없는 청자의 미분음 지각 사례를 생각해보자. 이러한 청자는 타고난 음감에 따른 믿음이 후기 단계에서 침투하겠으나 동시에 이를 확증할 지식이 부족하여 포착한 소리를 '표준음과는 다르지만 구체적으로 확언하기는 어려운 무언가'와 같이 지각할 것이다. 이처럼 이중 과정 이론은 미분음 지각의 초기 단계에서는 청자의 음악적 지식이나 숙련도 등과 무관하게 정보와 경험 내용이 산출되지만, 후기 단계에서는 투입된 정보에 침투하는 인지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최종적인 지각 경험의 내용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함으로써, 음계도

가설이나 N-음고 지각 이론에 비해 미분음 지각 사례를 보다 일관성 있게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음고 지각에 대해 이중 과정 이론을 적용하는 설명 방식은 미분음 지각 사례에서 청자의 숙련도에 따라 서로 다른 내용의 경험을 겪게 되는 이유를 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이점을 갖는다.

# 결론

본고는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기존의 두 철학적 입장인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와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의 핵심 논지들을 살펴보고, 두 입장이 각각 마주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기존의 철학적 입장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그리고 인지심리학과 뇌과학 등의 자연과학적 방법론을 참고하는 신경철학의 논의를 토대로 한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을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에 관한 대안적 이론으로 제시했다. 더 나아가, 미분음 지각의 사례를 토대로, 이중 과정 이론이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에 비해 인간의 지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모델임을 논증했다.

Ⅰ장에서는 '지각 경험의 내용은 개념적인가 혹은 비개념적인가?'라는 본고의 탐구 주제가 되는 물음을 명료화하기 위해, 해당 물음에 쓰인 세 철학적 개념들의 의미와 범위를 한정했다. 첫째로, 지각 경험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지각적 믿음을 구분하였다. 둘째로, 지각적 믿음과 구분되는 지각 경험 그 자체의 내용이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셋째로, 지각 경험의 내용이 '개념적' 혹은 '비개념적'이라고 진술할 때 '개념'이라는 개체가 무엇과 동일시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예비적 작업을 통해,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을 철학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어서 배제되어야 하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했다.

Ⅱ장에서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두 철학적 노선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개념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일상적인 지각 경험의 사례에서 비롯되는 직관과 지각이 인간의 많은 지식을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기능한다는 사실에 의해, 지각 경험의 내용이 전적으로 개념적이라고 주장하는 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을

합리적으로 규명하는 이론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의 대표적인 특징인 세밀성과 풍부함을 잘 설명하지 못하고, 또 지각 경험의 내용 중에는 재식별이 불가능한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인간의 지각 경험의 내용에는 개념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본고는 개념주의가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을 타당하게 설명하는 철학적 논의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한편 Ⅲ장에서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두 철학적 노선 중 다른 한 축을 담당하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비개념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비개념주의는 평범한 주체가 소유할 수 있는 개념의 수적 한계와 영유아 및 동물과 같은 생명체의 지각 경험 사례를 그 철학적 동기로 삼아, 지각 경험의 내용에는 개념만이 아니라 비개념이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러한 비개념주의는 논증의 태도에 있어서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크레인으로 대표되는 소극적 비개념주의자들은 지각 경험의 내용이 결코 개념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소극적 비개념주의는 개념주의의 주장을 논박하는 것에 그칠 뿐, 끝내 지각 경험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비개념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함을 확인했다. 이로부터 피콕과 같은 적극적 비개념주의자들은 지각 경험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는 비개념의 후보들을 제시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그러나 적극적 비개념주의는 비개념주의의 주된 동기 중 하나인 영유아 및 동물의 지각 경험 사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고, 시지각 경험에 한정되는 논의만을 제시했으며, 소여의 신화에 빠진다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적임을 확인했다. 이로부터 본고는 비개념주의 또한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을 타당하게 설명하는 철학적 논의가 아니라고 평가했다.

Ⅱ장과 Ⅲ장에서의 비판적 검토는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에 관한 기존의 두 철학적 입장이 갖는 공통적인 맹점을 드러내었다.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는 모두 두 노선 모두 지각이 단일한 메커니즘으로 운용되는 심적 상태라고 전제했다. 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이 전적으

로 개념적이라고 주장하기에, 지각은 곧 그것의 모든 내용이 개념화라는 단일한 방식의 가공을 반드시 거쳐 처리되는 심적 메커니즘이라고 간주해왔다. 마찬가지로, 비개념주의는 지각 경험이라는 단일한 심적 상태 내에 개념적 내용과 비개념적 내용이 공존한다고 상정했다. 이렇듯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에 관한 기존의 두 철학적 논의들은 모두 지각을 단일한 메커니즘으로만 구성된 심적 상태라고 전제함으로써, 지각 경험의 내용이 단일한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산출되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기에 해소되지 않는 한계를 가진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본고는 Ⅳ장에서 지각 경험을 복수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된 심적 상태로 규정하여 지각 경험의 내용을 설명하는 대안적 이론 모델을 도입했다. 인지심리학과 뇌과학 등의 동시대 자연과학의 논의를 참고하여 인간의 지각과 인지에 관해 고찰하는 신경철학의 논의 중에서도, 지각 경험이 비개념적 내용을 산출하는 초기 단계와 개념적 내용을 산출하는 후기 단계라는 두 유형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된다는 라프토폴루스의 "이중 과정 이론"을 옹호했다. 더 나아가, 이중 과정 이론이 타 학문 분야의 논의들과 더 정합적이고 소여의 신화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인간의 실제 지각 경험 사례를 더 합리적으로 해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기에, 지각 경험의 내용의 성격에 관한 기존의 두 철학적 입장에 대한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본고는 Ⅴ장에서 이중 과정 이론의 의의를 제시했다. 먼저,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의 논의를 토대로 음고 지각을 설명하고자 하는 음계도 가설과 래프먼의 N-음고 지각 이론의 논변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두 논의 모두 미분음 지각이라는 특수한 지각 경험의 사례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후, 여타의 철학적 논의들과 달리 이중 과정 이론에 기반을 둔 설명 방식이 어떻게 미분음 지각의 사례를 더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는지를 검토했다. 이와 같은 검증을 통해, 본고는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이중 과정 이론이 지각에 관한 여러 철학적 입장들 중 가장 실용적이며 타당한 논의임을 논증했다.

물론 Ⅳ장에서 보았듯, 이중 과정 이론에는 인지적 침투 가능성/불가능성과 경험 내용의 개념성/비개념성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지각의 초기 단계와 후기 단계 사이의 관계가 임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 과정 이론 또한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와 마찬가지로 지각 경험의 내용에 관한 완벽한 철학적 이론으로 간주하기에는 여전히 한계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이중 과정 이론을 통해 첨예하게 대립하기만 하던 개념주의와 비개념주의의 양립 가능성을 모색하여 두 노선의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하는 제3의 길을 제시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 미분음 지각과 같이 지각에 관한 기존의 철학적 논의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던 사례를 보다 더 일관성 있게 설명한다는 점에서 미학적 의의를 갖는다. 궁극적으로 본고는 지각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가능케 하는 이론의 단초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철학적 시도이다.

# 참고문헌

## 국문 단행본

김영건, 『이성의 논리적 공간』,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4)

박연선, 『색채용어사전』, 도서출판 예림 (2007)

이영의, 『베이즈주의 - 합리성으로부터 객관성으로의 여정』, 한국문화사 (2020)

이정모 외 16인, 『인지심리학』, 학지사 (2009)

장이권 외 6인, 『동물행동학』, 월드사이언스 (2021)

한경임, 『사회언어학의 이해』, 리복, 2019

## 국문 논문

기경서, 「래프먼(D. Raffman)의 '음악적 의미' 이론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 미학 석사학위논문 (2015)

김영진, 「비개념적 내용에 대한 크레인과 헥크의 입장 - 비판적 고찰」, 『철학사상문화』 제9호 (2010)

김연희, 「Functional MRI를 이용한 뇌기능 연구」, 『한국뇌학회지』 1 (2001)

박준호, 「존재론의 범위와 책무: 콰인의 존재론적 개입」, 『논리연구』 16-2 (2013)

이시현, 「현대음악에 사용된 미분음 연구」, 연세대학교 음악학 석사학위논문 (1995)

이종희, 「음악적 표현성과 말할 수 없음(ineffability) 논제에 관하여」, 『미학』 제77집 (2014)

이풍실, 「비개념주의와 세밀성 논증 - 켈리의 논증을 중심으로」, 『철학』 제99집 (2009)

전헌상, 「아리스토텔레스의 판타시아론: — 『영혼론』 3권 3장을 중심으로」, 『철학사상』 55호 (2005)

## 영문 단행본

Anderson, John. *Cognitive Psychology and its implications*. Freeman (1980)

Armstrong, David. *Perception and the Physical World*. Routledge & K. Paul (1961)

Bartlett, Frederic. *Remembering: A study in Experimental and Social Psycholog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32)

Beaumont, Antony. *Busoni the Composer*. Indiana University Press (1985)

Bence, Nanay. *Aesthetics as Philosophy of Percep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Brewer, Bill. *Perception and Reas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Boden, Margaret. *Artificial intelligence and Natural man*. Basic Books (1977)

Bosanquet, Robert. *An Elementary Treatise on Musical Intervals and Temperament*. Macmillan and Co (1876)

Busoni, Ferruccio. *Sketch of a New Esthetic of Music*. University of California Libraries (1911)

Crane, Tim(ed.). *The Contents of Experience: Essays on Percep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Dowling, Jay., and Harwood, Dane. *Music Cognition*. Academic Press (1985)

Dretske, Fred. *Knowledge and the Flow of Information*. The MIT Press (1981)

Dummett, Michael. *The Seas of Language*.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Evans, Gareth. *The Varities of Reference*. Oxford University Press (1982)

Fodor, Jerry. *The Language of Thought*.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 *The Modularity of Mind*. The MIT Press (1983)

Gunther, York. *Essays on Nonconceptual Content*. The MIT Press (2003)

James, William. *The Principles of Psychology,* Vol. 1. Henry Holt and Company (1890)

Kahneman, Daniel. *Thinking, fast and slow*. Farrar, Straus and Giroux (2011)

Madrid, Alejandro. *In Search of Julián Carrillo and Sonido 13*.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Marr, David. *Vision: A Computational Investigation into the Human Representation and Processing of Visual Information*. The MIT Press (1982)

McDowell, John. *Mind and Worl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4)

Peacocke, Christopher. *A Study of Concepts*. The MIT Press (1992a)

Piaget, Jean. *The Origins of Intelligence in Children*.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1952)

Pinker, Steven. *The Language Instinct: How the Mind Creates Language*. Harper Modern Classics (2007)

(국역본: 스티븐 핑커, 김한영 외 2인 역, 『언어본능 - 마음은 어떻게 언어를 만드는가?』, 동녘사이언스 (2008))

Prinz, Jesse. *Furnishing the Mind: Concepts and Their Perceptual Basis*. The MIT Press (2002)

Quine, Willard. *Word and Object*. The MIT Press (1964)

Raffman, Diana. *Language, Music, and Mind*. The MIT Press (1993)

Raftopoulos, Athanassios. *Cognition and Perception: How do Psychology and Neural Science inform Philosophy?*. MIT Press (2009)

————. *Cognitive Penetrability and the Epistemic Role of Perception*. Palgrave Macmillan (2019)

Recanati, François, *Perspectival Thought: A Plea for (Moderate) Relativ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Sellars, Wilfrid. *Empiricism and the Philosophy of Mi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97)

Wegner, Daniel. *The Illusion of Conscious Will*. The MIT Press (2002)

Williamson, Timothy. *Knowledge and its limit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Wittgenstein, Ludwig.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Wiley-Blackwell (1953) (국역본: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이영철 역, 『철학적 탐구』, 책세상

(2019))

Zagzebski, Linda. *Virtues of the Mind: An Inquiry into the Nature of Virtue and the Ethical Foundations of Knowle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 그 외 단행본

Huygens, Christiaan. *Le Cycle Harmonique*. Diapason Press (1691)

————. *Novus Cyclus Harmonicus*. Diapason Press (1724)

Maedel, Rolf., and Herf, Franz. *Ekmelische Musik*. Katzbichler, München/Salzburg (1977)

## 영문 논문

Andersen, Richard., Essick, Greg., and Siegel, Ralph. “Encoding of Spatial Location by Posterior Parietal Neurons” . *Science* (1985)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Pitch” . in *ANSI S1.1-1994*. American National Standard Acoustical Terminology (1994)

Baillargeon, Renée. “Physical reasoning in infancy” . in *The cognitive neurosciences*. MIT Press (1995)

Bertelson, Paul., and Gelder, Beatrice. “The psychology of multimodal

perception" . In *Crossmodal Space and Crossmodal Atten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Biederman, Irving. "Recognition-by-Components: A Theory of Human Image Understanding" . *Psychological Review* 94 (1987)

Bonjour, Laurence. "Toward a Defense of Empirical Foundationalism" . in *Resurrecting Old-Fashioned Foundationalism*. Rowman & Littlefield (2000)

Bharucha, Jamshed. "Pitch, Harmony, and Neural nets: A Psychological Perspective" . in *Connectionism and Music.* MIT Press (1991)

Bridge, Holly. "Mapping the visual brain: How and Why" . *Eye* 25 (2011)

Brogaard, Berit., and Chomanski, Bartek. "Cognitive Penetrability and High-Level Properties in Perception: Unrelated Phenomena?" .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96 (2015)

Bruner, Jerome., and Goodman, Cecile. "Value and need as organizing factors in perception" .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42 (1947)

Bullier, Jean. "Integrated model of visual processing" . *Brain Research Reviews* 36 (2001).

Burns, Edward. "Intervals, Scales, and Tuning" . in *The Psychology of Music*. Academic Press (1982)

Burnston, Daniel. “Cognitive penetration and the cognition-perception interface”. *Synthese* 194 (2017)

Byrne, Alex. “Behaviourism”. in *A Companion to the Philosophy of Mind*. Blackwell (1994)

Crane, Tim. “Is Perception a Propositional Attitude?”. *Philosophical Quarterly* 59 (2009)

———. “The Waterfall Illusion”. *Analysis* 48 (1988)

Delk, John., and Filenbaum, Samuel. “Differences in Perceived Color as a Function of Characteristic Color”.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 78 (1965)

Dowling, Jay. “Scale and Contour: Two Components of a Theory of Memory for Melodies”. *Psychological Review* 85 (1978)

Evans, Jonathan., and Frankish, Kieth(eds.). *In Two Minds: Dual Processes and Beyond*.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Frege, Gottlob. “Über Sinn und Bedeutung”. *Vierteljahresschrift für wissenschaftliche Philosophie* XVI (1892)
(영역본: Frege, Gottlob. “On Sense and Reference”. in *Translation from the Philosophical Writings of Gottlob Frege*. Oxford: Blackwell (1952))
(국역본: 고틀로프 프레게, 김은정 외 4인 역, 『뜻과 지시체에 관하여』, 전기가오리 (2017))

Frixione, Marcello., and Lieto, Antonio. “Concepts, Perception, and the Dual Process Theories of Mind”. *The Baltic International Yearbook of Cognition, Logic and Communication* 9 (2014)

Gilchrist, John., and Nesberg, Lloyd. “Need and perceptual change in need-related objec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44 (1952)

Gopnik, Alison., and Meltzoff, Andrew. “The Scientist as Child”. in *Words, Thoughts, and Theories*. (1997)

Heck, Richard. “Nonconceptual Content and ‘The Space of Reasons’”.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109, No. 4 (2002)

Jacoby, Nori., Undurraga, Eduardo., McPherson, Mallinda., Valdés, Joaquín., Ossandón, Tomás., and McDermott, Josh. “Universal and Non-universal Features of Musical Pitch Perception Revealed by Singing”. *Current Biology* Volume 29 (2019)

Kelly, Sean. “Demonstrative Concepts and Experience”. *Philosophical Review* 110 (2001)

Knill, David., et al;, *Perception as Bayesian Infer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6)

Laden, Bernice., and Keefe, Douglas. “The Representation of Pitch in a Neural Net Model of Chord Classification”. *Computer Music Journal* (1989)

Levin, Daniel., and Banaji, Mahzarin. “Distortions in the perceived lightness of faces: the role of race categorie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135 (2006)

Luntley, Michael. “Non-conceptual Content and the Sound of Music”. *Mind and Language* 18 (2003)

Macpherson, Fiona. “Cognitive Penetration of Colour Experience: Rethinking the Issue in Light of an Indirect Mechanism”.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84. (2012)

Marr, David. and Nishihara, Keith. “Representation and Recognition of the Spatial Organization of Three-Dimensional Shapes”. *Proc. Roc. Soc. B.* 200 (1978)

McArthur, David. “Computer Vision and Perceptual Psychology”. *Psychological Bulletin* 92 (1982)

McDowell, John. “The Content of Perceptual Experience”. *Philosophical Quarterly* 44 (1994)

Morgan, Alex. “Representations Gone Mental”. *Synthese* 191 (2014)

Nagel, Thomas. “What is it like to be a bat?”. *Philosophical Review* 83 (1974)

Nes, Anders., Sundberg, Kristoffer., and Watzi, Sebastian. “The perception/cognition distinction”. *Inquiry* 66 (2021)

Peacocke, Christopher. “Scenarios, Concepts, and Perception”. in *The Contents of Experi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b)

————. “Does Perception Have a Nonconceptual Content?”. *The Journal of Philosophy* 98 (2001)

Plomp, Gijs., Hervais-Adelma, Alexis., Astolfi, Laura., and Michel, Christoph. “Early recurrence and ongoing parietal driving during elementary visual processing”. *Scientific reports* 5 (2015)

Prasad, Seema., and Mishara, Ramesh. “The Nature of Unconscious Attention to Subliminal Cue”. *Vision(Basel)* (2019).

Price, Huw. “Naturalism without Representationalism”. in *Expressivism, Pragmatism and Representationalism*.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3)

Prinz, Jesse. “Parenting beauty: Knowledge, Culture and Context in Aesthetic perception”. in *Perception, Cognition, and Aesthetics*. Routledge (2019)

Pylyshyn, Zenon. “Is vision continuous with cognition? The case for cognitive impenetrability of visual perception”. *Behav Brain Sci* (1999)

Quine, Willard. “On What There Is”. *The Review of Metaphysics* (1948)
(국역본: W. V. O. 콰인, 김은정 외 4인 역, 「있는 것에 관하여」, 전기가오리 (2019))

Raftopoulos, Athanassios. “The cognitive impentrability of the content of early vision is a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for purely nonconceptual content” . *Philosophical Psychology* 27 (2014)

——————. “Nonconceptual content: A reply to Toribio’s “Nonconceptualism and the cognitive impenetrability of early vision” ” . *Philosophical Psychology* 27 (2014)

Rodrigo, Jungmann. “The Notion of Sense: Presenting a Non-Fregean Alternative” . *Princípios : Revista de Filosofia* 16 (2009)

Saenz, Meilssa., and Koch, Christof. “The sound of change: visually-induced auditory synesthesia” . *Current Biology,* Volume 18, Issue 15 (2008)

Shams, Laden., Kamitani, Yukiyasu,, and Shimojo, Shinsuke. “What you see is what you hear” . *Nature,* Vol. 408 (2000).

Siegel, Susanna. “Cognitive penetrability and perceptual justification” . *Noûs* 46 (2011)

Speaks, Jeff. “Is There a Problem about Nonconceptual Content?” . *The Philosophical Review*, Vol. 114. (2005)

Stanovich, Keith., and West, Richard. “Individual differences in reasoning: Implications for the rationality debate?” .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2000)

Stokes, Dustin. “Perceiving and Desiring: A New look at the Cognitive Penetrability of Experience”. *Philosophical Studies* 158 (2012)

Toribio, Josefa. “Nonconceptualism and the cognitive impenetrability of early vision”. *Philosophical Psychology* 27 (2014)

Wild, Jonathan. “Genus, Species and Mode in Vincentino’s 31-tone Compositional Theory”. *Music Theory Online* 20 (2014)

Zalta, Edward. “Fregean Senses, Modes of Presentation, and Concepts”. *Noûs* 35 (2001)

## 영문 웹페이지

Godt, Irving. “Costeley, Guillaume.“ *Grove Music Online*. Oxford University Press (20 January, 2001)[접속일: 2023. 05. 01.] http://lps3.www.oxfordmusiconline.com.libproxy.snu.ac.kr/grovemusic/v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781561592630-e-0000006655

Margolis, Eric., and Laurence, Stephen. “Concepts”.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Nov 7, 2005.)[접속일: 2023. 05. 01.]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spr2021/entries/concepts/.

Martin, Michael. “Perception”. *The Routledge Encyclopedia of Philosophy*, Taylor and Francis (1998)[접속일: 2023. 04. 30.] https://www.rep.routledge.com/articles/thematic/perception/v-1.

Siegel, Susanna. “The Contents of Perception”. *The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Mar 18, 2005.)[접속일: 2023. 04. 30.] https://plato.stanford.edu/archives/fall2021/entries/perception-contents/

## 그림

[그림 1] Peacocke, Christopher. *A Study of Concepts*. MIT Press (1992), p. 75. Figure 3.1.

[그림 3] Wittgenstein, Ludwig.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Blackwell (1953), p. 194

Abstract

# Is the Content of the Perceptual Experience Conceptual or Nonconceptual?

## - Defending the Dual Process Theory as a Compatible Model -

Jeon, Dae Han
Department of Aesthe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ain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hilosophical debate between conceptualism about the content of perceptual experience (hereafter "conceptualism") and nonconceptualism about the content of perceptual experience (hereafter "nonconceptualism")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nature of the content of perceptual experience, and to propose a compatible model of the two opposing theories, the dual process theory, as a new alternative in the philosophical investigation about perception.

To this end, this paper will provide a critical examination of conceptualism and nonconceptualism, which are two philosophical theories that hold opposing views on the nature of the content of perceptual experience, and will show that both theories face the problem of understanding perception as a mental state operated by a single mechanism. Instead, based on studies in cognitive science and neurophilosophy, this paper argues that perception is a mental state composed of a dual process involving two different types of mechanisms and proposes a dual process theory that integrates aspects of conceptualism and nonconceptualism. Furthermore, this paper will prove the validity of the dual process theory by demonstrating its use in the perception of microtones, which is difficult to explain based on the existing arguments of analytic aesthetics.

Chapter Ⅰ preliminarily explores and defines the meaning of the three key terms used in the central question of conceptualism and nonconceptualism: Is the content of perceptual experience conceptual or nonconceptual? First, the author examines what the "perceptual experience" means as distinct from "perceptual belief"; second, the author specifies what the "content" refers to when discussing the content of perceptual experience; and third, the author explains how the "concept" could be defined when used to argue whether content is "conceptual" or "nonconceptual".

Chapter Ⅱ examines conceptualism through a critical lens. It begins with a consideration of the two motivations of conceptualism and then reviews the arguments put forward by conceptualists such as John McDowell and Bill Brewer as well as the criticisms they face.

Chapter Ⅲ critically examines nonconceptualism. Giving an overview of the motivations that several nonconceptualists have in common, the author distinguishes the arguments of nonconceptualists into two types.

In this paper, the author categorizes Tim Crane's argument, which focuses on raising objections to conceptualism, as "negative nonconceptualism", and Christopher Peacocke's argument, which seeks to provide concrete candidates for the nonconceptual content of perceptual experience, as "positive nonconceptualism". At the end of the chapter, the author critically examines both arguments and the objections raised to them.

Chapter Ⅳ suggests the dual process theory as a compatible model that integrates aspects of conceptualism and nonconceptualism and argues that the dual process theory offers a new alternative in the philosophical debate about the nature of the content of perceptual experience. The key issue in both theories arises from the fact that conceptualism and nonconceptualism both presuppose perception as a mental state operated by a single mechanism. Here, the author instead advocates a dual process theory that understands perception as a mental state that is a composite of multiple processes, each of which produces content of a different nature according to two different types of mechanisms.

In Chapter V, the author demonstrates the validity and explanatory power of the dual process theory based on an elucidation of the case of the perception of microtones. Prior to the demonstration, the author examines what the perception of microtones is and the typical conceptualist understanding of the perception of microtones - the scale-degree hypothesis - and the nonconceptualist understanding of the perception of microtones - Diana Raffman's N-pitch perception theory. Then, the author verifies that understanding of the perception of microtones with the dual process theory has several advantages over the existing conceptualist and non-conceptualist understandings. In conclusion, through this demonstration, this paper will shed light on the

philosophical explanatory power and aesthetic implications of the dual process theory.

keywords : Perception, Nonconceptualism, Conceptualism, Neurophilosophy, Dual Process Theory, Microtone, Philosophy of Mind
*Student Number* : 2019-20899